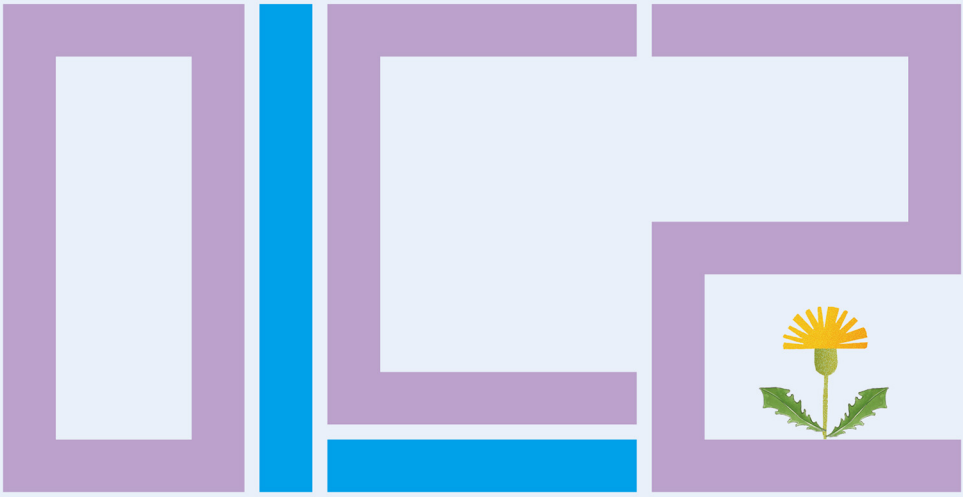
민들레 33

2026
함께하는 책



제28회 민들레문학상 특집

대상 김민석(수필)
시 이석재 곽현숙 성호진 우정순
수필 장길숙 박점수 최서정
소설·동화 배경열 김인성 최세환

9 772671 551006 61
ISSN 2671-5511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제29회 민들레문학상 작품공모 안내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가 주최로 제29회 민들레문학상 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문학활동에 전념하는 숨은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전국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현직 특수교사 선생님 및, 활동보조인,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포함,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 응모 요령 ★

공모 부분 : 시·시조, 동시 : 5편 이상
소설, 동화, 희극 : A4용지 8~9장 내외
수필, 기행문, 수기 : A4용지 2장 내외
모든 작품은 : A4용지 글꼴은 바탕체 제목 13포인트 내용 10포인트 줄간격 160

응모 대상 : 장애인 및 가족(기성·신인 불문), 현직 특수교사, 활동보조인

응모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대상·가작은 장애인에게 우선함)

발　　표 : 2027년 4월 20일~4월 25일(개별통지)

상　　금 : 대상 1편 100만 원(장르 구별 없음)
가작 3편 각 70만 원
장려 7편 각 40만 원

주　　최 :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후　　원 : 대구동서 라이온스클럽 / 기아 오토큐서비스 센터 / 민들레 후원회

접　　수 : E-mail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 메 일 : leehueng10@hanmail.net

문　　의 : 010-4844-1398 / 010-3548-1398

주의사항

- 닉네임으로 응모하는 작품은 취소함, 이메일로 실명만 접수 인정함.
- 입상작은《민들레》발간과 월 회보《민들레향기》에 실어 드리며 정식 등단작가로 활동할 수 있음.
- 응모작품은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입상작은 다른 곳에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자는 작품, 주소(신주소), 연락처, E-mail, 복지카드 사본을 필수로 보내야 함(기존회원 포함).
- 응모한 자 전원은 자동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됨.

참　　조

- 낙선 작품을 책과 소식지에 싣기를 원치 않으시면 응모 원고에 표시해 주어야 함.
- 모든 작품 중 대상 작품이 없을 경우 대상 작품은 뽑지 않음.
- 표절, 또는 이미 발표한 작품일 경우 시상 후에라도 시상금 전액과 상장을 돌려줘야 함.
- 응모자와 직계 가족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응모작품 뒤에 첨부해야 하며 교사, 또는 임직원은 현직 증명서를 첨부할 것.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일 경우에도 선별하여《민들레》와 월간《민들레향기》소식지에 수록함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회장 **이 흥 렬**



민들레 32호 출판기념회 및 제27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

장소 : 강동노인복지회관 4층 대강당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01:00~03:00

주최 : (사회단체)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후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대구동서라이온스클럽 / 민들레후원회





경 민들레 32호 출판기념회 및 제27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 축

장소 : 강동노인복지회관 4층 대강당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01:00~03:00

주최 : (사회단체)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후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대구동서라이온스클럽 / 민들레후원회

















협회 이사 소모임 소풍



6월의 땡볕에도 박종안 후원 회장님의 주선 하에 6명이 소풍을 갔습니다.
맛있는 장어구이도 먹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찻집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진에 담은 행사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아 오토큐 사장님이 원장으로 계신
휴먼인의 송년회에
이흥렬 회장님과 이순희 총무님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협회는 후원금 200만 원과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 들 레

2026 제 33 호

사회단체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발 간 사

내면의 근력을 키워라

어떤 여행객이 티베트의 한 시장에서, 시간을 잊은 채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들은 색색의 모래를 손끝에 집어 들고,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바닥 위에 내려놓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는 정성을 모아 흔들림이 없고 한 알의 모래조차 정교하게 허투루 놓이지 않았다. 그렇게 작은 점들이 모여 원을 이루고, 선이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무늬를 보며, 완성된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그 그림은 완성되었을 때, 숨이 멎을 듯 정교하고도 찬란한 작품이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그는 말조차 잃었다.

그러나 감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빗자루를 들어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것을 쓸어 버렸다. 단 한순간이었다. 그토록 정성을 들인 시간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여행객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들을 붙잡고 물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결과를 남기기 위해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애써야 하는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회장 이 흥 렬



"우리가 그리는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살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완성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러다 보니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스님들이 남긴 것은 작품이 아니라 태도였다. 과정 속에 온전히 머무르는 힘,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었다.

어쩌면 진짜 단단함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결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순간에 머무는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조용하지만 깊은 내면의 근력이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끝을 서두르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오래 머물러 보는 것.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기보다, 그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는 것.

어쩌면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힘일지도 모른다.

나 또한 한 생애 여행객에 불과하다. 이번 달 3월 25일이면 부모와

가족들의 품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된다. 학교 문턱도 밟아 보지 못한 내가 작가의 꿈을 안고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무너뜨림의 힘, 내면의 근력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정글의 늪지대 같은 환경과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핀잔의 총탄을 피해 방어하는 것도 힘겨웠지만, 무엇보다 배고픔과 외로움의 하루를 지워버리는 내면의 근력이 없었으면 다음 날의 상큼한 백지 앞에 긍지의 붓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마음의 백지에 하루를 그리고 또 지우고 어제와 또 다름의 태도와 색채로 문양을 꾸준히 단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찬란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한 묵상 중에서 받는 촛불과 같은 따뜻한 위로의 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누군가를 위해 또 한 명의 나를 키워주기 위해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를 창단하여 봉사와 헌신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올해로 우리 협회가 33주년이다. 그중에 28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중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오는 동안 보람도 많았다.

가슴 아프고 슬펐던 순간, 억울했던 일들이 많아도 내면의 근력을 키워주신 주님과 주변의 많은 분이 격려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 협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건재하다. 어떤 단체나 기관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안전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해 줄 수 있다. 우리 협회는 국가나 시의 지원 사각지대고 문학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어 더 어렵다.

글을 쓰는 장애인들은 경증 장애인도 많이 있지만, 중증 장애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근육이 축소되는 장애인, 뼈마디가 점점 굳어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 외의 희귀병 장애인들이 많다. 이들은 글자 한 자 쓰는 데 온 힘을 다 쏟아야 겨우 한 단어, 한 행을 이어 갈 수 있다.

시각 장애인들은 보이지도 않지만,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문장을 묘사하여 인간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작품 응모에 동참하였다. 작품을 정리하면서 본 다양한 사연에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들이야말로 내면의 근력이 단단한 사람들이다. 끈기와 인내로 점철되어 고통을 허물고 슬픔과 외로움도 쓸어버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지움의 내공을 쌓았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사회에 이런 호롱불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기에 새로움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협회가 될 것이다.

차례

발간사 | 내면의 근력을 키워라 이흥렬 6

제28회 민들레문학상

곽현숙
김민석
김인성
박점수
배경열
성호진



우정순
이석재
장길숙
최서정
최세환

■ 수필 부문

심 사 평 | 곽흥렬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감각적 문체로 그려낸 수작 160
당선소감 | 김민석 조금씩 바꿔온 시간에 대한 기록 163
대 상 | 김민석 복도 끝에서 164
당선소감 | 장길숙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느낌 169
가 작 | 장길숙 도심의 옹달샘 171
장 려 | 박점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177
장 려 | 최서정 돌다리 정류장에는 돌다리가 없다 184

■ 시 부문

심 사 평 | 김두한 흑백으로 인화된 가족사의 콜라쥬 188
당선소감 | 이석재 삶의 발버둥 속에서 피는 꽃 190
가 작 | 이석재 8월, 그리고 11월의 콜라쥬 외 4편 191
장 려 | 곽현숙 엄마 외 4편 202

장　려 | 성호진 쭉정이 외 4편 211
장　려 | 우정순 식탁 외 4편 220

■ 소설·동화 부문

심 사 평 | 이근자 고독했을 시간과 열정에 경외심을 225
당선소감 | 배경열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227
가　작 | 배경열 〈소설〉 바닥은 오래 간다 229
장　려 | 김인성 〈동화〉 참새와 허수아비 245
장　려 | 최세환 〈소설〉 꼴랑지가 없소! 251

ㅅㅣ

강민호　무서운 놈 • 16
고정아　사랑의 샘물을 마시며 • 18
공소규　엄마 생각 • 20
김기순　장맛비의 선물 • 21
김명희　아침 햇살 외 1편 • 22
김성현　병실의 노부부 • 24
김양숙　새날을 갈망하며 • 26
김옥미　꽃처럼 • 27
김윤섭　이영자 • 28
김인성　우물 • 30
김지후　손에 닿을 듯 • 32
노차돌　나이가 날을 먹네 • 34
라연주　봄은 무지갯빛 세상 • 35
문괘식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하여 • 36

박미란 가을을 재촉하는 비 • 38
박선우 여름 • 39
박윤오 시간 지나고 보면 • 41
박정현 하얀 지팡이 • 42
박철한 통원 치료 출발하는 아내 • 43
박홍원 가을 숲 • 44
배동일 나쁜 놈 • 45
손정란 엄마 손잡고 같이 가 • 46
송 영 아픈 내 손가락 • 47
안선영 공기 커피 한잔 • 48
오흥국 프리즘 • 49
윤국헌 돌머리 • 50
이경남 갈애 • 51
이대우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 52
이순애 공개 구혼 • 54
이순희 작은 행복 외 1편 • 55
이현정 10년 만의 외출 • 58
이흥렬 그 말 • 59
임민영 피망 • 61
조성균 오월의 꽃향기 • 63
조아영 어디 가려고 • 64
천병학 마흔 살 재간둥이 • 67
최은호 장마 • 69
최인규 진상역 사내 • 70
최준호 불가사리 • 71
최희옥 새벽에 • 72
한관식 인형人形들처럼 • 74
한병진 동강 할미꽃 • 75
홍순태 새벽의 식사는 사랑스럽다 • 77

수필

고봉국　난,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며 버틸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 80
김동한　아버지란 이름으로 • 83
김지윤　어느 가을날, 함께 걸은 길에서 • 86
김지현　미안하다 안 고맙다 • 89
김현희　잡채를 빼기로 한 설날 • 94
김효현　당연한 길 • 97
민경례　어디쯤 마중해야 할까 • 101
박철한　처량한 환자의 신세 • 107
박홍원　수인선의 추억 • 109
성호진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 112
유지연　모두의 파랑새 모두의 은하수 모두가 거북이 • 121
이병길　나는 멈췄지만 삶은 달렸다 • 130
이세미　새로운 기다림(천국) • 136
이종호　AI와 함께 쓰는 경로당 일기 • 139
이채은　비울수록 풍요로워지는 삶, 여백 • 145
조재훈　엄마에게 하려고 했던, 그러나 끝내 하지 못한 거짓말 • 147
한미숙　관점의 차이 • 151
홍순태　소나기 • 154



○ 연혁 · 268　○ 주소록 · 275
○ 함께해 주세요 · 282　○ 문학 강의합니다 · 283
○ 후원 안내 · 284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85
○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계획서 · 286

시

강민호 고정아 공소규 김기순 김명희 김성현 김양숙
김옥미 김윤섭 김인성 김지후 노차돌 라연주 문쾌식
박미란 박선우 박윤오 박정현 박철한 박홍원
배동일 손정란 송　영 안선영 오흥국 윤국헌
이경남 이대우 이순애 이순희 이현정 이흥렬
임민영 조성균 조아영 천병학 최은호 최인규
최준호 최희옥 한관식 한병진 홍순태

무서운 놈

강 민 호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참 좋았다

좋아하는
고기들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
원이 없는 날이었다

돼지고기부터
소고기까지 먹어
배부른 날로 기억될 번했다

치킨부터
삼겹살까지 먹어
평생 기쁜 날로
생각날 뻔한 날이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해녀 일 밭일 가기 전에

할머니가 이불 빨래하게 해서
새벽 똥이란 무서운 놈이
생긴 날로 기억나는 날이다

사랑의 샘물을 마시며

고 정 아

따스한 아침햇살이
비쳐드는 창가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은총의 샘에서
날마다 나는
사랑의 샘물을 마시지

사랑의 샘물을 마시는데도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삶이란 어쩌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이어지는 목마름이 아닐까

먼 훗날 주님께로
영원한 여행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바칠까

〉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샘물을 마시며
수없이 바쳐질 나의 기도는
감사의 향기로움으로 빛났으면 좋겠네.

엄마 생각

공 소 규

이제는 당신의 구수한 맛을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그 맛이 세월이란
도둑이 빼앗아 간 뒤로는 아무리
찾고 애원해 봐도 오지 않습니다.

비와 바람에 찢기고 파인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면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당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예전의
맛을 떠올려 보며 따스한 온기를
생각합니다.

장맛비의 선물

김 기 순

며칠 창문을 힘차게 때리며
슬피 울던 눈물 그쳤다.

창문을 열자
어젯밤 전등 불빛 따라와
방충망 빼곡히 걸린 낮별들 게눈 감춤 반짝임
군악대 작은북 소리로 두두~둑 떨어짐

깊은 어두움 뚫고 반짝이는
반딧불과 눈 맞춤에
두 눈부심

아침 햇살

김 명 희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빛의 손짓
밤새 얼어붙은 침묵을
새소리로 깨운다

온 세상 가득 금가루를 뿌리는
빛의 축제
비 오던 어제는 잊고
파란 하늘을 안으라 한다

값없이 무한정 쏟아지는
빛의 사랑
겨울을 견딘 봄꽃처럼
나는 환하게 피어난다

내일도 오늘처럼
빛의 따뜻함이
나를 포근히 감싸주었으면

양파

김 명 희

우리의 만남은
달콤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쓴약 같은 매운맛에
눈물 흘리기도 한다

그대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을 때
양파를 벗기며
내 안에 쌓인 설움
씻어낸다

껍질을 벗기면
매끄러운 뽀얀 속살
흠도 티도 없는
어떤 손길도 닿은 적 없이
순결하다

병실의 노부부

김 성 현

병마가 겹겹이 쌓인 늙은 남편을
따라온 늙은 아내

소싯적 아내로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았는지
질긴 권위의 밧줄에 묶여
순종만을 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갓난아기처럼
일일이 돌봐야 하는 병든 남편 곁을
거센 전염병의 광풍으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병실에서
엄마처럼 지키는 아내

한평생 살아온 정이 있어
스스럼없이 몸을 맡기고
자신만이 돌봐야 할 사람이기에
기꺼이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
부부란 꽃은
오래도록 우러난 진한 정으로
죽음이 자르기 전엔 서로 놓을 수 없는
하나의 화분 속에 피어난
두 송이의 목련화

새날을 갈망하며

김 양 숙

의사가 질문한다
따로 드시는 약 있으십니까?
난 잠시 멈칫
정신건강의학과 약 먹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는 말
감추고 싶은 말 그러나
자랑은 아니라도
위축될 것도 없다

독수리 눈초리처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부화조차 못 한 차별화된 사회
아픈 이들에겐 큰 상처다

병원 약국에서
내 병명을 편하고 떳떳하게
말할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꽃처럼

김 옥 미

꽃처럼 활짝 웃어봐
슬픔이 사라질 거야

꽃처럼 향기를 품어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야

꽃처럼 예뻐져봐
내 모습도 예뻐질 거야

꽃처럼 하늘을 쳐다봐
힘들 때 파란 마음이 생길 거야

꽃처럼 행복을 줘봐
늘 축복 속에서 살 거야

이영자

김 윤 섭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이
양치질할 때에도 어~~이
등이 가려워도 어~~이

어~~이 계란프라이 좀 해 주소
어~~이 폰 충전 좀 해 주소
어~~이 나 샤워하고 싶네

소통이 안 될 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어도
불평 한마디 없는 내 어~~이

모든 수발 다 들어주는 내 어~~이
사랑하고 아껴주고픈 내 어~~이

하지만 표현이 서툰 지체장애인 나
이제라도 사랑한다 표현하고 살련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말하련다
앞길에 밝은 빛이 되어 주겠다고…

〉
어~~이가 아닌
시각장애인 내 아내 이영자

우물

김 인 성

마을의 우물은 오래전에 말랐다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닫고 살기 시작했고
이름을 부르는 일도 줄어들었다

나는 가끔
우물 속을 들여다본다

아무것도 없다고들 말하지만

한낮의 빛이 깊이 내려가다
중간쯤에서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아래는
끝내 밝아지지 않는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
물소리도 없이

그 뒤로
우물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지 않은 날에도
거기까지 간다

입을 벌리고

아무것도 길어 올리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온다

밤이 되면
우물 속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올라온다

내 것과 비슷한 속도로

나는 그 소리를
끝내 부르지 않는다

손에 닿을 듯

김 지 후

꿈에 그리던 당신을 봤다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아
읊조리며 듣던 나

그런 당신이 여기에 있다
그런 당신이 내 옆에 있다

부를 수 있고
울 수 있었던 순간처럼

멀리 떨어진 이곳에
환청처럼

손가락 끝에 닿을 듯 미세한 저림

찌릿찌릿
감정은 무겁고 입은 가볍다
잊을 수 없다

〉
숨을 내쉬는 당신의 목소리
그런 당신이 그런 나를
당신이 본다

나이가 날을 먹네

노 차 돌

어제도 낮이 오고 밤이 가고

오늘도 낮이 오고 밤이 가고

내일도 낮이 오고 밤이 가고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

이러니 내가 나이를 먹는 건지

나이가 날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난 내일모레도 낮이 오고 밤이 가는 거

보면서 나이가 날 먹는 걸 구경하겠지.

봄은 무지갯빛 세상

라 연 주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나무들은 깊은 잠에서 일어나
나뭇가지 위에 물감으로 예쁘게 물들인 듯
노랑, 분홍 꽃망울을 터트린다
여기저기 마치 무지갯빛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예쁜 꽃들을 피워내는 따뜻한 봄
노란 민들레, 보라 제비꽃, 하얀 목련, 그리고 분홍 벚꽃들
예쁜 꽃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봄은 사라진다
너무 짧게 느껴지는 봄
무지개처럼 황홀하지만 이내 사라지는 봄…
하지만 봄은 나의 마음에 꽃향기를 선물로 남기고
나는 고맙고 착한 봄을 오래 기억한다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하여

문 쾌 식

저 산에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는 건
외딴 오두막집 추위에 떠는 할머니의 밤
땔감이 되기 위해
아무도 몰래, 아파도 소리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이유 하나로
오늘도 산은 견디어낸다

만일 그 가지들이 끝내 살아남기만 한다면
그 할머니는 무엇으로 이 겨울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부서져라, 아파도 많이 부서져라
누군가의 따뜻함이 된다면
이 아픔도 길이 되리라
부러지자, 아파도 함께 부러지자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밤을 살게 한다면

만일 내가 오늘도 부러지지 않으려
나만을 지키며 서 있기만 한다면
누가 나를 찾아와 기대며

자기의 집을 짓고
비바람 막을 기둥으로 써 주겠는가

상처 난 자리마다 따뜻함이 남는다면
이 생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준다면
나를 태워 남을 살리는 불꽃이 되리라

부서져라, 사랑으로 많이 부서져라
이 한 몸의 끝에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면

부러지자, 아파도 기꺼이 부러지자
누군가의 따뜻함이 될 수 있다면

가을을 재촉하는 비

박 미 란

비발디의 사계가 전자바이올린을 타고
마구 쏟아진다
나는 조그만 우산 속에서 여름을 듣는다

우연히 듣게 된 클래식 음악
희망찬 빗줄기 되어
움츠러들던 나의 마음을 적시고

겨자 빛깔 우산 위로 여름이 쏟아진다
이 여름 뒤에도 찾아와 줄
소중한 나의 소망인 듯

가을을 재촉하는 비
내 가슴속 음악처럼 낭랑히 흐른다

여름

박 선 우

컴퓨터 인터넷 창에
여름이라는 단어를 쳐보았다.
검색된 수백 개의 이미지들
에메랄드빛을 머금은 바다 그리고 하늘
오른쪽 위의 부분에
작은 섬과
그리고 그 아래에 열대식물
왼편에 백사장
물거품을 일으키며
가쁜 하얀 숨을 내쉬는
거품 머금은 해변

컴퓨터의 발달
언젠가는 가상현실이 우리를 지배할지 모른다.

옛날에 읽었던 만화
가상의 공원에 있는 주인공
모든 게 완벽하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 나무, 사람들,
앉을 수 없는 의자

〉
박수 소리
자 이제 공원 관람이 끝났다는 듯
전원이 차단된 곳에
엉성하게 팽개쳐진 컴퓨터 보조도구들

나에게도 지금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자 이제 여름 구경은 끝났습니다.
인터넷 창을 닫음과 함께

시간 지나고 보면

박 윤 오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
어여쁜 봄이 오듯
외로움도
사랑 찾아가는 길목에서
찔레꽃 송이송이 피어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은 조여지고
애타는 것은 사람의 몫
자연은 초연하게 견디며
남겨지는 대로 피어난다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고가는
윤회의 시간 속에
자기애를 담아
곱살맞게 남겨주는
한보따리 추억들

잃어버린 잉여의 시간
희미하게 등줄기 타고
미끄러져 올 때도
있는 마음 비워내는
내 것의 하루는 내 것뿐이다

하얀 지팡이

박 정 현

봄바람 타고 몸을 맡기고
더듬이를 더듬거리며
하얀 벚꽃 밟고 서서

눈도 귀도 없는 길을
까만 하늘을 툭툭 치며 길을 걷고 있다

이목耳目 없는 길 앞에 서면
뿌리 내릴 곳도 없고
지나온 길은 이미 흔적도 없다

까만 밤 무수한 별빛 앞에
층층이 늘어진 하얀 구름 징검다리를 건너
길게 늘어선 땅을 찾아간다….

통원 치료 출발하는 아내

박 철 한

아침 햇살이 부끄러운 듯
맞은편 건물 지붕 끝 선에 얼굴을 삐쭉 내밀어
윙크하며 인사를 한다

오늘도
예약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아내의 부산한 움직임을
등 뒤로 밖을 나가자

어젯밤 잠을 설쳐 화가 났는지
날카로운 면도칼로 양 볼을 베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내 자리를 대신하여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절뚝거림으로 뒤따라와 승차한 딸의 차
뒷유리에 재활의 성공 희망 메시지를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네

가을 숲

박 홍 원

붉게 타오르는 숲으로 들어간다
단풍은 거친 숨 토해내며
짧은 축제 마치고 나무 아래 눕는다

숲으로 가는 발걸음에
누워있던 낙엽들
바스락거리는 화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장단을 맞춰준다

얇아진 옷차림의 나뭇가지 사이로
가을바람 선율에 산이 노래한다

숲도 나도
나이테 하나 그려 넣고
가을 뒷모습에 손 흔들어 보낸다

나쁜 놈

배 동 일

온몸에 천둥 벼락친다
배가 살살 아프고 식은땀이 나오고
감각도 없다

몸에서 뽑혀 나온 곱빼기 짜장변
멍청한 놈,
몸에서 짜장이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다니
수십 년 지기 의리 지키며
살아온 내 친구 십이지장궤양이
자꾸만 만나자고 한다

지루해서 헤어지자고 약속했는데
무슨 미련 남아서 또 친구가 되었다

나쁜 놈, 나를 괴롭혀 놓고
저 혼자 무엇이 그리 좋을까
진짜 나쁜 놈

엄마 손잡고 같이 가

손 정 란

너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

너의 손이 내 손에 체온을 전해줄 때

나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린다

시간 흘러

내 손보다 너의 손이 더 커지는 날

그때도 가끔은

“엄마 손잡고 같이 가”를 말해주길

가만히 바라본다

아픈 내 손가락

– 장애 자녀를 보면서

송　　영

생손 앓은 나를 누가 알까
한번 앓아본 그를 땅을 갈라서도
그 아픔 탈출하고 싶다
시대의 구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 걸어 나온 아픔
비구름 농밀한 밤길 비명을 침묵으로 떨고 있는 차가운 입술

상처난 새싹 흠이 된 채로 자라온 내 아픈 손가락
봄이 오기를 기다려 바라보는 마중물
하늘도 무심찮아 하늘 같은 사랑으로 어루만져준 심상
병아리 같은 그에게 어미닭처럼 꼭꼭 깨트려
부리로 먹여주신 사랑

험한 세파 속에서 봄비로 정겨움 가득
먼길 등불로 밝혀주어
한 생을 어눌한 상처 안고
옹색하게 살아가는 내 아픈 손가락
아린 내 가슴팍에 오롯이 남아 있다

공기 커피 한잔

안 선 영

나와 공기 커피 한잔 해줄래?
침대와 마주 잡을 큰 손이면 충분해

편안하게 누워서 숨을 따르고
우리의 손 온도로 이 공기를 내리는 거야

너와 이 방 이 순간의 공기를
음미하면서 이불이 우리를 감싸는 소리에 음미하면서

가만히…
잔잔히…

따뜻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공기를
나의 사랑 샷 한잔에 담아 달달하게 너에게 줄게

나와 공기 커피 한잔 해줄래?
내 곁에 있어 줄래?

프리즘

오 흥 국

아무도 몰랐다
버려진 유리 조각 모여
찬란한 빛을 발할 줄
몰랐다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기대어
한껏 받아들여 모은 빛
세상 향하여 내비칠 줄

누구도 몰랐다
어쭙잖은 글 볕 모아서
아름다운 詩의 빛 발할 줄
몰랐다 누구도.

돌머리

윤 국 헌

서풍에 그을린 비린내

돌머리 끝자락에 펄럭거리면

돌메레 부뚜막에 밥 짓는

하얀 연기가 오른다.

고단한 하루가 뉘엿뉘엿

갈매기 외로워 짝을 부르는

작은 술 항구에

윤슬 같은 밤 안개가 졸고

이리저리 가는 물살이

간지러운 돌머리 바닷가.

갈애

이 경 남

바람이고 싶었다
흔적 없는 바람이고 싶었다
구름이고 싶었다
사념 없이 흩어질 줄 아는 구름이고 싶었다

바람이고 싶었다
구름이고 깊었다
머물 줄 모르는
흩어져 흔적 없는
바람이고 싶었고 구름이고 싶었다

긴 머무름
깊은 생각
뜨거운 가슴
바람은 처음부터 바람이었을까
구름은 본시부터 구름이었을까
수 겁의 머무름이 있었고
억겁의 생각과 켜켜이 묵혀진 가슴이 있었을까

나는 오늘 한 자락 바람이고 한 점의 먹구름이다
들판의 아침 이슬로 목 축인 바람이고
산마루 높은 곳 홀로 선 구름이다…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이 대 우

40년 전, 젊은이들이 펜팔하던 시절
나는 현곡면 나원1리 골방에 살고
그 사람은 경남 하동군 시골 마을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내 사연 듣고
편지 나누기를 좋아했던 착한 사람…

어느 날은 배고플 강아지 밥 주고 나서
햇살이 앉은 마루에서 편하게 엎드려
내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던 사람…

그토록 누군가가 그리웠는지
어느 가을밤 달빛에 목욕한 달맞이꽃같이
부모님 몰래 울었다고 했던 사람…

정말 나를 좋아했는지
대우 씨, 편지로라도
우리 결혼할래요? 하면서
예식 순서를 알뜰히 적어서 보냈던 사람…

나의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 고백하는 자기 입술과 자기 가슴을
나의 입술에 나의 가슴에 부드러운 꽃잎처럼
살짝 올려주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

교통편이 좋은 요즘 같으면 언제든지 올 텐데
그때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가 먼 길을 걸어서
남자의 집을 찾아오기란 그리 쉽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만들어주러 오고 싶다 했는데

얼마 후… 다른 데로 시집가라는 부모님의 성화가
시작이 된 것 같더니 칼국수도 못 만들어주고
엽서 한 장에다 마지막 인사를 적어 보내고 시집간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공개 구혼

이 순 애

여름내 밤낮없이 일하느라
목이 쉰 에어컨 방
가을이 잠깐 세들었다
짧은 계약 기간 촘촘한데
가는 곳마다 축제다
더덕술 익어가는 방태산 기슭
도토리묵집 배불뚝이 아줌마와 맺은 약속
사위감 데리고 온다 했던가
아들 하나 없는 내가
더덕 막걸리에 코 박고 무슨 헛소리였나
신랑감 기다리는 딸
매일 다이어트 한다는데
누구, 나 따라가서 장가들지 않을래
신부감 수굿하고
봄마다 흘리는 계곡
백 년 살아도 후회 않을 거야

작은 행복

이 순 희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대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차디찬 멸시와 냉대를 견디며
이렇듯 오랜 세월을 기다렸나 봅니다

비가 오고 땅이 굳으면 더 튼튼하듯
긴 세월 모진 비바람에 뒹굴던 마른
낙엽 같은 인생으로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찾은 인생의 작은 행복이
유리처럼 깨어질까 염려되어

차마 끄집어내어 보지 못하고
가슴 깊이 숨겨둔 채
혼자만의 상사화를 피워봅니다

그때가 그립다

이 순 희

신라시대 진평왕 왕명으로 만들어져
임진왜란 때 화마로 소실되었다는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 절터
밭 한가운데 돌부처가 앉았다는
돌 원탁 위에 누워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

뒤 꽁지에 등불 달고
밤하늘을 깜빡이며 날아다니던
반딧불들의 아름다운 모습

학교 갔다 와서 감자 몇 알
보자기에 싸서 소 몰고 오르던 산길
친구들과 땅따먹기에 줄넘기, 자치기,
말타기와 숨바꼭질하던 나의 유년

엉성하게 올려놓은 돌담 밑으로
박하가 옹기종기 피었고 그 옆으로
개울물이 흐르던 시절 삽짝문 옆에는

동네 아줌니들의 빨래터도 되고
온갖 채소를 씻는 장소가 되었던 곳

걱정 한 보따리 풀어 놓고 한숨 쉬던
내 가족들과 마당 멍석에 앉아서
모깃불 피워 놓고 꽁보리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국수 꼬랑지 잘라서
숯불에 구워 먹었던 그 시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신 지
20년도 넘는 내 아버지의
가난한 입에서 쏟아져 나오던 욕설들
지금은 그때가 무척 그립다

10년 만의 외출

이 현 정

기나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새출발하던 10년 만의 외출.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를 꿈꾸며,
나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였다.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힘들었던 지난날을 아픔을 뒤로한 채 나는 있는 힘껏 성장하였다.

제자리걸음을 걷던 내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10년 만의 외출.
그동안 난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말

이 흥 렬

(1)
수많은 만남을 피하고
너에게 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너를 알 수는 없을까
땅거미를 밟으며 말없는
생각에 차갑게 다가서는
알 수 없는 감정
온종일 거센 인생살이에
굳어서 시린 손
호-호 입김 불어서 녹이는 손끝에는
벌써 석양이 지는데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
너를 향한 지름길을 찾는다

(2)
언제쯤일까
가슴 탁 트이도록
바람 끝을 휘어잡을 만큼
통쾌한 웃음 터트리며

네 앞에 설 그날은
질기디질긴 인연에
푸르른 가슴 다 태우고
사무침이 재로 남은
그날은 너에게 말할 수 있으랴

(3)
영원히 간직하려던 그 말 한마디
모래알보다 더 흔하지만 진주보다 귀하게
하늘보다 넓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푸르게
바다보다 깊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신비롭게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알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말 한마디
그리움 가득 채워서 남기리라
모양새는 없지만 그 모양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애절한 그 한마디
영혼으로, 가슴으로 남기리라

피망

임 민 영

피해망상의 줄임말인 피망은
그 시절 인터넷발 유행어였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언제나 질문이 들렸다
너 피망 있어?

어린 나는 피망이 싫었다
진심처럼 정직한 맛이 났다
엄마 아빠가 입에다 들이밀면
빠르게 씹어 삼켰다
나무 향이 눈 뒤에 스몄다

피망을 먹은 날이면
싸우는 소리에 벽이 울리고
귓구멍으로 씨들이 쏟아졌다
사방이 바스락거렸다
무언가 발아했다 귓바퀴 중앙에서

피망은 베란다 텃밭에서도 자라났다
그저 살아가자는 엄마의 부탁과

네 팔자라는 아빠의 선고를
거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났다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컸다

아빠한테 피망꽃 향을 맡게 해주고 싶었다
축농증으로 코에 철심 박는 수술을 한 뒤
후각을 잃었다는 사실은
엄마가 알려주었다 불쌍한 남자야
찢어진 미간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누구도 잘못한 건 없었고
모두가 나를 사랑했다
나는 매끈한 내 무릎을 매만지며
매일 피망을 먹었다 아삭아삭
소리가 너무 맑아서 무서웠다

피망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해서
집 안에 적막이 닥치면
잭의 콩나무처럼 지붕을 뚫고 자랐다
바람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였다
밤이면 다시 뚫릴 천장에다 꼼꼼히

다음 날 아침이면
아빠가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았다

오월의 꽃향기

조 성 균

계절의 여왕 오월
머리를 맑게 하는
그윽한 향기

뒷산에서 내려오는
아카시아 향기는
콧속을 통하여
온몸에
향기로 적셔준다

참사랑의 꽃 향기가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워하는
마음속에
아른거리는 것
사랑의 추억이

어디 가려고

조 아 영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다

하필이면

시어머니 친구의 딸이

내가 다니던 안과의
레지던트였다

그날 이후

내 이름 앞에는

사랑보다 먼저

유전질환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고 했다

절대 안 된다고…
말려야 한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
죽어도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던 날

나는

이미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헤어지라고

나는 말했다

알겠다고

아드님을
설득해달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구 집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이쯤이면

사랑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었다

도망치듯 집을 나서던
나를 보며

그가 말했다

어디 가려고…
잠깐 이야기 좀 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떤 사람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흔 살 재간둥이

천 병 학

재동이 올해 몇 살이야
반짝이는 놀란 눈동자
작년에 서른아홉이라 했잖아
멀뚱멀뚱 커다란 눈을 끔벅끔벅

오늘이 며칠이야
날짜를 묻는다
한참을 우물우물 입술은 달싹달싹
눈빛은 벽을 애무하는 달력에 꽂혀있고

머리와 눈동자는 골똘 중
꿈의 날개는 어느 하늘을 날고 있을까
애원하는 눈치가 안쓰럽다

동료가 달력을 떼어온다
아라비아 숫자들이 저요 저요 하며
천사를 손짓하고
동무가 13을 지목한다
바라보던 국장님이 십삼일 금요일
내일은 며칠?

사람들 입술만 또렷이
숫자들이 눈빛 따라 하늘을 난다

누군가 재동이 기를 북돋운다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투포환 창던지기 등
개인종목 세 개를 휩쓸었다
금메달 세 개나 목에 걸고서
의기양양 어깨가 으쓱

가끔 체육대회가 언제냐고 묻는 재동이

장마

최 은 호

구름이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구름 오줌이 내려온다.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매일 길이 잠기게 온다.

텃밭에도 오고
아기새가 사는 나무에도 오고
개구리가 노래하는 논에도 오고
지렁이 집에도 오고

그러다가 오늘 잠깐 멈추니
텃밭 지렁이도
아기새도 개구리도
신이 났는지
우리 집 앞에 놀러 왔다.

구름이 이제 그만 물을 마시면 좋겠다.
아주 가끔 조금만 먹으면 좋겠다.

진상역 사내

최 인 규

역무원조차 없는 진상역
새벽 기차를 기다리는
초로初老의 사내는
홈플레이트 바닥에
길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젓가락 같은 철로 위로
줄담배 연기를 뱉어내고 있다.

매화향 은은한 플랫폼에
낙오병 같은 저 사내
새벽은 밝아오고
기적 소리도 다가오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고개를 떨군 채
"하동 간당께"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소연처럼 내뱉는다.

길 건너 카페에 불 켜지고
무궁화호는 울음처럼 진입하는데.

불가사리

최 준 호

저 멀리 우주에서
바다로 떨어진 별 하나
광활한 우주를 힘들게 떠다니는 대신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싶었을까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누가 더 밝은지 겨루다 지쳐
어두운 바닷속으로 내려왔을까

허공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것보다
서로 닿을 수 있는 곳을 택한 불가사리

그 거리가 내 마음속에 박힌다.

새벽에

최 희 옥

또닥이는 빗소리
마음 한켠 적시우지만
흙 담장 위 붉은 능소화
낙화 설움 어이할꼬

내 젊음은
혼의 어둔 밤들과
성난 파도의 산
헤쳐갈 때마다 무시로
눈물 쏙 다 빼가더니

먹장구름 잦아들어
온 힘 다해 화알짝
만개할까 했더니

질그릇 같은 육신
여기저기 금이 가네

부모 형제 삼킨 흙
젖어 떨어진 널 삼키고

잉태하고 해산하겠지

떨어지고 밟히고
잃어도 봤지만

그래도 괜찮다

신성한 빗발
세게 창 두드리는 새벽

지금 이 순간 여기
깨끗한 정신으로
나 깨어있으니…!

인형人形들처럼

한 관 식

작고 홀로인 모퉁이 어디쯤 달셋방에서 사계절을 넘겨보자
저마다 술잔을 든 채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춰도 좋고
창을 열면 간혹 철로를 달리는 아름다운 기차가 보여서 좋고
항시 허공을 향해 옆집 개가 목쉬도록 짖으면
그때마다 푸른 하늘이 설득 있게 눈에 들어와
어스름 저녁나절 노을빛으로 조용히 숨죽여서 더 좋았다

누이야, 어제는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작은 도랑은 범람하였고
튀어 오른 메기가 가슴지느러미를 젖히고
어느 맑고 찬 물줄기를 찾아 푸덕거렸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견뎠다면서 한 목소리로
밥상 앞에 앉은 달셋방 친구들이 눈물겨웠다

코밑에 들이닥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보다
지금이 더욱 알찬 세월인지 모를 일이다
책장을 덮었다고 한번 접힌 모서리는 낯선 감촉을 허물어 버린다
바짓단 밑으로 조금씩 오래전 모래알이 흘러내리면
턱을 괸 채 작은 한숨이 쌓여가서
독특한 무중력은 완벽한 세월이라도 도래하기 마련이었다

동강 할미꽃

한 병 진

깎아지른 절벽 끝
바람도 쉬어 가는 자리에서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강물의 속삭임 하나로
긴 겨울을 견뎌낸 얼굴

흰 눈의 기억을 이고
자줏빛 숨결로
봄을 먼저 불러낸 이름

동강은 말없이 흐르고
당신은 말없이 서서
시간보다 깊은 이야기를 건넨다

낮게, 더 낮게
땅을 향해 고개를 떨군 채
하늘을 닮아가는 꽃

〉
아, 삶이란
저렇게도 조용히
가장 험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

오늘도 바람은 묻고
당신은 대답 대신
한 송이 흔들림으로 살아 있다.

새벽의 식사는 사랑스럽다

홍 순 태

여섯 시
아내가 먼저 일어난다

일곱 시
김이 오른다

식탁은
조용히 제단이 되고

한 술
또 한 술
손은 기도처럼 움직인다

말은 적고
숨은 고요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하루가 있다

새벽의 식사는
사랑스럽다

수필

고봉국 김동한 김지윤 김지현
김현희 김효현 민경례 박철한
박홍원 성호진 유지연 이병길
이세미 이종호 이채은 조재훈
한미숙 홍순태

난,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며 버틸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고 봉 국

전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할겁니다. 들어주세요.

먼저 나의 원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이시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못 올랐을뿐더러 학교는 엄두도 못 했을 거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햇빛과 늘 나를 가슴에 안고 돌보느라 어머니의 목줄기에서 배어 나오는 여릿한 땀 냄새. 나는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면 항상 마음 한편이 아려오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나는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안타깝게도 나는 '장애'라는 운명을 작은 두 팔에 꼭 껴안은 채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부모님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으셨다. 그러나 부모님은 곧 감정을 추스르셨고 다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대학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에 매진하였다. 그 대학병원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 같이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그곳에서는 너무도 많은 이야깃거리와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갔다. 나는 그곳에서 아프게 성장했고 그러던 어느 날, 아프게 성장해왔던 이야기들을 꼭 글로 써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먼 길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는지 생각하면 꿈만 같았다.

아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인 거 같았다. 엄마와 아빠의 지칠 줄 모르는 크나큰 사랑이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 지금부터 잊을 수 없는 생각에 앨범을 꺼내려 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친 몸을 이끌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람이 북적대는 서울의 전철 안으로 몸을 실었다. 들락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주목 아닌 주목을 받았다. 어머니한테 물었다. 언제쯤 서울역 전철을 안 타는 날이 오냐면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렸을 적부터 당신께서 약을 잘못 먹어서 자식이 장애인이 됐다는 죄책감에 빠져 이날토록 평생 웃음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어디 용하다는 말을 들으면 멀리 있어도 나를 깨워서 데리고 가셨다. 지금도 용하다는 말에 단숨에 전철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붙잡으면서 데리고 가셨다. 난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게 어머니를 위한 최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난 자연스럽게 병원에 있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19년 동안 쭉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 표정만 봐도 치료를 즐겁게 할 수 있나 아님 할 수 없나를 대번에 알아맞추신다. 선생님은 그걸 알고 치료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한다. 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생겼다. "선생님, 제가 치료받아봤자 뭐 햐냐구요! 그래 봤자 장애인이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될 텐데."라며 선생님한테 속에 있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찍 치료를 끝마쳐 주셨고 잠시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셨다. 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철을 타고 반복된 일상을 생각하며 저녁밥을 먹고 그대로 곯아떨어졌다. 그 이튿날

어김없이 나의 일상은 시작되었고 오늘도 치료 선생님을 만나러 서울역에 전철을 타는데…. 이상하게도 전철 안에 사람이 없었다. 난 어머니한테 이상하다고 그랬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랬다. 난 변함없이 오고가는 사람을 문을 통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병원에 있어야 할 선생님이 나오고 그 많았던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었다. 한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면서 나에게 전했다. 난 깜짝 놀라 어머니한테 물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셨다. "네가 하두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네 생일에 맞춰서 선생님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펑펑 울었다. 감동받았기보다는 그동안 슬픔이 쌓여서 눈물이 밀려온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슴속에 맹세한다. 힘들 때 이 추억을 생각하며 이겨내겠다고…. 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두고두고 엄마에게 기쁜 일만 주고 싶다고. 또한 이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꺼내 보고 싶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첫째는 남녀간의 사랑 둘째는 부모의 사랑. 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식에게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느 사랑보다 위대하다고 느낀다. 우리 어머니 사랑처럼…. 아마 이 세상에 위대하신 신이 부족해서 어머니라는 분을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전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이거면 됐다, 말하시는 분. 이런 어머니가 있어 전 행복합니다. 이거야말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아버지란 이름으로

김 동 한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저녁 때였다.

집사람이 밥하기 싫다고 했다. 집사람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여느 날처럼 나가서 먹자고 맞장구를 쳐줬다. 우리 내외는 외식을 즐겨한다. 그날도 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한식 전문 식당 '두부마을'에 들러 정식 2인분을 주문했다.

식당엔 추석을 맞아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 듯한 젊은이들이 귀성한 탓인지 남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물론 우리 내외처럼 나이 든 노인네들도 드문드문 눈에 들어왔다. 부모님 모시고 자리를 함께한 듯한 아들과 며느리로 여겨지는 젊은 한 쌍의 부부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내외도 젊은이들 틈에 섞여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보라~!" 서로 권해가면서 부지런히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식대를 계산하려고 집사람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내밀며 "이것으로도 결제가 되나요?"라고 묻자, 여사장은 "되긴 되는데요, 어르신들 식대는 조금 전에 나간 젊은 남자 두 사람이 대납하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예? 왜요?"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젊은 남자 두 사람 가고 없으니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생각나서 대납한다고 했습니다."

"에그 저런, 진작 얘기했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것인데요~!"

우리 큰아들 또래로 보였던 그네들 두 젊은이는 50대 초반으로 짐작되었다.

두 젊은이는 나이 들어 걸음걸이가 시원찮은 내 모습과 허리가 S자처럼 굽은 집사람 모습에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엄지손가락이 닳아 지문이 없어지도록 고생한 전형적 부모의 모습을 떠올렸나 보다. 그네들 두 젊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짠해 온다. 그러나 한편으론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날 살가운 추억 만들었다는 생각에 빙그레 웃으며 거칠어진 집사람 손잡고 귀갓길에 나선다.

생활 일기를 점검해 보았더니 2023년 겨울의 끝자락인 2월 15일 오후였다.

아산병원에서 채혈과 CT 촬영을 끝내고 잠실나루역에서 전철을 타고 강변역에 도착, 가락국수 한 그릇을 먹어볼 요량으로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섰다. 느긋하게 죽치고 앉아 제대로 식사할 식당도 주변에 없었거니와 그보다는 가락국수로 한 끼를 때우는 게 병원을 오갈 때 습관처럼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시뻘건 고춧가루가 확 풀린 가락국수를 먹고 있을 때였다. 그런 나에게 여 쥔장이 알려졌다.

"어르신 식대는 조금 전에 나간 아가씨가 대납했습니다."

아가씨를 만나보려고 포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아가씨는 저쯤에 걸어가고 있었다.

"아가씨 잠시만 나 좀 보고 가요. 식대 대납해 줘서 고맙긴 한데요. 왜? 무엇 때문에 식대를 대납해 주었나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얘기를 끝낸 아가씨는 총총히 사라졌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식대를 대납해 줬다는 그 아가씬 효녀였을 것이다.

우리 큰아들 나이가 쉰네 살이니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이 반백 년을 넘어섰다. 그러니 아버지 54호봉이다.

인생길 남은 여정이 그 얼마인지 신만이 아실 테지만 남은 인생 여정旅程도 아버지란 이름으로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 집사람 손잡고 티격태격 쌈도 하며 오르막길 올라갈 땐 서로 밀고 당기며 살아갈 것이다.

올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잡힌다. 오리 불고기가 먹어보고 싶어 집사람과 함께 오리고기 전문 식당 '밀밭'에 들렀다. 식당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다. 삼사십 대 젊은이들로 가득 찬 식당은 '부어라, 마셔라' 하며 북새통을 이루었다.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지만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식당엔 우리 내외처럼 나이 든 노인네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젊은이들 틈바구니에 끼어 오리 불고기를 곁들여 밥 한 그릇을 뚝딱하고 식당을 나섰다.

그때였다. 50에 귀 하나도 붙지 않은 나이 딱 쉰 살인 우리 막내아들쯤 되어 보이는 웬 젊은이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 황당해서 왜 우냐고 물어보았더니 젊은이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운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냐고 물어보았더니 돌아가신 지가 꼭 일 년 되었으며 저희 아버지도 어르신처럼 야위었다고 대답했다.

귀갓길에 나섰을 때 집사람이 "독자인 당신과 그 젊은이 서로 양아들 양아버지 삼았으면 좋았을 터인데요."라고 언질을 줬다. '그래요, 젊은이 우리 연이 닿아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집사람 말처럼 외로울 때 서로 위로하는 양부養父 양자養子 되어 살아가요.'

어느 가을날, 함께 걸은 길에서

김 지 윤

가을의 문턱에 선 어느 날, 우리는 강원도 대관령으로 향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였다. 짧은 일정 속에서 과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출발 전, 기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앞섰다.

버스 안은 고요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모두가 스스로를 단속하는 분위기였다. 함께 이동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게 느껴졌다.

대관령 양 떼목장에 도착하자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초원 위를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자유롭게 풀을 뜯는 양 떼들 앞에서 긴장은 조금씩 풀어졌다. 양에게 먹이를 주며 웃음이 오갔고, 간단한 게임과 자기소개가 이어지자 조심스러운 시선은 서서히 따뜻해졌다. 말과 수화, 손짓 등 소통의 방식은 달랐지만, 서로를 알고자 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전해졌다.

이어진 밧줄 코스 체험은 이번 여행의 전환점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곧 자연스럽게 손이 이어졌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손길,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생겨났다.

그 순간,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분은 의미를 잃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었다.

저녁 식사 후 열린 '화합의 장'에서는 서로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고백했다. 그 솔직함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식 개선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둘째 날, 우리는 강릉의 아르떼뮤지엄을 찾았다.

빛과 음악,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참가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교감했다. 따뜻한 차를 나누고, 즉석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서로에게 건네며 웃음을 나눴다.

그 순간만큼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같은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출발할 때의 침묵과는 달랐다. 아쉬움이 깃든 고요였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를 건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 있었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택이다.

장애는 단절이 아니다. 다름이다. 그리고 그 다름은 충분히 만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작은 캠프 하나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믿는다. 작은 경험이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모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을날 대관령에서 함께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 사회도 서로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함께'의 시작일 것이다.

미안하다 안 고맙다

김 지 현

저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겪은 일 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하교 후 놀이터에 갔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이미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이들 무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좋아하는 출렁다리를 잠시도 멈추지 않겠다는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쉬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승우야~이거 재밌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던 친구들도 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함께 출렁출렁 발을 굴러주었습니다. 함께 출렁이니 더 신이 났는지 아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놀이터에서 친구가 다가오면 멀찍이 도망을 가버리곤 했는데, 많이 성장한 지금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아들과 함께해 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창했던 초여름의 기분 좋은 바람과 포근한 햇살까지 더해져 가슴이 몽글몽글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한창 무르익을 때쯤, 아들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반 친구들이 놀이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출렁다리 위에서

발구르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 출렁다리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놀이터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잡기놀이를 하는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들은 집요하게 출렁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로온 친구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는 아들의 행동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눈치껏 비켜주지 않고 출렁다리 위에 떡 버티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그중 한 아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비켜~! 저리 가라고~"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소리를 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불씨가 지펴지면 무한반복을 해대는 특성이 나온 상태라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까지 질렀는데도 무시하는 아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아이는 아들을 거칠게 밀어버렸고, 아들은 뒤로 발라당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수지가 엄마인 저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그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애인 괴롭히지 마~~~~~~~~~아!"

"승우는 장애인이야!!!"

놀이터에 어색한 정적이 몇 초 흘렀습니다.

맙소사. 그 외침을 들은 저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버퍼링이 걸린 화면처럼 멈추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끼익 끼익 끼익 끼익~."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굴려대는 요란한 출렁다리의 쇳소리만이 놀이터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은 무안했는지 입술을 삐죽 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휘날리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마치 돈키호테처럼 미끄럼틀 위에 서 있던 수지가 저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씩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운데 하나도 고맙지 않은 이상한 이 상황. 일시정지된 뇌와 몸은 아무 리액션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장애인이라 부른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아직도 내가 우리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건가?

아니 그것과는 별개로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불쾌해. 왜지? 수지는 분명 우리 아들을 보호해 주려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일 텐데….

마치 멀뚱히 서 있다가 같은 팀이 패스해 준 공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어부지리로 골을 넣은 축구 선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머릿속에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일은 며칠 동안이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과 같은 반 친구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엄마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말이야~. 예를 들면 '뚱뚱한 친구 괴롭히지 마!' '키 작은 친구 괴롭히지 마!' '눈 작은 친구 괴롭히지 마!' 라고 하지 않잖아? 그건 당연히 기분 나쁠 것 같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내 아이는 눈이 동그랗고 귀엽지만 배가 많이 나왔고, 말투가 아기 같

고, 노래를 잘 불러. 그리고 자기가 잘 그린다고 생각하며 으스대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가끔 뜻대로 안 되면 드러누워 소리 지르는 고약한 똥고집이 있어. 그리고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지. 자폐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특성 중 하나야. 내 아이를 장애인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자 반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의 자폐적 특성에 대해서만 설명해 줬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장애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담임선생님께 아들이 집에서 그리는 그림, 따로 배우고 있는 드럼 연주영상 등을 클래스팅으로 보내드렸고, 친구들에게도 아들이 보내고 싶은 것은 메시지로 보낼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선생님은 아들의 그림이나 연주영상들을 가끔씩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셨고, 아이들도 아들의 다른 특성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종종 대화를 시도하고, 나아가 학급 장기자랑 때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친구들이 아들을 도와 함께 신청을 해주었으며 떼창까지 불러주는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연락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들에게 대신해 주는 것으로 표현했던 도움들이 이제는 시범을 보여주며 스스로 할 수 있게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방법으로 바뀌는 등 학급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맞는 점만 찾으며 잘 맞는다 좋아하지만, 권태기가 찾아오면 안 맞는 부분을 찾으며 우리는 안 맞는 것 같

다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같은 사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계기로 엄마인 내가 먼저 우리 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마음먹으니 단점이라 여겼던 특성들이 장점으로 바뀌는 반전도 생겼습니다.

같은 길로만 가려는 강박적 행동은 길을 잘 외우는 장점으로 발전되었고, 불안이 높아 변화를 힘들어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특성은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주면 알아서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일기 쓰기, 자기 전에 양치하고 책 읽기 등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챙기는 아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곳에서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이 살지만 모두 같지 않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다르기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를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무수한 특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바라봐준다면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는 단어도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길 꿈꾸며 우리 아들의 특성을 다양성으로 발전시키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들을 향한 꿈을 키워 보려고 합니다.

장애는 내 아이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 중 한 단어일 뿐이니까요.

잡채를 빼기로 한 설날

김 현 희

설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명절 이야기를 꺼낸다.

만두를 빚을지, 가래떡을 뽑을지, 아니면 그냥 사다 먹을지. 해마다 비슷한 말들이 오가지만, 그 선택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별생각 없이 내가 먼저 물었다.

"떡 하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셔서 떡은 시어머니가 하신다고 했다. 그다음에 효숙 씨가 말했다. 자기는 떡을 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사다 먹는다고 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다. 효숙 씨는 잡채를 싫어한단다. 식구 중에 잡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잡채를 하신다고. 그래서 효숙 씨가 어느 해에 "어머니 올해는 잡채를 빼도 될 것 같은데 뺄까요?" 그해 명절 음식에는 잡채를 안 했는데 아무도 섭섭해하지 않았다고.

효숙 씨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제사 내가 없애고 가야지. 네가 없애려면 또 힘들지."

그 말은 무언가를 그만두겠다는 말이라기보다, 며느리를 덜 힘들게 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요즘은 제사도 줄고, 명절 음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잘 먹지 않고, 어른들도 습관처럼 음식을 대하게 되었다고.

서로의 설을 한 번씩 들여다본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매년 명절이 끝나갈 즈음이면 남은 음식을 나누는 일로 머리가 아팠다.

우리 시어머니는 오십 명 가까운 식구를 먹이던 큰 살림을 해 오신 분이었다. 며느리 넷이서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설날이 되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손님들 손에 봉지 봉지 음식을 담아 드렸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음식이 남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네 식구가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께는 늘 듬뿍듬뿍 싸드렸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우리 먹을 것도 남기고 싸드려라."

"예, 어머니."

대답은 공손하게 했지만, 음식을 싸는 양은 여전히 듬뿍이었다.

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싸 보내려 했던 것 같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좋아하셨다.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버님의 동생이고 조카들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먹이고, 많이 싸주는 일을 시아버지는 기꺼워하셨다.

그래서 나는 명절 음식 앞에만 서면 늘 머리가 아팠다. 무엇을 더해야 할지보다, 어디까지면 충분한지를 가늠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자라온 집의 명절이 떠올랐다. 친정은 명절 음식도 평일처럼 두세 끼 먹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양만 하는 집이었다. 친정어머니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종류를 늘리는 분이셨다. 평소에 먹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음식을 하며 명절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상은 늘 풍성해 보였다.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효숙 씨의 그 말을 떠올리며 나는 생각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은 이유를. 명절이란 무엇을 더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조심스럽게 묻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 같았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 줄이는 것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올해 설 상차림에는 잡채가 없을지도 모른다. 떡국도 많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남는 음식이 줄고, 정리할 일이 줄고, 말없이 고마워할 일이 하나쯤 늘어날 것이다.

당연한 길

김 효 현

우리 집 아파트 1층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정면에는 계단이 있고, 오른편에는 경사로가 있다. 같은 출입구로 이어지지만, 사람들은 대개 계단으로 다닌다. 경사로는 조금 돌아가야 하고, 눈에 덜 띄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집 반려견 우티에게는 이 두 길이 아주 분명하다. 누구와 나가느냐에 따라, 가야 할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티는 나와 산책을 나갈 때면 늘 앞서 달린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꼬리가 흔들리고 있다. 목줄을 집어 들기만 해도 발걸음이 바빠진다. 현관문이 열리면 꼬리를 크게 흔들며 복도를 가로지른다. 발톱이 바닥에 닿으며 또각또각 가벼운 소리를 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우티에게는 꽤 긴 시간처럼 보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뛰어 들어가고, 1층 버튼을 누르는 내 손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1층에 도착해 출입구 쪽으로 나가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튼다. 경사로 쪽이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 경사로 초입의 낮은 턱을 넘을 때 휠체어 바퀴 아래로 둔탁한 진동이 짧게 전해진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으로 작은 떨림이 전해진다.

그래, 맞다. 나는 이쪽이다.

그 선택에는 망설임이 없다. 애써 배려하는 기색도 없다. 그저 자연스럽다. 마치 우티에게는 내가 경사로로 가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처럼.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아파트 화단과 작은 산책길이 이어진다. 우티는 잠깐 멈춰 풀 냄새를 맡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그러다 내가 뒤처지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본다. '잘 오고 있지?' 하는 표정이다. 나는 그 시선을 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난다.

그런데 아들과 우티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장면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티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계단 앞으로 향한다. 경사로 쪽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아들과 나갈 때는 계단이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빠른 길이 가능한 날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다. 누가 가르친 적은 없다. 엄마와 나갈 때는 경사로로 가야 한다고 알려준 적도 없다. 그런데도 우티는 안다. 나와 갈 때의 길, 아들과 갈 때의 길을.

가끔은 일부러 뒤늦게 따라 나가 본다. 아들과 함께 계단 앞에 서 있던 우티는 나를 보자 잠깐 멈춘다. 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눈이 내 쪽으로 또렷하게 향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방향을 바꾼다. 경사로로.

아, 엄마도 왔네. 그럼 이쪽.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나는 웃다가도 마음이 조용히 젖는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녀석에게 나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른쪽 길로 산책을 가는 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티는 장애를 모른다. 휠체어라는 개념도 모른다. 접근성이나 이동권 같은 말은 더더욱 모른다. 하지만 우티는 안다. 내가 어디에서 멈추지 않는지, 어느 쪽이 나의 길인지.

그건 아마 오래 함께 걸어온 시간 때문일 것이다. 같이 나가고, 같이 멈추고, 같이 돌아선 날들의 기억. 그 반복 속에서 우티는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다.

엄마와 갈 때의 길은 경사로라는 것. 설명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이해가 아니라 감각으로, 그저 당연함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인식개선이라는 말은 참 크고 무겁다. 교육과 제도, 권리 같은 말들이 따라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우티를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든다. 이해라는 것은 누군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티에게 경사로는 배려의 시설이 아니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그저 엄마와 가는 길이다. 특별하지도 않고, 설명도 필요 없는 길. 그저 당연한 길.

나는 그 태도가 좋다. 애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그대로 두는 태도. 우리 사회가 장애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은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다. 경사로가 대단한 배려처럼 여겨지기보다 계단 옆에 있어야 할 구조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누군가의 이동 방식이 낯선 예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일상이 되는 사회.

우티는 오늘도 나와 산책을 나간다.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간다. 바퀴 아래로 이어지는 낮은 울림과 옆에서 따라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나란히 겹친다. 아들과 갈 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표정은 똑같이 신나 있다. 길이 다를 뿐, 산책은 같은 얼굴이다.

햇살을 받은 흰색 털이 은은하게 빛난다. 경사로 끝에서 우티가 한번 뒤를 돌아본다. 내가 따라오는 속도를 확인하는 눈빛이다. 나는 그 시선을 보며 안다. 우티에게 이 길은 언제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오늘도 우티는 경사로를 내려간다.

꼬리를 흔들며, 아주 당연한 선택을 하면서.

어디쯤 마중해야 할까

민 경 례

어떤 보물이 이보다 더 예쁘고 빛날까? 사랑하는 꿈나무 남매 둘. 애지중지 어르고 달래며 키운 내 꿀단지들이었다. 행여 감기라도 들면 어쩌나. 고이고이 감싸고 살았다. 늦둥이 핑계 삼아 과잉보호한다는 걸 알면서도 유난을 떨었다.

"그래, 요것들만 커 봐라."

아이들은 잘 자랐다.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갔다. 아직 운동화 끈도 엄마가 묶어줘야 하는데 또래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서둘렀다. 노란 모자. 유치원 베레모를 쓴 아들은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운동화에 흙이라도 묻을까, 호호 불어가며 업어서 유치원에 보내고 동동 구르며 마중하곤 했다.

내 나이 서른다섯에 집을 짓고 네 식구가 살았다. 그래, 이만하면 삶의 여유가 뭔지 알 만한 때였다. 딸은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남매는 그때까지 부모 품에 잘 자라주었고 행복했다.

그러나 따뜻한 행복도 잠시였다. 아이들 아빠와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은 끝났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아빠에게 맡기고 6개월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손길이 끊어진 어린 아들에게 학교 문제가 생겼다. 결석하는 날이 많아졌다

고 딸을 만나 듣게 되었다. 한창 자라는 아들에게 학교 문제는 이혼보다 더 큰 마음 고생으로 밀려왔다.

서로의 약속을 떠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이려면 엄마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 준비 없이 남매를 데려왔다. 딸은 중학생이라 엄마를 생각하며 잘 견뎌주는데, 아들은 학교가 서울이라 혼자 다닐 수 없었다. 아침에는 내가 태워다 주고 돌아올 때는 아들이 길을 잘 몰라서 졸면서도 고양시가 종점인 좌석버스만 타고 오도록 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엄마를 잘 따랐다. 집이 멀다는 것 말고 우리 세 식구는 남부럽지 않았다. 나는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고 새벽 시장까지 봐야 해서 바쁘고 피곤하면서도 아들 등교는 꼭 시켰다.

"아들아! 공부는 때가 있단다."

나는 좋은 대학만 꿈꾸는 엄마였고, 늘 아들의 능력을 염려했다. 가정교사를 붙여보고, 학원 공부도 시켜보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것은 단순하게 입시생 엄마의 열정이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품어서 낳은 자식이기에 제대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남는 건 온통 후회뿐이다.

이 엄마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엄마로서 내 아들이 그립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은 엄마로서 아들을 다시 공부시킬 수만 있다면, 아들의 능력을 믿어 주고 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고 싶다. 내가 초인이 되어 옛날의 젊은 엄마로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사회성을 키우고 싶다.

늦었지만 자식들과 어떤 문제라도 상호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로 거듭나고 싶다. 아들이 내 곁을 떠난 지금 엘리트라는 생

고집 틀도 오래전에 깨버렸다. 엄마의 부덕이 저지른 불행이라 생각하며 긴긴 시간 뉘우치며 항상 기도할 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힘들다고 반항하던 네 속마음을 엄마가 깨닫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 너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학교를 스스로 선택했더라면, 나는 좋은 엄마로 기억에 남아 있을 텐데 말이다.'

대학 입시 문제로 생겨난 상처와 갈등이 이렇게 크고 길게 갈 줄 몰랐다. 그때 공부를 거부하고 책을 놓아버린 아들의 반항심은 당구장이었다. 수능이란 문턱을 넘기 싫다고 투정이 점점 격해졌다. 그러는 동안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갔으며, 다툼은 결국 이별의 아픔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힘들게 키운 내 꿈나무 아들은 여자 친구에게 떠나고 말았다. 아들이 나를 떠난 후 나는 희귀난치성이란 병명으로 쓰러지고 일급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자식 사랑은 그저 달콤하다고 누가 말했을까. 치마폭에 귀엽기만 하던 내 아들은 그렇게 내 앞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자식에게 그토록 열정만 쏟고 커다란 희망만 꿈꾸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건강을 잃고 말았다.

이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마가 되던 날이었다. 지체 장애 일급이라는 긴 명칭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의 가슴 아픈 훈장으로, 군에서 의가사제대를 하고 돌아왔다.

4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정말 보고 싶었다. 엄마가 많이 잘못했다고, 흐느끼며 울어야 할 나는 그렇지 못했다. 가슴으론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끌어안고 싶었지만, 몸으론 부둥켜안을 수 없는 엄마가 되어 있었다.

척추 보조기에 묶인 엄마는 아들 앞에서 너무 서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하물며 말할 기력도 없었다. 과묵하기만 한 나는 아들하고 불편한 시간을 한 달 동안 보냈다. 그때는 아들의 진로 문제만 생각했던 엄마의 아픔은 오래오래 곁가지 치며 아프게 찔러댔다.

자연의 묘목도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굵은 뿌리가 부모 역할을 한다. 단단하고 험난한 땅속 통로는 부모 역할로서 굵은 뿌리를 뚫어가며 흙길을 내놓는다. 묘목의 잔뿌리들은 부드러운 흙 속을 어려움 없이 영양분을 흡수하며 건강하게 뻗어나갔다.

자식 사랑의 진리는 인간사회나 자연의 세계나 다르지 않은가 보다. 연약한 뿌리로 굳은 땅속 통로를 뻗어나가게 한다는 건 어린 아기에게 이유식 먹일 때 밥 먹이는 것 같은 위험함이라 했다.

사랑의 보살핌을 받은 대추나무의 은혜로운 선물은 대추를 주렁주렁 익어내는 것이 보답이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 과잉 열정을 쏟았던 나도 묘목을 키워낸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다. 무심한 시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묵묵히 흘러만 갔다.

"이십 년이란 세월이 빨리도 흘렀구나."

메마른 강가의 봄맞이 하는 날. 내 꿈나무 한 그루 오래전에 내 가슴에 쉼터가 되어 버렸다. 열정이 많던 나도 이젠 외로운 고목일 뿐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소망은 아직 조심스럽게 봄을 기다리고 있다.

"요놈만 커 봐라."

엄마는 아들에게 그저 세상 살아갈 장래를 넓고 환하게 그리고 높이 열어 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최고라고, 그때는 그래야 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엄마였던가. 마음대로 커 주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는 교훈만 얻었다. 기다림을 배워버린 나는 오늘도 그 쉼터에 머물러 있다. 어디쯤 마중해야 할까? 베란다에 찾아온 달빛이 나에게 명절 기념으로 숙제 한 줄 선물해 줬다. 가슴으로 '참을 인ㅅ'을 압인처럼 눌러쓰면서 과묵한 속내를 풀어놓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풍문은 내로남불 된다는 니체의 인생 수업이 말해주는 아픈 일침이다. 나의 일생을 도둑질해 간 꿈나무 아들은 안 보이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일 년에 세 번 만나는 고부간이다. 아들은 아직 오지 않고 며느리와 쌍둥이 손녀딸만 찾아오는 게 딱 15년째이다. 일 년 삼백육십오일 중 3일을 뺀 나머지 날은 마냥 기다림이다. 흐렸다 개었다 하는 내 마음이 그대로 나의 일기장이 된다. 심장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나는 그 밤이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가. 운동화 끈 하나 묶지 못하던 귀여운 내 아들이 벌써 오십을 바라보고 있다니, 이런저런 생각에 취해 있는 동안 날이 밝았다.

명절이 다가오고 자식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니 김치도 담그고 떡도 하고, 고기도 준비하려면 오늘쯤 시장에 가야 할 것 같아서 하나로 마트에 갔다. 이건 손녀가 잘 먹고, 저것은 내 아들이 잘 먹으니까 포장해서 보낼 것,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합계 금액이 나를 놀라게 했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그 순간 머리가 복잡했다.

어느 것 하나 내려놓을 게 없어서 나름 머리를 썼다. 적립이 가능한 것은 내 카드로 하고 할인되는 건 현금을 냈다. 어쨌든 마트에서 시장을 봤다. 그리고 명절날 아침이 밝았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이것저것 가리키며 훈시만 하는 음식들이다. 음식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길게 가야 한 가지가 겨우 완성되는 날이다.

오전 열한 시에 며느리와 쌍둥이 손녀딸이 왔다. 할머니와 손녀딸인데 친밀감 없는 사이에 그 어색함은 데면데면하기만 했다.

"어머니! 애들 아빠가 좀 아파요. 외과 수술 두 번 하고 본인이 아픔을 느끼나 봐요."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걸 그랬다고 후회 많이 해요."

애타도록 기다려도 푸른 새순 트지 않는 강가의 고목 나무 한 그루가 문득 떠올랐다. 이제라도 이 엄마 마음의 쉼터에 기다리던 봄이 오고 마침내 싹이 트려나 보다. 며느리가 들려준 한마디에 내 가슴에는 뜨거운 무엇이 울컥 차오르고,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아들아, 이 엄마의 사랑을 어디쯤 마중해야 할까.'

나에 사랑의 마중물이 너무 낯설다.

처량한 환자의 신세

박 철 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생활 주변의 공립병원인 H 의료원을 방문하였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문진에서 입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팡이를 이용 독립보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거절하였다. 이때 나의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공립병원은 보행의 완전 장애인만 입원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자는 통원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던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평등 규정을 위반한 차별일 것이다.

둘째로 개인병원은 환자의 수가 직접적인 자신의 수입이다. 그에 반하여 공립병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수입과 큰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많으면 의사만 어려워짐에 환자를 기피하는 행동 아닐까? 정답은 행동을 유발한 그들만 알 것이다.

마비증세로 행동이 느리기에 빨리 나가지 못하자, 자신의 의자에 앉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의사의 얼굴에 로션을 바르듯 던져버리며 진료실의 문을 어깨로 밀면서 나왔다.

그다음 날부터 인근에 소재한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가능성을 물색하였다. 노력 끝에 H 병원과 S 의원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한 달 이상 입원을 못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두 곳에 입원과 퇴원

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에 식상함이 일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단순 질환자의 장기 입원을 차단 방법으로 환자의 식비 지급률을 삭감하여 지급에 따라 발생한 반응이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 채무의 부담감은 인정한다. 그리고 병원은 적자가 누적되면 안 된다. 정책적 해결이 힘들다 하여 입원 삼 개월 지난 환자가 내쫓겨야 되는가? 종합병원 근처에서 보행 못 하는 환자를 실은 침대가 새로운 병원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환자의 의견을 무시됨은 물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쫓기는 현실이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다. 이 공통의 명제 앞에서 나 또는 가족들이 오늘 또는 내일에 경험하게 될 일이다.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몸이 아프고 불편한 환자를 무시함에 마음이 아프다.

수인선의 추억

박 홍 원

나의 고향은 협궤 증기 열차가 다니던 철길 가까이에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그 철길을 따라 학교에 다녔다.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이었다.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동네 한가운데를 꽥 기적을 울리며 다녔다. 덜컹거리며 다가오는 기차를 따라 뛰어가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지금은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KTX가 익숙한 세상이지만, 그때의 기차는 언덕진 철길을 가게 되면 헐떡이며 힘겹게 움직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지나가는 기차의 손잡이를 붙잡고 슬쩍 올라탈 수 있을 만큼 느린 기차였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험하지만, 모험 같은 도전이었다.

겨울이 몹시 추웠던 날이면 학교 가는 길이 멀어서 한 정거장을 차표 없이 몰래 기차에 무임승차 하기도 했다. 차장의 눈을 피해 이 칸 저 칸 옮겨 다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역 반대편 논두렁으로 내려 부리나케 도망치기도 했다. 어쩌다 붙잡히기라도 하면 학교에 알리겠다는 으름장에 두 손을 모아 용서를 빌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가슴을 졸였다. 그러다 오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전날의 일을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늘어놓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섞인 추억이다.

수인선은 수원에서 인천까지 마을의 삶을 잇는 길이었다. 마을마다 재배한 농산물을,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팔러 다녔다. 아낙네들은 머리에 이고 지고 시장에 팔러 다니는 생명줄 같은 교통수단이었다.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받아 함지박에 이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는 생선 장수도 있었다. 우리 집도 키다리 아줌마라 불리던 생선 장수에게서 갈치며 밴댕이를 사 먹었다. 군자역 근처에는 염전이 있었다. 그 소금 또한 철길을 따라 온 동네로 공급되는 것도 기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봄이면 마을은 딸기 농사가 한창이었다. 밭에서 딴 딸기는 나무 상자에 담겨 인천 도매상으로 보내졌다. 어른들은 트럭으로 물건을 보내놓고 기차를 타고 경매에 참여했다. 나의 어머니도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참외와 오이, 수박을 가지고 팔러 다녀오셨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기차가 동네를 지날 때면, 인천에 다녀온 어른들이 물건을 담아갔던 빈 상자 묶음을 기차가 동네를 지나갈 때 기차에서 밖으로 떨어뜨렸다. 역전에서 들고 오기 무거워서 동네를 지날 때 던져 내렸다. 아이들은 자기 집 상자를 찾아 집으로 끌고 갔다. 혹시 부모님이 먹을거리나 새 고무신이라도 사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낑낑거리며 옮겼던 추억이 있다.

그 시절 우리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닳아진 신발 대신 새 신발을 신게 되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부족했지만, 작은 것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철길에 귀를 대고 기차가 다가오는 진동을 느끼곤 했다. 그 소리는 이제 아득한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울린다.

지금 고향은 아파트 숲으로 변했고, 철길에는 전철이 달린다. 고향의

모습은 사라졌다. 내가 기억하는 고향은 마음속에만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다. 건강했다면 산을 오르며 전국을 다녔을 것이다. 내 친구는 지금도 명산을 오르며 지도에 좌표를 찍고 있다. 나는 대신 도서관에 간다. 산 대신 책을 오르며, 한 권 한 권 속에 마음의 여행을 떠난다. 몸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글로 걷는다.

수술을 맡았던 교수는 말했다. 손상된 뇌신경은 되돌아오지 않지만, 재활을 하면 주변 신경이 고구마 줄기처럼 뻗어 그 역할을 돕는다고 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봉사자와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가며 살아간다.

수인선 주변이 잘리고 메워져 신도시가 되었듯, 나 또한 불편한 몸 위에 새로운 삶을 천천히 쌓아가고 싶다. 언젠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수인선의 기억이 남아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가는 것이 삶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걷는다. 꿈을 향해, 가슴으로 걸어간다. 조금은 언덕진 철길을 쉭쉭 수증기를 내뿜으며 힘겹게 올라가던 증기 열차처럼 나 또한 인생의 언덕길을 뒤뚱거리며 고난의 세월을 걸어가고 있다. 그 옛날 철길 옆에서 피어났던 꽃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복지관에 피어나는 사랑의 손길을 보며 힘을 내본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돕는 손길에 행복의 마음을 담으며 희망의 꿈을 꾼다.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성 호 진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977년 그날처럼 아름다운 봄은 없었다. 연옥을 갈아서 뿌려놓은 듯한, 아니 도자기에 바를 유액을 타 놓은 듯한 부드러운 빛이었다.

어렵사리 팔을 하늘로 뻗었고, 다리에 힘도 주었다. 담장 밑 개나리는 노란색이라 더욱 아름다웠고, 돌 복숭아꽃은 그 특유의 분홍색이어서 더욱 찬란했다. 또 모처럼 한 아름 가득 받은 봄 햇살은 부드럽기가 이를 데 없이 따스하게 나를 감싸 주었다.

늙은 소를 몰고 가는 이웃 농부들의 바쁜 걸음들이 활기차게 느껴졌다.

아마 그날의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평생 그 일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체력검사 시험에 대비하여 연습하는 날의 아침이었다. 체력검사는 가을에 했었는데… 체력검사를 대비한 연습을 매일 아침에 참가했다,

체력장 하러 가는 날 아침에 나는 기절하다시피 누워있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바쁘시던 어머님께서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어머니는 아버지

에게 연락했다. 들판에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신 아버지는 나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시고 불덩이 같다고 하시면서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가까운 의원으로 갔다.

왕진하러 갔던 의사가 돌아와서 나를 진찰하더니 단순한 감기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줬다. 의사는 이 약을 복용하면 곧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을 3일 동안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죽겠다고 판단을 하신 부모님은 부랴부랴 버스에 나를 태우고 안동 성소병원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은 뇌막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병은 나아도 후유증이 있어서 신체 일부를 못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고열로 기진맥진한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통곡하셨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응급실을 우리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을 볼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를 꼭 끌어안고 떨곤 하였다.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간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응급실에서는 조금만 차도가 있어도 일반 병실로 보냈고, 그렇게 안동 성소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집에 가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부모님께서는 나를 퇴원시키고 집에 있는데. 예천 모 의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병원을 찾아갔다. 주사 한 방에 그 시절에 10만 원 정도 했는데,

수십 차례를 맞아도 차도가 없자 부모님은 치료를 포기했다.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있으면서 말도 못 하고 눈만 껌벅이고 있는 나를 본 어머니는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어 봤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의식도 없는 듯한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엄마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껴안고 우셨다.

아프고 말을 못 하던 내가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신기하다며 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는지, 아버지도 형도 친구들도 다 알더라는 것이다. 이 소식이 학교에 전해져서 선생님께서도 찾아오셨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함께 울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린 아기처럼 걷기 연습을 시작했다. 누워 있어 다리 근육이 없는 터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걷는 연습을 했다.

걷는 연습을 한 덕분에 대문 밖을 나와 뒤뚱거리며 마을을 쏘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걷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아이도 있고 해서 슬펐지만, 참고 걸었다. 그때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그저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날의 사건이란 이것이다. 눈부신 봄날 봄은 다시 찾아왔다.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해서 기분 전환을 할 겸 해서 안동에 놀러 가기로 했다. 뒤뚱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다.

뒤뚱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설렘이 가득 찬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터덜거리며 다가온 안동행 버스에는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힘겹게 비집고 탔다. 그리고 안동역에 내려서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다. 배가 살짝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목도 마른 것 같아서 빵과 우유를 사 먹을 생각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주인아저씨가 나오더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병신 새끼가 재수 없게, 남의 장사 망치려고 들어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 발길질을 하여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쫓겨났다. 기가 막혔다.

몸이 불편하지만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말이다. 그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병신은 가게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했지만,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이번에는 식당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식당마다 돈을 구걸하러 온 줄 알고 혼을 내듯이 큰 소리로 쫓아냈다.

그러기를 몇 군데, 겨우 식당 한 곳에서 나를 받아 주어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40~50대로 보이는 건장한 사람이 대뜸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고는 식당 안에 있는 10여 명의 사람에게 '다람쥐 쳇바퀴 병신쇼'를 구경시켜 준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나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고 정신없이 잡아 돌렸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는 식당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주인아주머니께서 미안한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러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집에 도착한 나는 어머니를 붙들고 목이 터지라 엉엉 울었다.

이렇게 병신으로 살려 놓으려면 왜 살려 놓았냐고 아플 때 죽게 내버려 두지 그때처럼 서럽게 운 적은 없을 것이다.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시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철 없이 농약을 마시

고 말았다. 그때 어머니 가슴에 못 박은 것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후회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그 지긋지긋한 몇 달의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당한 것이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되어 60살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안동이라는 말과 노란 개나리꽃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식은땀이 나면서 긴장이 되곤 한다.

류시화 시인님은 그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꿈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다.

긴 방황을 끝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장애인본부에서 취업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였다. 그래서 장애인본부에 가서 취업지도자 교육을 1주일 동안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대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한번 다녀가라는 것이었다.

그곳의 도움으로 대구대학교 장애인 기술교육센터에서 목공예 교육을 1년간 받고 수료를 했다. 그리고 1989년, 철제 캐비닛 금고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고, 14만 원의 첫 월급을 받았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첫 월급이었다. 그 첫 월급으로 부모님의 빨간 내복을 사서 드렸다.

어머니는 기뻐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여기에 직장을 그만둔 사연을 추가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객지에 살던 바로 위의 형이 고향으로 돌아와 과수원을 시작했다. 초봄부터 매일 과수원에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사과 수확이 한창인 가을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변함없이 사과 과수원으로 가서 사과 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다른 사과나무로 가려고 사과 상자 옆을 지나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겁이 나서 얼른 도망을 가다가 다리가 그만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무참히 넘어졌다. 내가 자기 앞에 쿵 하고 넘어지니까, 더 놀란 뱀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쏜살같이 도망을 갔다. 일어나서 옷을 털면서 생각해 보니까, 뱀을 놀라게 해서 미안했다. "뱀아!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사과 농사를 짓던 형이 객지로 떠난 어느 날이었다. 경상남도 마산시가 고향인 또래 나이의 지현곤 씨에 대한 '30년 넘게 엎드려 그린 1급 장애 만화 세상 밖으로 날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와 그 후 『달달한 인생』이라는 그의 책을 읽게 되었다.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척추결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병을 앓게 되어, 하체의 뼈와 살이 말라붙어, 다시 말해서 피골이 상접한 아랫도리를 담요로 둘둘 감싸고 좁은 단칸방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동병상련의 마음일까.

나의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달을 보는 것입니다. 만월이었다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제게는 유일한 하루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목을 읽었을 때는 소리 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동생이 빌려다 준 만화책을 읽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빈 공책에 그 만화책을 베껴 그렸다. 하루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점을 찍고 선을 긋고 칠을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려나갔

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낙이 되었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꿈이 되었다. 1급 장애인인 그는 1991년 만화 작가로 데뷔 이후, 1993년 대전국제만화영상전에서 동상으로 입상한 이후 1994년 서울만화 전 금상, 1995년 국제서울만화 전 대상 등, 해마다 상을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을 많이 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이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두 평 반 외로운 골방에서 1급 장애를 딛고 만화를 그린 그가 뉴욕 아트케이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나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는 40년을 애벌레처럼 기었고, 또 고치 속의 번데기처럼 살다가 어느새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갯짓을 했다."라고 말이다.

문득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빠삐용」이 생각났다. 나비는 자유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한다.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다. 영화 「잠수종과 나비」가 떠올랐다. 1990년대 세계에서 으뜸가는 패션잡지 중 하나인 엘르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는 '감금 증후군'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엄청난 시련에 그도 나처럼 절망했고 세상을 원망도 했다. 더 나아가 삶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저 평범해 보였던 모든 사물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움직일 수 있는 한쪽 눈이었다. 눈을 깜박이는 횟수로 알파벳을 나타내는 길고도 힘겨운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다. 보비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내 눈 말고 나를 마비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상상력과 기억이다."라고 말이다. 그는 15개월에 걸쳐 무려 20만 번이나 눈을 깜박여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펴냈고, 안타깝게도 1997년 그 책이 출간된 후 열흘 뒤에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나는 반세기 동안 안동의 어느 식당에서 겪었던 '다람쥐 쳇바퀴 병신 쇼'를 시켜 준 그 주인공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 좀 더 진실하게 말하면 그가 잘못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알게 되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바닥난 영혼의 샘에서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것 같았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용서하고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래서일까, 장애인 시설 원장님께서 "요즘 호진 씨 얼굴이 활짝 핀 들꽃 같다."라고 말해 준다. 립 서비스lip service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 한 귀퉁이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신과 영혼이 투명한 삶을 살고 싶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내가 죽을 때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도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등록번호 10800번의 '시신기증등록증'을

보내왔다. 겉봉을 뜯고 끄집어내어 손에 들고 있으려니, 새삼 뭉클함이 느껴졌다. 조금 떨리는 기분이었지만, 편안해지는 마음이 아주 좋았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나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다.

나의 시신으로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60을 훌쩍 넘긴 지금에 와서 지현곤 씨나 장 도미니크 보비처럼 훌륭한 만화를 그리고 책을 낼 수는 없겠지만,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지금에 와서 뼈아픈 후회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몇 년째 쓰고 있는 시들을 모아서 영혼 가득하고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작고 소박한 시집 한 권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미래에 대한 흥분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다.

꼭 그렇게 되기를 겸손하게 소원한다. 그리고 강인함과 호기심 가득한 정신으로 힘차게 살 것을 다짐한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신 어머니를 크게 한 번 불러 본다.

"엄마!"

모두의 파랑새
모두의 은하수 모두가 거북이

유 지 연

생각 바꾸기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내가 내 일과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이걸 몇 번 고치고 곱씹어 보니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우리는 보물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되었든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표적으로 동화 파랑새를 떠올려보자. 행운과 행복을 위해 파랑새를 찾았지만, 정작 파랑새 진짜 행복은 집에 있었다. 대중매체에서 자주 언급하듯 평화로운 것이,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 행복에 필요한 것 그것은 돈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편한 수단'이다. 동화 파랑새의 내용처럼 어느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숨겨진 보물은 없다. 내 곁에 뿌려져 있는 원석을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 원석은 나의 평범한 아침 일과 속에 있다. 나는 알람으로 아침 9시 30분에 일어나서 전기장판 스위치를 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버튼식 멀티탭이라 딱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일종의 신호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의 신호. 그 다음

엔 이불을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다. 미세먼지가 좋음이나 아주 좋음이면, 창문을 열어둔다. 하늘이 맑은 날은 겨울이라 바람이 꽤나 차갑다는 점만 빼면 아침의 공기가 꽤나 상쾌하다고 느낀다. 이른 아침이면 들리는 짹짹거리는 새소리도 좋다. 솔직히 우리 집이 빌라촌이어서 아쉽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다는 소소한 바람이 있다. 너무 감성적이라는, 만화를 너무 봤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 그 뒤 몸을 쭉쭉 편 다음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잠을 깨도록 세수를 한다. 처음에는 찬물로 세수하고, 잠을 깨면 온수로 바꿔서 세수를 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충하면 2~3일만 지나도 트러블이 일어나서 속상하니까 자기관리 기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겨울이 되면서 로션과 스킨을 바르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어릴 땐 이런 생각 안 해도 되었는데….

기초화장을 끝내면 양말을 꺼낸다. 겨울에는 얇은 양말 한 켤레와 두꺼운 양말 한 켤레를 신는다.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편이라서 손발이 차다고 했다. 특히, 발은 내가 느낄 정도로 쉽게 차가워져서 신경 쓰일 때가 많다.

그 뒤에는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보통은 냉장고의 반찬이나 찌개에 찬밥, 가끔은 즉석밥을 데워먹는다. 입맛이 없으면 다이어트 쉐이크라도 마신다. 공복에 진짜 그거라도 안 먹으면 큰일난다. 몇 번 안 먹었다가 엄청 후회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런 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밥을 먹고 나서는 설거지를 하고 복지관에서 마실 음료를 탄다. 몇 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챙기지 않고 출발해서 아차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정신 차려야지….

사실 아침의 일과 중에서 '일어나는 것'과 '세수하는 것'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제일 고비다. 솔직히 지금은 겨울이라 늘 이불 속에 있고 싶고 안 그래도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인데 침대는 따뜻하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다. 설거지는 그릇은 많지 않지만 뒷정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세수와 기초화장도 최대한 꼼꼼히 관리해야 나에게 편하고 이득이다.

설거지를 끝내면, 전날에 정해둔 옷을 입고 양치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양말은 세수 후 미리 신어둔다).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후 복지관으로 출발한다. 내 걸음으로 복지관까지 30~40분 걸린다.

도착해서 일할 준비를 끝내고, 출근 문자를 보내면 1시 5분쯤이 된다. 거기서 스피치 수업 이후로 계속 조음기관 스트레칭을 하고, 퇴근 시간인 4시~6시까지 선생님들이 주신 일을 끝낸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이 막막하고, 고민이 됐다. 그때 도움을 받은 게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문화연계형 복지일자리다. 복지일자리는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목소리로 녹음을 하거나 보석십자수로 작품을 완성한다.

나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와 정말 잘한다." 하고 말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있고, 느리고 조금 삐뚤빼뚤할지언정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다. 20~30분 정도지만 걸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작은 행복

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내가 자랑스럽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부러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고 부럽다고 말해준 다음에야 그걸 깨달았고, 지금도 가끔씩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더니 내가 지금 그런 것 같다.

나는 지금의 일이 좋다. 그러니까 더 잘해서 더 오랫동안 이 일을-이 일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일을-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내가 왜 이 일을(목소리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이유) 좋아하게 되었는지 고백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몰랐던 '아무것도 모르는, 못하는 사람'이었을 때, 잘 한다고 칭찬받은 것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늘 학교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었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처음엔 글쓰기로 박수를 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 통원치료를 오갈 때마다 들었던, '두시탈출 컬투쇼'와 '김창렬의 올드스쿨'로 내가 라디오(라디오 방송)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책을 포함한 이야기를 읽고 쓰는 것.' 그리고 '들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아마 중3,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복지관에 왔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 있었다. '거북이 라디오' 처음에는 많이 헤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본을 쓰는 것도, 읽는 것도, 진행하는 것과 녹음하는 것, 부가적으로 동화구연을 하는 것까지.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라디오 활동을 하

면서 '너 목소리가 좋다'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그 생각이 굳어진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낭독봉사 공익광고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아주 잠깐이나마 웃음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행복한 좋은 일이다. 지금도 생각한다. 내 목표와 꿈을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만든 그 광고를 봐서 다행이라고. 내가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일을 하자. 그걸로 돈을 벌자.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나는 지금 복지일자리에서 복지관의 아나운서, MC로 일하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유재석과 장도연이다.

내 목표 중 하나는 정직원이 되는 거다. 복지일자리가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라고 할까? 1년 단기계약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되새긴 생각이 마음이 다시 흔들리게 되는 날이 있더라도, 늦지 않게 다시 이 마음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되새기는 사색에 잠겼다가 다시금 좋은 마음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조금씩 쓰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 보니 나는 처음에는 9시가 아니라 10시에 일어났고, 뭔가를 규칙적으로 해도 재미있지는 않았다. 초조했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복지일자리를 하지 않았던 10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을 때의 기억은 단편적이다. 그나마 대충 기억하는 건 도서관과 피씨방 카페와 서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때보다 더 제대로 메모해 놓지 않았던 나 자신의 습

관이다. 무엇을 읽었든지-그게 설령 만화책이라도-제대로 기록해 놨다면 도움이 되었을 거다. 그때의 감성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게 되니까 기록을 해 놓는 게 뭐든 좋은 것이다.

10시에 일어나 방을 치우고 씻고 밖으로 나갔다. 집 안에만 있는 건 뭔가 답답했다. 도서관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만화책 중에 보고 싶은 것들을 실컷 보고,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구경했다.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패러디 소설을 쓰기도 했다. 피씨방에 가면 좋아하는 게임을 했다. 카페(무인카페)에 가면 간식을 먹으면서 폰 게임을 하거나 가져간 책을 읽었다. 서점에 가면 그냥 구경만 했다. 서점은 서점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다 책의 냄새도 가끔은 교보문고까지 가서 맡는 디퓨져의 향도. 거의 주말에 조금씩 하던 것들을 주중에도 한 정도다. 솔직히 말하면 즐거웠다. 아주 매우 많이. 사람은 여유가 있다면 자기만의 공간을 채우고 싶어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하며, 뭐든 먹고 싶어하고, 먹은 만큼 움직이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래도 되나란 생각이. 분명 재미있고 즐겁지만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복지일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로 간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일로 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처음 합격문자를 받았을 때 진짜로 소리를 질렀다.

그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하자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새카만 곳을 그냥 무작정 방향도 모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른 채로 느리게 걷는 것에서 그나마 길은 보이고, 발밑과 눈앞의 것들은 보이는 밤길로 바뀌었다. 띄엄띄엄 이해가 잘 안 되서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길을 잘못 들어 돌아와야 할 때가 있어도, 표

지판이 생겼다. 이런 상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더 능숙해지고, 다른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발굴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떠오르는 건 그런 방법들이다. 이제 내 고민은 '어떤 걸 지속적으로 하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해야 지금의 내 일에 능숙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연관된 일을 찾을 수 있느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은 1년짜리 계약 복지일자리라도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지만 돈을 버는 일을. 지금 전쟁터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길 것이다. 안전한 곳에서 굶어죽을 걱정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하려던 생각(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초조한)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 바꾸기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다. 모두가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당장 나부터 느리지만 변화하지 않았던가? 내가 일하고 있는 구산동의 상징인 거북이처럼.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동화에 나오는 끈질긴 거북이, 포기하지 않은 거북이, 결국은 완주한 거북이.

우리는 거북이만큼 어쩌면 거북이보다도 더 느릴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들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구산동에 왜 거북이 언급이 많은지 몰랐다. 궁금증이 생긴 건 거북이 라디오의 유래였다. 왜 라디오 동아리, 모임의 이름이 '거북이 라디오'가 되었을까에 대한 작은 의문이었다. 그리고 의문을 해소하며 구산동이 일명 거북이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서야 이해

가 갔다. 도서관이나 주변에서 은근히 거북이의 언급이 많았던 이유를. 언젠가 한 번은 꼭 구산동 거북이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내가 거북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간단하다. 거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다. 사람과 맞먹을 정도로 100년은 산다고 책에서 읽었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서 장수의 상징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표본이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는 거북이를 단숨에 이길 수 있음에도 꾀를 부리다가 졌다. 나는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다. 나에게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건 둘째 문제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다르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토끼처럼 쉬고 싶은 순간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 쉬어도 된다. 솔직히 아예 쉬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기계마저도 어느 정도 사용 후에는 과열과 부하 방지를 위해서 전원을 꺼 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전원을 켜서 열심히 일한 후에는 전원을 끄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빨리 전원을 다시 켜는 일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반짝임'을 본 누군가가 그 반짝임을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썼으면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조금이나마 이어져 있다.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 주변을 조금씩 밝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빛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나는 혼자만 빛나는 건 싫다. 많든 적든 같이 빛나고 싶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빛나는 은하수가 되고 싶으니까. 혼자 빛나는

별보다 더 아름다운 은하수가 되고 싶으니까. 몇 등인지 내가 느린지 빠른지 셀 필요 없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도착하고 싶은 곳에 도착하자. 나한테도 파랑새가 원석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파랑새를 떠올려라. 떠올리지 못하겠다면 찾아보자. 혼자 찾지 못하겠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 글에 있는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나는 멈췄지만 삶은 달렸다

이 병 길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왜 그렇게 바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내가 바쁘다는 말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다. 빨리 걷는 사람, 많이 움직이는 사람,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하루는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숨 가쁘다. 병원 진료 일정, 봉사 일정, 협회 회의, 글을 쓰는 시간, 라디오에 보낼 사연을 다듬는 밤,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전화까지.

몸은 멈춰 있는데 삶은 멈추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몸이 멈춰 있기 때문에 삶은 더 치열하게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나는 강원 홍천에서 '휠체어 타는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처음 그 별명을 들었을 때, 나는 손사래를 쳤다.

"천사라니요. 저는 그냥 아픈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보다는 오랜 습관이 묻어 있었다.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 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 눈에 띄지 않으려는 태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 A형이라는 희귀질환을 안고 살았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남들은 멍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내겐 그 멍이 공포였다. 소아마비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고, 결국 나는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병원의 냄새로 시작된다. 소독약 냄새, 하얀 침대,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고 싶었지만, 나는 늘 '조심해야 하는 아이'였다.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피가 멈추지 않을까 봐.

"가만히 있어." "뛰면 안 돼." "다치면 큰일 나."

그 말들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세상과 분리하는 울타리였다. 나는 점점 조용해졌다. 눈에 띄지 않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법을 익혔다. 조심만 하며 살아간 시간은 결국 나를 고립시켰다.

청년이 되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했고, 나는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묻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운명을 탓한 날도 있었다. 그러나 원망이 내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해주지는 않았다.

휠체어를 처음 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다리의 자유뿐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진 듯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가 하루의 계획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

다.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마다 나는 작아졌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동안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은 무거웠다. 아침이 와도 반갑지 않았고,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쌀을 전달하러 갔던 날이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형님,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주시겠어요?"

솔직히 망설였다. 골목길은 울퉁불퉁했고, 경사도 만만치 않았다. 휠체어 바퀴가 턱에 걸려 몇 번이나 멈춰 섰다. 숨이 차올랐고, 팔에는 힘이 풀렸다.

"힘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쉽지 않았다. 몸은 고단했고, 마음은 복잡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문을 두드리자,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나왔다. 주름진 손, 오래된 실내화, 조심스러운 눈빛. 쌀 포대를 내려놓자 어르신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가 와줘서 오늘 하루가 참 밝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렸다. 아니, 어쩌면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어젖혔다. 내가 누군가에게 '밝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약보다 강했고, 어떤 위로보다 깊었다.

그날 이후 나는 속도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휠체어는 나를 느리게 만들었지만, 그 느림 덕분에 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말을 끝까지 듣고,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쳐 지나갈 인연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깊이 사는 것임을 나는 휠체어 위에서 배웠다.

기부와 봉사를 하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가난, 병, 외로움, 상실. 어떤 이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고, 어떤 이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야기들은 내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픔은 나누면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나는 대단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오래 아파본 사람일 뿐이다. 아픔이 길어지면 두 가지 길이 생긴다.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길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려 애썼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도움을 받으며 산다. 활동지원사의 손길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 어렵다. 누군가의 팔에 기대어 이동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옷을 입는다. 예전의 나는 그것이 부끄러웠다. '남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인간은 누구나 기대어 산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의 제도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노동에 우리는 모두 기대고 있다. 나는 단지 그 의존이 눈에 보일 뿐이다. 도움을 받는 법을 아는 것도, 도움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과정이다.

나는 가끔 창밖을 바라본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오래 지켜본다. 봄이 오면 작은 풀잎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초록이 짙어진다. 가을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세상을 덮는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도 제 시간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자연에게서 위로를 배웠다. 느려도 괜찮다고,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쉬어도 된다고.

'휠체어 타는 기부천사'라는 이름은 여전히 어색하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겪은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다. 병원의 침대 위에서 흘린 눈물도, 휠체어를 밀며 느낀 절망도,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울었던 순간도 모두 나를 만들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의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나는 그 의미를 '나눔'에서 찾았다. 오늘도 나는 전화를 건다. "요즘 어떠세요?" 그 짧은 안부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바쁜 사람이 되겠다.

휠체어 위의 삶은 불행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길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길.

나는 그 길 위에서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좋겠다.

"당신 덕분에 하루가 조금 밝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새로운 기다림(천국)

이 세 미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란 기쁘고도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아이들과 수다 떨며 노는 시간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이들과 친하게 놀았던 적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심했던 나. 밤마다 친구 한 명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시절이 엄마와 나의 사이를 멀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 병원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필요한 물과 약, 밥 등을 챙겼고 엄마는 항상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약이 없다는 비참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말기 암이라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것이 저희 모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보고 싶다. 동생이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며 아빠 동생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동생 나이는 중3이었고 아빠는 생계를 챙겨야 했기에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실 텐데 동생이라도 오지, 라고 속으로

속상해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도 아마 속으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게임이나 하고 통제할 엄마는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고 저도 눈물이 아른거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중졸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 보려고 애썼지만 저는 학교 다니기 싫다고 화내고 싸우고 우리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는 사는 게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엄마에게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수많은 개가 산으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잘 몰라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는데 저를 잠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 개는 마귀를 뜻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준비하는 게…." 나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마다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면 "○○님 잘 견디고 계시네요…."라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는 엄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걷는 것도 불가능해져 침대에서 대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치울 수 있을까? 대변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의사가 대소변이 잘 안 된다고 하니 장갑을 쓰고 대변을 파 버렸습니다. 저는 그

것을 본 후로 더럽다는 생각도 없이 엄마가 싼 대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닦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분에 한 번꼴로 시트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시트를 10개 쌓아 이불로 만들어 덮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그저 멍 때릴 때가 많습니다.

죽을 사줘도 몇 번 먹더니 가지고 놀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미웠는데 용서한다."라고 화해를 했습니다.

외할머니 오시기 하루 전날 엄마는 눈물을 보이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기가 흐려져서야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상태를 보고 화가 나서 간호사에게 "이 옷이 이게 뭐야…. 다시 못 입혀?"라고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간호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마지못해 옷을 입혔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96세이신데 엄마 이야기만 하면 호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춘자야~"라고 울고 눈물을 훔칩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나는 엄마에게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엄마와 하나님과 어떤 기도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딸의 병이 빨리 낫기를, 최소한 고졸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2년 후 전문대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딸이 늦게라도 학교에 간다는 걸 안다면 엄마의 죽음이 바뀌었을까요? 엄마의 눈물 기도가 내 인생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지는 날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는 죽는 순간에도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놀았는데…. 언제가 만날 엄마 다시 만나면 "엄마 속 썩여서 미안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AI와 함께 쓰는 경로당 일기

이 종 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정직하다. 남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시간, 나는 습관처럼 낡은 점퍼를 걸치고 경로당으로 향한다. 기타를 메고 경로당 비밀번호 '9988'을 누른다. 이곳을 드나드는 분들이 99세까지 기운 펄펄하게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번호다. 이 공간은 단순히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전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을 유일한 안식처다.

경로당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공기가 있다. 어제 어르신들이 드시고 남은 숭늉의 구수한 향, 낡은 장판에서 배어 나오는 세월의 흔적, 그리고 정적 속에서 웅웅거리는 정수기의 낮은 기계음이다. 나는 불을 켜기 전, 어스름한 거실에 서서 신발장을 바라본다. 뒤축이 잔뜩 눌린 고무신과 흙이 묻은 채 나란히 놓인 운동화들. 그 신발의 주인들이 오늘 점심엔 무엇을 드실지, 기력은 어떠실지 가늠해 보는 것이 나의 하루 시작이다.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 "살림은 규모 있게 하는 게 제일이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어린 시절엔 그저 물자를 아껴 쓰라는 뜻으로만 알았으나, 지난 4년간 경로당의 살림을 책임지며 그 속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나에게 살림이란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행위가 아

니다.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닦고, 흩어진 기운을 모아 다시 살려내는 역동적인 '일'인 것이다.

총무로서 보낸 4년은 그 '살림'이라는 동사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었다. 쌀을 씻고, 시든 배추 겉잎을 떼어내고, 어르신들의 대화 속에서 행여 마음 상한 분은 없는지 살피는 일. 화려하지 않지만 삶을 떠받치는 근본 같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이 숭고한 보람 뒤편에는 늘 나를 괴롭히는 '살이'의 고단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돋보기 너머의 사투, 잔액 320원의 눈물

살림이 '살리는 일'이라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록'의 고통이 따른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기에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온종일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영수증 챙기는 일을 깜빡하기 일쑤다.

밤 깊은 시간, 모두가 돌아간 거실에 홀로 앉아 형광등 아래 장부를 펼친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흐릿해진 영수증 글씨를 해독하다 보면 눈시울이 시큰거린다. "분명히 두부 한 모와 콩나물을 샀는데, 영수증은 어디로 갔을까?" 주머니를 뒤지고 쓰레기통 옆 종이 조각까지 펼쳐보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장부의 숫자와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을 때다. 단돈 320원. 누군가에게는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푼돈이지만, 나에게는 4년 총무 인생의 정직함을 시험하는 잣대와 같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기억은 안갯속을 헤매고 숫자는 자꾸만 눈앞에서 춤을 춘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320원을 내 지갑에서

조용히 꺼내 공금함에 채워 넣으며 남몰래 한숨을 내뱉는다. 정성으로 시작한 살림이 숫자라는 차가운 벽에 가로막혀 짜증과 자괴감으로 변하는 순간, 이 팍팍한 '살이'의 무게를 누가 알아줄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위약금의 상처와 살림의 인내

살림의 고단함은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찾아왔다. 최근 경로당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통신비를 줄여보고자 통신 회사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 계약 해지로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에 큰 이득이 되는 결정이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어르신들 국거리에 고기 한 점 더 올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 못한 화살로 돌아왔다. 정기 감사 날, 감사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총무님, 멀쩡한 인터넷을 왜 바꿔서 생돈을 날립니까? 이건 명백한 행정 미숙 아닙니까!" 차분히 설명하려 했으나 감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로당 돈을 제 돈처럼 아껴야지. 이렇게 뭉칫돈이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소?"

주변 어르신들의 따가운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결국 경로당에 이익이 되는 '남는 장사'였음에도, 감사는 당장의 지출이라는 단편적인 숫자만 물고 늘어졌다. 그날 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경로당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국 조용히 개인 돈으로 위약금을 메웠다. "제 불찰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로 상황을 매듭지었다. 억울한 비난마저 묵묵히 품어 안는 것, 그것 또한 총무가 짊어져야 할 '살림'의 무게임을 배웠다. 인공지능은 비용의 득실은 계산해 줄 수 있어도, 사람 사이의 갈등을 가라앉히는 이런 '참아냄'의 미학

은 결코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낯선 비서, AI가 가져온 살림의 혁명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나는 '인공지능AI'이라는 낯선 이름을 만났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이 해도 안 맞는 장부를 기계 덩어리가 뭘 안다고 돕나." 하지만 손자뻘 청년의 도움으로 AI를 비서 삼아 업무를 시작하면서 나의 의구심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가장 먼저 나를 괴롭히던 '숫자의 늪'에서 탈출구가 보였다. 영수증을 찍어 AI에게 건네면 단 몇 초 만에 항목별로 분류해 냈다. 계산 착오도, 누락도 없었다. 밤새도록 돋보기를 쓰고 씨름하던 320원의 사투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해결된 것이다.

장보기는 더 놀라웠다. "15인분, 예산 5만 원, 남은 두부 활용"이라는 조건만 주면 AI는 영양 균형이 완벽한 식단과 정확한 장바구니 목록을 뽑아냈다. 덕분에 식재료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토록 저렴하면서도 풍성한 식단이 가능한 것은 사실 AI의 계산 뒤에 숨은 따뜻한 손길들 덕분이다. 시에서 보내주는 쌀, 아파트 삼동회에서 정성껏 담가준 김장김치, 그리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식단 속에 녹아 있다. 기술이 아껴준 비용은 결국 이웃의 정성이 모인 결과이기에, 우리 또한 봉사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결국 사람이 마침표를 찍는다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온 뒤, 경로당의 풍경은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AI가 아껴준 시간은 나에게 '여유'라는 선물로 돌아왔다. 그 여유

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자식 자랑에 신이 나신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맞장구를 쳐드리는 '진짜 살림'의 시간이었다. AI 덕분에 매일 한두 시간의 생명을 덤으로 얻은 셈이다. 그 시간 동안 경로당에는 더 깊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차갑게 식어 있던 구석진 자리까지 온기가 스며들었다.

물론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 인공지능은 가장 효율적인 식재료 양을 계산해 줄 수는 있지만, 오늘따라 입맛이 없으신 김 노인님의 국그릇에 고기 한 점을 슬쩍 더 얹어주는 그 '눈치'와 '정'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위약금 사건 때처럼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허허 웃으며 제 주머니를 터는 그 '바보 같은 희생'의 가치를 기계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효율로 따지면 '마이너스'인 행위들이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AI를 쓰면서 오히려 더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인공지능은 나의 자리를 뺏으러 온 침입자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람다운 총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다. 기술은 살림의 '모양'을 예쁘고 규모 있게 다듬어 주지만, 그 살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투박한 손과 따뜻한 마음이다.

오늘도 나는 AI 비서가 정리해 준 장부를 기분 좋게 닫는다. 예전 같으면 숫자와 씨름하며 진이 다 빠졌을 시간이지만, 지금의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한다. AI가 추천해 준 영양 식단에, 나의 정성이라는 마지막 양념을 한 꼬집 보태기 위해서다.

살림은 소리 없이 계속된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라지만, 사람을 살리고 하루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결국 사람의 체온에서

나온다. 살림은 기계가 도울 수는 있어도 결코 대신할 수는 없기에, 나는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경로당의 문을 열 것이다.

이제 장부를 덮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기타를 고쳐 멘다. AI가 정교하게 계산해 낸 팽팽한 숫자들 사이로, 나는 나의 투박한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담긴 선율을 채워 넣을 생각이다. 내일 새벽, 9988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설 그곳에는 영리한 디지털 비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 가슴에는 어르신들의 웃음꽃을 피워낼 낡은 기타와 4년을 지켜온 뜨거운 살림의 마음이 여전히 흐르고 있을 테니까. 차가운 숫자로 시작된 새벽이 누군가의 생기를 살려내는 따뜻한 노래로 완성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비울수록 풍요로워지는 삶, 여백

이 채 은

#숨 쉴 공간

나무를 심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폭 삼십 센티에 길이 삼 미터의 공간이 있다.

그곳에 오일장에서 사 온 앵두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블루베리 나무, 자두나무를 심었다.

마당 안에 빼곡히 들어선 나무를 보며 뿌듯해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엄마! 나무들이 너무 답답해 보여."

여러 우려 깊은 말들에도 굳건히 마당에 난 나무를 심었다.

오랜 결핍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할까. 국민학교 때 놀러 갔던 친구 집 마당에서 본 풍성한 나무들을 부러워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에도 과일나무를 심자고 투정을 부리며 졸라댔다,

온통 시멘트 바닥인 우리 집 마당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나무를 파시는 아저씨가 농장에 심을 거냐고 물으셨다. 집의 작은 텃밭에 심을 거라고 말을 했다.

마당이 커서 부럽다고 말하셨다. 나무들끼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심

으라는 말과 물을 충분히 주면 나무는 잘 자랄 거라고 했다. 나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들의 성장 속도는 서로 달랐다. 앵두나무는 푸른 잎을 한 움큼 피우다가 이내 서서히 시들어갔고, 블루베리 나무는 잎조차 피우지 못하고 허기진 생을 마감했다. 자두나무는 한두 잎을 피우더니 서럽고 차갑게 말라갔다.

반면 복숭아 나무는 거대한 가지를 양쪽으로 뻗으며 생기 있는 삶을 살아냈다. 대추나무는 꿀벌들을 불러모았고 왕방울만 한 대추도 토해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두 그루의 나무라도 살아있어서 위안은 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다. 빼곡히 모여 심은 공간. 양분을 나눌 여백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무의 생은 멈추었다.

나무들이 답답해 보인다는 아이의 말에도 심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도 무시한 채 오로지 어린 시절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 고여 있었다.

나무들의 답답함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 움큼 삼켰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숨 쉴 공간을 두어야 하건만. 욕심에 욕망에 빼곡히 쌓아놓아 숨 쉬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채우는 것만이 능사가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 마당에서 잠시 머물다 간 나무에게서 여백의 삶을 배운다.

엄마에게 하려고 했던,
그러나 끝내 하지 못한 거짓말

조 재 훈

나는 엄마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어떤 거짓말이었냐 하면은 이렇다.

「엄마가 눈을 감았다 뜨면 엄마 바로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날 보게 될 거야」

물론 정확하게 이런 말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는다면 맨날 울지 마시고, 항상 그래왔듯이 엄마의 그 예쁜 얼굴로 호탕하게 웃으시고 나 때문에 못하신 것들도 다 하시면서,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다만 엄마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다간 엄마도 나도 울 것 같아서 직접 이야기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글로 전하려 했었다. 내가 쓴 이야기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내 상상이 설득력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다수가 공감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믿음과도 같은 현실감을 부여하기에 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사실 그 자체였다는 식으로 말을 전달해도 훨씬 그럴듯하게 될 것 같았다. 이야기는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고, 어떤 이야기는 현실보다도 더 강렬한 믿음을 전해주니 나는 그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다.

물론 죽음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안다. 게다가 가족들

입장에서 내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특히나 휠체어를 탄 이후로도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로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기에 늘 고민하는 주제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이라도 해야만 했다. 내가 평생 휠체어와 함께할 운명인 듯하니 아무래도 건강관리가 쉽지 않고, 실제로 패혈증 등 여러 요인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봤으니 아무래도 내가 엄마보다 먼저 가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얼굴을 봐도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며 못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길 말조차 전할 수 없게 된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그렇기에 죽음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며 살아간다는 측면이 강했다. 위험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족들 덕분에 이 고난들을 잘 넘겨왔고, 아울러 나는 평소 세계 각국의 신화와 종교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에 죽음이란 주제가 마냥 두렵기만 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호기심과 겹쳐서 흥미롭고 신비한 영역으로 보였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닿을 수조차 없는 우주와 그 너머에 대해 신기해하다가, 가끔은 그 압도적인 크기에 제압당하면서도 결코 그 상상력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려 했던 거짓말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내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면 알 것'이다. 즉,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확신을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을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려던 것에 있다. 걷지 못하던 아들이 두 발로 걸으며 이승에서 못 이룬 꿈을 펼치고 있다면?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장차 나와 내 아들, 종국에는 우리 가

족이 가게 될 그곳이 내 이야기와 같다면, 내가 먼저 가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더라도 위안을 삼을 만한 단단한 진실이 될 것이니 말이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 평소의 생각대로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면 알겠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죽는다면, 엄마는 과연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내실까? 큰 충격에 빠져서 그 밝디밝으시던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다.

실제로 자식을 먼저 보낸 다른 엄마들인 몇몇 동네 할머니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평소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쩔쩔맬 정도로 기가 센 분들이 자식을 먼저 앞세우자 그 충격에 몇 달, 혹은 몇 년이나 우울해하시며 집에만 계시거나, 내가 오래 살아서 자식을 보냈다며 당신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보며 덜컥 걱정이 들었다. 엄마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품으시면서, '어떤 날은 내 아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하며 위안을 얻다가도, 또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아들과 영영 못 보는 것일까' 하며 비통한 마음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엄마가 남겨진 사람이 된다면, 나는 먼저 가서 자유롭게 걷고 뛰며 마음껏 꿈을 펼치는 세상에서 엄마가 오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 엄마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전하고 싶었다. 나 때문에 못 가셨던 몽골 여행과 등산도 가시고, 늘 전화로 연락만 하던 초등학교 동창분들의 얼굴도 보시고, 형제자매들과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평소에 자주 못 만났던 회포도 푸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엄마는 나보다 먼저, 정말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말 한 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가족 곁을 떠나셨다. 엄마 없는 세상이라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너무나도 일찍

알게 되었다. 알게 되더라도 최소한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셔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수를 누리고 가셨다' 정도의 나이가 되시면 그때서야 엄마 없는 세상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엄마가 없는 하늘 아래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 단 하나도 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이별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나는 거짓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던 평소의 생각으로 인해 어느 날은 위안을, 어느 날은 슬픔을 느낀다. 당장 종교에 귀의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신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일 것이다. 애초에 내가 종교에 귀의한다고 곧바로 믿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간절하게 바라는 것뿐이다. 내가 하려 했던 거짓말이 실은 내가 하려 했던 참말이 되기를. 그리고 먼저 가신 엄마를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순간을 꿈꾸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이야기를 상상하고 글로 쓰며 내 이야기가 사실이거나 사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도 좋다. 그곳이 신이 계신 천국이든, 윤회하여 쳇바퀴 돌듯 반복하여 사는 고통스러운 삶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다. 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좋으니 엄마를 다시 만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엄마를 만난 뒤에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던, 든든한 아들 손을 잡고 시장 곳곳을 걸어다니고 싶다는 그 사소하고도 절절한 꿈을 이루고 싶다.

관점의 차이

한 미 숙

'ㅈ' 씨는 5학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고향은 경기도 부천의 한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릴 적 자라온 이야기를 물을라치면 곧 굳은 표정이 되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말하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내가 8살 때까지는 온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언니와 오빠만 데리고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집엔 나와 엄마만 남았고, 엄마는 생선 장사를 했어요. 19살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옆집에는 친한 언니가 아저씨와 함께 아기를 키우며 살았어요. 아기가 예뻐 난 그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지요.

어느 날 그 언니는 아저씨와 아기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갔고 아저씨는 여기저기로 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아기를 저한테 맡기곤 했지요. 처음엔 아침에 나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곤 하더니 점점 하루가 지나도록 안 돌아오고 어떨 땐 이틀 사흘씩 안 들어왔어요.

한 날은 엄마와 아저씨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저씨가 이사를 간다며 나보고 아기를 좀 봐줘야 하니 함께 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로 난 아저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러곤 이듬해엔 딸도 낳아주었지요."

내가 "그럼 아저씨가 잘해 주었겠네? 행복했어요?"라고 묻자 그녀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아저씨는 아주 짠돌이였어요.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 돈으로 아이 셋을 키우며 사느라 굶기도 하고. 아저씨는 지난 2023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큰아들도 독립해 나갔어요. 나는 지금 기초 생계비를 수급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말끝을 흐렸고, 그 이유는 머잖아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핸드폰 게임에 빠져 돈만 있으면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일탈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는 저녁이면 길거리를 쏘다니다 아무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다 내어주는가 하면, 아무거나 마구 사들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 지금은 그녀 앞으로 오는 수급비마저도 큰아들이 관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적장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큰아들은 혈연으로 묶인 완벽한 '후견인'이니까요.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내일이 아저씨 기일이에요."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럼 내일은 식구들이 다들 모이겠네?" 그러자 그녀는 특유의 굳은 표정이 되어 "아니요. 아무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분가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도 않았고, 그녀가 먼저 하지 않으면 통화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저씨가 죽자 시댁에선 그녀를 '좀 모자라다'는 이유로 말조차 섞으려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쩜 그녀의 모든 '일탈 행동'들은 그녀를 외롭게 만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은 아닐까요? 그래서 벌이는 그녀 나름의 소극적 현실도피의 행동일지도 모르겠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비장애인들도, 보이스 피싱 등 여러 경제범죄에 노출되곤 하지 않나요? 특히 독거노인 같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 적은 액수만이 문제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 말입니다.

또 때로 쇼핑 중독 증상을 보인다거나, 명품 중독, 의료 쇼핑 등등 좀 억지가 있는 듯하지만 이런 중독들에 비해선 소박한 중독이지 말입니다. 이를 계기 삼아 수급비를 통째로 빼앗고,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어미 취급도 안 하고, 시댁에선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지적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에 주변인들이 그녀를 보호한답시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도한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적어도 그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로지 자신이 낳은 아이들만이 자신에게 잘 해준다며 히죽 웃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그녀도 외로움과 정서적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니까. 비록 그녀에게 장애가 있어 충분히 표현은 못하지만 많이 아프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후견인의 자격조건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야만 이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인권 유린 행위가 멈춰질 것입니다.

소나기

홍 순 태

해남 화원의 바다는 먼저 숨을 쉰다. 밀물이 들면 잠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깊은 숨을 몰아쉬듯 물결이 일어나고 썰물이 나가면 바다의 속살을 드러낸 채 오래 말을 아낀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물빛은 달라지고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숨결 사이에 있었다. 바다가 하루를 견디는 동안 그 하루를 배워야 했다.

1959년 음력 사월 초하루, 구림리 땅끝이라 불리던 그곳은 지도 위에서는 작았지만 내 삶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육 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집의 첫 숨처럼 살아야 했다. 그러나 열여덟 달쯤 되었을 때 내 몸이 멈추었다. 세워도 쓰러지고 다시 세워도 쓰러졌다. 그날 이후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서 걷는 대신 바닥 가까이에서 세상을 보아야 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나의 높이가 달라지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누군가는 이마에 바늘을 찔렀다고도 하고, 다리를 쭉 빼버렸다고 말들이 떠돌았다. 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그때 나는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나를 데리고 기어서 나무하러 산에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안 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이댔지만 끝내 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갈퀴를 손으로 쥐고, 때로는 무릎으로 솔잎을 모았다. 엄마는 솔잎이 모이면 큰 둥치를 만들고 그 안에 솔가지를 넣어 단단히 묶었다. 엄마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열심히 모아라." 나는 갈퀴를 다시 들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무너졌다.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몸을 뉘었다. 얼굴 위로 하늘이 보인다. 나는 울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 엄마가 나타났다. "왜 울어. 어디 다쳤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음은 어머니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는 나를 일으키려 했다. 다시 몸을 끌어올렸다. 그날 알았다. 울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중학교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었다. 하나는 왼쪽 길, 평탄한 길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했으며 차가 가는 길이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하나 왼쪽 길은 가장 일반적인 길로 예배당과 장터와 상가를 지나 차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직진이다. 선택할 길이 아니라 농로인 논둑길이었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넘어지기 쉬운 길이었지만 가장 빠른 길이었다. 늘 그 길을 택했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야 했다.

논둑길에서 몸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나는 가방을 놓지 않았고 살렸다. 가방은 나의 생명과도 같다. 물속에서 가방을 먼저 끌어안고 올라왔다. 잉크병과 책, 공책을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그날도 소나

기는 어김없이 세차게 나를 때렸다.

고등학교 시절, 광주에서 전학 온 한 여학생이 있었다. 얼굴이 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맑았다. 어느 날 나에게 공책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에델바이스가 말려 있었다. 꽃말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몰랐다. 소중한 추억, 고귀한 사랑이라고 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 아이는 우리 집 앞을 지나 학교로 갔다. 나는 숨어 있다가 몰래 뒤따라가곤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세 갈래 길 앞에서 그 아이는 늘 좋은 길로 가자고 했으나 늘 핑계를 대며 논둑길을 택했다. 넘어지는 길이었다. 좋은 길로 가면 학교 둘다 늦는다. 내가 좋은 길을 포기한 이유다. 한 번도 그 손을 잡지 못했다. 도움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내 안에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소나기 같은 사랑이 있다고. 그러나 나는 안다. 소나기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었다고. 피할 수 없는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다.

신작로에서도 나는 자주 넘어졌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술을 담은 됫병을 들고 가다가 큰 세퍼트 앞에서 멈추었다. 도망칠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한 걸음씩 물러섰다. 결국 길 위에 넘어졌다. 무릎이 찢어지고 어깨와 얼굴이 부딪혔다. 그러나 됫병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 됫병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리고 약속했다.

'술을 마시면 내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더 큰 세상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지만 그때 하늘과 한 무언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며 살고 있다.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을 때에도 소나기는 먼저 와 있었다. 그 비를 맞으며 몸을 옮겼다. 일어나는 방향으로, 다시 살아가는 쪽으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어떤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손이었다.

지금도 그 세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고 거기서 소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소나기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기 위해 온다는 것을.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감기가 떨어지려나.

그런 나는 언제나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몸이다. 그러나 그날 붙잡았던 손이 지금도 붙들고 있다. 오늘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간다. 소나기를 맞으며.

제28회 민들레문학상



대상 | 수필 부문
김민석



수필 부문 가작
장길숙



수필 부문 장려
박점수



수필 부문 장려
최서정



시 부문 가작
이석재



시 부문 장려
곽현숙



시 부문 장려
성호진



수필 부문 장려
우정순



소설·동화 부문 가작
배경열



소설·동화 부문 가작
김인성



소설·동화 부문 가작
최세환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감각적 문체로 그려낸 수작

예심을 거쳐서 본심으로 넘어온 작품은 17명의 총 34편이었다. 이 응모작들을 놓고 세 사람의 심사위원은 작품 한 편 한 편을 돌려 읽으면서 우열을 가렸다. 그 결과 대상 1편과 가작 1편 그리고 장려상 2편을 선정하는 데 어렵지 않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대상 수상작인 김민석의 「복도 끝에서」는 다른 수상작들에 비해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다.

「복도 끝에서」는 어린 시절 중증 뇌병변 장애로 인해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화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체로 그려져 있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부를 때 다녔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 응모자는 필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작가임이 분명하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의 일이었고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땅의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중증 장애를 안고 세상을 살아내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통 장애물넘기의 연속이었을 것임은 묻지 않아도 그림이다.

어린 시절을 눈물로 헤쳐온 화자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상황은 극적 반전에 이른다. 그새 세상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던 게다. 지난날의 미끄러웠던 복도, 넘을 수 없던 문턱, 비좁은 화장실, 높게 달린 손잡이 등의 장벽들이 이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춘 문턱 없는 복도며 넓은 화장실 출입문, 나지막하게 달린 손잡이,

거기다 위급할 때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점자로 된 비상벨까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 가득한 환경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화자를 더욱 가슴 뭉클하게 한 것은 이런 물리적 요소들보다 장애인을 대하는 세상의 달라진 눈이다. 지난날 편견과 멸시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새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던 게다. 화자는 이제 더 이상 '거창한 약속'이 아닌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며 기나긴 내면아이 적의 아픔에서 벗어난다.

결국 이 수필의 미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

가작으로 뽑힌 장길숙의 「도심의 옹달샘」은 복지관을 도심 속 옹달샘으로 의미 부여하여 한 폭의 풍경화를 그리듯 비교적 잘 형상화해 놓은 수필이었다. 다만 사설이 쓸데없이 길고 사유의 깊이가 부족하며 전체적으로 내용이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점들이 대상 수상작에 비해서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이유이다. 무릇 작가는 독자들에게 너무 불친절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친절해서도 곤란하다. 텐션이 느슨하면 쉽게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서정의 「돌다리 정류장에는 돌다리가 없다」와 박점수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은 두 편 다 진정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나치게 서사 중심이어서 수필적인 미감이 부족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장려로 밀려났다. 가작과 장려상을 받은 세 응모자는 앞으로 작품 속에 여하히 수필적인 장치들을 담아 글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상한 응모자들에게는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선에 들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응모하여 좋은 소식을 기다려 달라는 당부와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심사 곽흥렬(글), 박미정, 장수영

조금씩 바꿔온 시간에 대한 기록



김민석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도 끝에서」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때의 복도는 제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작은 배려를 배우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곳을 마주했을 때, 세상이 조금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조금씩 바꿔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끝에서

김 민 석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 겨울비가 씻어낸 흙냄새와 오래된 벽돌의 차가운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달리며 웃는 소리가 튀어 올랐다. 나는 한 걸음 멈춰 섰다. 이곳은 내가 '초등학교'라는 이름보다 '국민학교'라는 말로 먼저 떠올리는 곳, 내 몸이 가장 먼저 세상을 배운 장소였다. 그리고 그 배움은 교과서가 아니라 문턱과 계단, 시선과 침묵으로 시작되곤 했다.

어릴 적의 나는 두 손과 무릎으로 교실을 오갔다. 바닥은 늘 차갑거나, 끈적하거나, 모래가 섞여 있었다. 비가 오고 나면 복도에 남은 흙자국이 마른 뒤 까끌까끌하게 발목을 긁었다. 아이들은 그 위를 운동화로 가볍게 지나갔지만, 내게 그 복도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피부로 기억되는 길이었다. 내 몸은 중증 뇌병변 장애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휠체어는 그때의 학교에서 '자유'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사로도, 넓은 출입문도, 손이 닿는 높이의 손잡이도 없었다. 나는 늘 바닥과 같은 높이에서 학교를 올려다봤다.

운동장에서는 늘 달리기 소리가 먼저였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도시락 뚜껑을 닫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다. 공이 튀고, 신발

바닥이 흙을 차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패스!"라고 외쳤다. 나는 교실 문 근처에 앉아 그 소리만 들었다. 보고 싶은 장면은 눈앞에 있었지만, 몸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다. 나는 일찍 배웠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거리는, 마음만으로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거리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화장실'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선생님은 "다녀와."라고 쉽게 말했지만, 내게 그 말은 출발 신호가 아니었다. 복도 끝, 문턱, 좁은 공간, 높게 달린 손잡이.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다. 결국 나는 교실 한쪽 구석을 선택해야 했다. 아이들이 칠판 앞으로 모일 때, 나는 더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어른들이 말하는 '자존심'이나 '수치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던 나이였지만, 나는 이미 부끄러움의 모양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들키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는 날들이 쌓였다.

그렇다고 학교가 오직 차가운 기억만 남긴 것은 아니다. 내가 바닥에 놓친 지우개를 주워주던 손이 있었고, 땀에 젖은 내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당겨주던 친구가 있었다. 체육시간에 줄을 맞출 때, 내 자리만 어색하게 비어 있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앉아주던 아이도 있었다. 누군가는 내 책가방을 들어주며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나에게는 경사로보다 더 큰 길이었다. 나는 그 작은 친절들 덕분에 버텼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알게 되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춰지지 않아도, 사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어떤 말들은 오래 남아 내 안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국 먹지 말고, 물도 적게 마셔라." 그 말은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말이 아니었을 것이

다. 어쩌면 그 시대의 '현실적인 배려'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불편함은 네가 감당해야 한다.' '학교는 바뀌지 않는다.' 그 문장이 내 몸보다 먼저 나를 교실 한쪽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 말을 원망하기보다, 그 말이 가능했던 환경을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묻고 또 묻었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성장했고, 학교는 내 기억 속으로 멀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교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 학교 운영위원으로서였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조여 왔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장애를 가진 몸이었지만,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교문 앞에는 경사로가 놓여 있었고, 출입문은 넓었다. 복도는 평평했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았다. 화장실 문은 예전보다 크게 열렸고, 손잡이는 내가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 무엇보다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표지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당당히 보였다.

그날 나는 일부러 1층 끝 화장실까지 가 보았다. 예전이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며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 거리다. 문 앞에는 점자 안내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었다. 문을 열자 휠체어가 돌아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비상 호출벨이 손 닿는 곳에 달려 있었다. 나는 그 벨을 한참 바라봤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르라'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울컥하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도움이 필요해도 누를 벨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언어도, 요청해도 될 권리도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참았다. 참다가 익숙해졌다.

복도를 되돌아오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물걸레를 들고 지나가셨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바닥이 젖으면 내 무릎이 먼저 시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복도에 흙탕물이 번져 있었고, 나는 젖은 바닥 위를 기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선생님은 "조심해야지."라고 말하며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내게 '조심'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바닥은 계속 젖어 있었고, 나는 계속 그 바닥을 지나야 했으니까.

운영위원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딸아이의 교실 앞을 잠깐 들렀다. 교실 문 옆에는 아이들이 만든 종이꽃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 반은 서로 도와요'라는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급훈일지 몰라도, 내게는 오래 걸려 도착한 문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딸이 그 문장을 아무렇지 않게 읽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도움'이 특별한 미담이 아니라, 숨 쉬듯 오가는 일이기를.

딸은 나를 보자 "아빠!" 하고 달려왔다. 나는 아이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팔을 벌렸다. 딸은 자연스럽게 내 손잡이를 잡고 옆에 섰다. 친구들이 다가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그 인사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 장면이 내게는 조용한 변화처럼 다가왔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다시 보았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였고, 아이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문득 나는 그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던 어린 나를 떠올렸다. 다음에는 나도, 다음에는 나도—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던 아이. 그런데 지금, 내 딸의 '다음'은 조금 다르게 시작될지 모른다. 아빠가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이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랄 수 있으니까.

나는 오래된 교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배웠다. 예전의 나는 배려를 받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지만, 지금의 나는 배려를 '함께 논의하는 사람'

의 한쪽에 서 있다. 완벽하진 않다. 여전히 빠진 부분이 있고,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 그래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이 교정에서 희망을 본다.

교문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어린 나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불편하다고 느끼는 감각도, 함께 있고 싶다고 바라던 마음도. 이제 나는 그 감각을 숨기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그 감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는 안내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턱이 낮아질 때마다, 누군가의 삶은 조금 덜 외로워진다는 것을.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느낌



장길숙

전화를 받지 못해 뒤늦게 확인한 문자는 제게 꿈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입상 소식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써 내려온 시간들이 삶의 동력이 되어 이렇게 귀한 결과로 돌아온 것에 깊은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글을 쓰는 내내 복지관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던 환한 미소의 친구들, 온기를 나누며 맞잡았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들을 문장으로 옮기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제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지 위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시고, 부족한 글을 정성껏 읽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매 순간 고민의 연속이지만, 이번 상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깊은 글을 쓰라는 격

려의 채찍질로 여기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글을 쓰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듯,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펜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가족과 지인들과 기쁨을 함께하며, 저에게 주어진 문학의 불씨를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다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심의 옹달샘

장 길 숙

도시의 한복판,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공간이 있다. 숲속 오솔길처럼 편안하고 정다움이 서린 곳, 부담 없이 쉬었다 가는 복지관은 시골 마당에 평상 같은 곳이다. 남녀노소 신분도 따지지 않는 도심의 옹달샘이다. 고향 마을 초입에 선 우람한 느티나무 그늘처럼 넉넉함이 있다.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우렁더우렁 동글동글한 시간을 만든다.

복지관 아담한 카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밝은 웃음이 터진다. 내가 근무하던 직장이기도 하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일이라 살짝 가슴이 떨렸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내 걱정을 거둬가 버렸다. 그들은 친절하게 원두커피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덕분에 나는 각종 커피음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냉커피와 여러 가지 과일 음료를 척척 만들었다. 동행 420은 복지관 이용인들의 교육 장소이기도 하다. 전문가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배우는 건 재미있었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열대 나라 아이들이 힘겹게 커피콩 따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았다.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힘든 삶을 알게 되었다.

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사랑방처럼 훈훈하다. 체력단련실에서 열심히 운동하다, 취미로 장기를 두다가 차를 마시기 위해 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잠시 쉬며 정담을 나눈다.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어느 날, 낯익은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다. 자주 보는 얼굴들이어서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친구들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다. 물론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는 없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래도 마음대로 걷고 어디든 다닐 수 있잖아. 스스로 걷지 못하는 이들의 생활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다. 처음에는 그들이 지체장애인을 보고 품는 우월감이나 동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자신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긴 모양이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듯, 그들이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편견이 없었다. 육신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마음이 오롯이 내게 전달되었다. 그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이라 따뜻함을 만나면 마음이 열린다. 몸이 불편한 다른 친구를 보고 한 말이었지만 마치 내게 하는 말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푸릇푸릇 생기가 돈다. 도심을 가로지

르는 철길에 나무를 심어 알뜰히 가꾼 덕분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푸른 길 산책로다. 사람뿐 아니라 새들도 피곤한 날개를 쉬어간다. 여름이면 매미들의 천국이다. 도로의 소음을 다 삼켜버릴 듯 거세게 울어댄다. 녹음이 짙을수록 매미의 울음은 오케스트라가 된다. 푸르름이 흥건히 고인 길에서 비둘기들을 자주 만난다. 비둘기는 먹이를 혼자 먹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친구들을 부른다. 여기 맛있는 게 있으니 빨리 오라며 '구구구' 쉼 없이 목청을 돋운다. 어디선가 한 마리 두 마리 연이어 날아들고 어느새 한 무리의 비둘기 떼가 먹이 앞으로 모여든다. 비둘기는 함께 날고 먹이도 같이 먹는다. 그 푸릇한 길에 모여 있는 비둘기를 보면 기분이 좋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수북이 쌓여도, 겨울날 눈이 하얗게 길을 덮어도 비둘기들은 다정했다. 모두가 비둘기 같은 마음이라면 장애, 비장애 편견 없는 세상이 되어 평화가 깃들 것 같았다.

장애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내가 위로받을 때가 많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나로서는 비장애인과 어울리다 보면 가끔은 비틀거리고 허우적댄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같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동질감 때문인지 걸음걸이마저 당당해진다. 마음이 정화되고 차분해진다. 날마다 직업 지원동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몇 명씩 어울려 다녔다. "이모! 얼음 두 개만."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고 얼음 두 개만 넣어 달란다. 친구들은 나도, 나도 하며 종이컵을 내밀었다. 얼음을 받아든 친구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복지관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언니가 되고 이모가 되고 누님이 되었다.

한 친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사진 찍기와 문자, 카톡 보내는 방법 등이었다. 그 뒤,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바빠서 얼른 답을 못할 때면 바로 전화가 울렸다. "이모 뭐 해? 빨리 카톡 보세요." 메시지를 열면 언제 찍었는지 내 사진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했는데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그래 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다. 함께하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것들을 자연 체득하게 되었다. 내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은 건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친구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신했다. 비장애인보다 조금 늦게 갈 뿐 살아가는 데 장애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은 여러 분야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웠다. 그림을 배우는 친구들은 캠퍼스에 색채의 마술을 부렸고 영혼을 담은 그림은 명화가 되었다. 개성이 넘친 다양한 그림으로 카페 안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구슬을 꿰어 브로치를 만드는 친구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이 났다. 구슬이 장미꽃도 만들었고 별도 달도 되었다. 가죽공예 시간에는 가죽에다 직접 염색을 했다. 광을 내기 위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문질렀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바늘로 꿰매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몸이 불편해 힘들어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로 조력자가 되어 3주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한 무늬의 손가방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었다.

복지관 문학 동아리에서 자그마한 책을 발간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손안에 쏙 들어온 작은 시집이었다. 친구들 모두 가슴속에 깊이 숨겨둔 불새를 한 마리씩 꺼내는 것 같았다. 비가 오면 오히려 좋다는 시를 쓴 친구가 있었다. 비가 내리면, 빗소리 때문에 울음을 들키지 않아서 좋다고 썼다.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니, 가

슴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하루하루 편견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일과 다름없다. 이곳 친구들은 항상 웃었다. 마치 아무 걱정이 없는 듯이, 하지만 그 밝은 표정 속에 숨어 있는 눈물을 나는 보았다.

손발 없이도 살아내는 사람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는 시를 쓴 친구도 있었다.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에게서 당당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정이 서로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바람을 맞고 건너온 시간이 시로 승화되었다. 이 세상에 시인 아닌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내는 인생을 노래처럼 쓰면 시詩가 되고, 긴 글로 쓰면 소설이 될 것 같았다.

"이모! 이모 나 담배 끊었어요."

친구 같은 내게 할 말이 많은 아이들이다. 여백이 많아 솜털 구름처럼 날고 싶은 동심들이다. 내 마음도 그 동심에서 함께 날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무엇이든 배우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그보다 더 예쁜 얼굴이 어디 있을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환한 등불이 켜졌다.

지난겨울 함박눈이 내리던 날, 밤새 내린 눈이 발등을 덮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눈발을 헤치며 들어온 친구가 카페 안이 천국이라고 말했다. 언 몸을 녹이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주위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천국이 따로 있을까, 허기진 마음을 채우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에 길든다. 길을 건널 때에

도 빨리 달릴 수 없어 깜박이는 신호를 그냥 보낸다. 다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길을 건너다 적색 신호로 바뀌면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식이 깔려 있음이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웃음을 볼 때 감동은 크다. 그에 맞춰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는 친구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의 일부다. 세상의 잣대에 기죽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으며 마음속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는 곳, 복지관에는 오늘도 마음이 자유로운 영혼들의 이야기가 옹달샘 맑은 물처럼 퐁퐁 솟아오르는 중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박 점 수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다. 혹한 한파에 보일러를 높이고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서도 오한은 가시지 않고, 겨우 삼킨 밥알들을 모두 토해내고서는 온몸이 불덩이로 오른 나는 응급실로 실려 갔다. 검사결과 급성신우신염이란다. 나 같은 전신마비 장애인들은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번 작은 고무호수관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변을 빼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로에 감염되기가 십상이다.

40도의 고열로 눈의 초점도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내게 간호사들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고, 두 개의 얼음 베개를 가져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옆구리에 넣어주었다. 그리곤 찬비 맞은 주인 잃은 강아지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게 이불 대신 온몸에 거즈를 대고는 얼음만큼이나 차가운 알코올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살점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의 고통을 정말 이가 부서질 듯 악물고 견뎌야만 했다.

간호사들의 금과옥조 같은 처치 법으로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니 숨쉬기가 수월하다. 다친 이후, 간혹 이렇게 반갑지 않은 아픔이 찾아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마치 아련한 추억처럼 떠올려지는 곳이

있다. 때때로 그곳의 기억은 지치고 힘든 내 삶에 자양분이 되어 "이런 고통쯤이야." 하며 새롭게 나를 일으켜 세우곤 한다.

유치원교사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29살의 봄날,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가 났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힌 순간 창밖으로 튕겨 나간 나는 목뼈가 부러지면서 모든 신경 줄이 끊어졌다.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서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가슴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따님은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사형선고 같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엄마는 절망에 빠진 나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재활병원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순간 우리 모녀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절망이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 엉덩이 꼬리뼈에 생긴 욕창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엄마도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욕창은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눌린 피부가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궤양으로, 내 엉덩이에 생긴 욕창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난 알 수 없었고 감각이 없으니 아픔 또한 느끼지 못했다. 나를 대신해서 욕창을 지켜보고, 아파하고, 치료하는 것은 언제나 엄마의 몫이었다. 그러다 하루는 옆에 계신 다른 환자의 욕창을 우연히 보게 됐다. 나와 똑같은 위치에 거무스름하게 살이 썩어들어가 뼈가 보일 정도였고, 깊게 파인 상처에서 진물과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욕창이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며 그 상태에선 재활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담당 의사의 말이었다. 그리곤 상처가 아물

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욕창 부위가 바닥에 절대 닿아서는 안 된다며 마른 장작개비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는 내 몸뚱이를 병실 한쪽 침상에 엎어놓았다. 엎드린 채로 하루에 한 번씩 어두컴컴한 밀실 같은 곳으로 옮겨져 커다란 오색불빛에 엉덩이를 쪼였다가 돌아오고, 몇 시간마다 간호사들에 의해 오른쪽, 왼쪽으로 체위변경이 되는 것 외엔 잠을 잘 때는 물론이고 엄마가 먹여주는 밥조차도 엎드린 상태에서 받아먹어야 했다. 그런데도 먹은 것이 소화되고 감각 없이 배설되니 한마디로 꿈틀거리는 벌레가 따로 없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서러움에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울 수가 없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내려온 순간부터 1년이 넘도록 차가운 보호자 매트에서 발도 제대로 뻗지도 못한 채 토막잠을 자며 나를 간호하고 있는 엄마의 가슴에 나의 눈물은 또 하나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히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고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욕창이 나았다. 이전 병원에서 10여 개월 동안 의사들이 날마다 소독하고 치료해도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욕창이었는데, 역시 지방병원과는 뭐가 달라도 달랐던 모양이다.

근전도 검사를 비롯해 몇 가지 검사가 이뤄지고, 본격적으로 재활운동이 시작됐다. "하나…둘…셋…다시 처음부터 하나…둘."

여기저기서 물리치료사들의 엄한 호령에 맞춰 숨 가쁘게 돌아가는 물리 치료실은 마치 내일 전쟁터에 나갈 전사들의 마지막 발악의 훈련소 같았다.

'철커덕철커덕'

환자들이 팔 힘을 기르기 위해 당겨대는 운동기구 소리는 또 어찌나 살벌하게 들리던지…. 앞사람이 빠져나가고, 그가 온몸으로 뱉어 놓은 열기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매트 위로 내 몸이 올려졌다.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어깨 신경 하나로 건장한 물리치료사의 팔에 매달려 움직여지지 않는 상체를 간신히 끌어올리기를 수십 회, 양팔을 좌우로 휘둘러 그 힘의 반동으로 옆으로 돌아눕는 연습을 또 수십 회, 커다란 탱탱볼을 배에 깔고 엎드려 후들거리는 양팔에 힘을 주고 버티기를 20분. 운동을 시작한 지 아마 3일째 되던 날이었나 보다.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뚱이가 버겁고 힘겨워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다.

"박점수 씨 언제까지 어머님이 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약한 마음이라면 내일부터 물리치료실로 내려오지 마세요."

엎드려 울고 있는 나에게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물리치료사의 벼아픈 질책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무시무시한 말은 한동안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만들었다.

작업치료는 물리치료와는 달리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다. 색색의 작은 나무 블록을 간신히 집어 올려 구멍에 꽂고, 꼼지락하지 않는 양손으로 고무 점토를 잡아 뜯고, 숟가락으로 콩을 퍼서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 등등 주로 유치원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학습교구들이었다. 다섯 살 어린 반 아이들도 쉽사리 하던 것들이었는데…. 순간순간 움직여지지 않는 내 열 손가락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다.

온종일 빡빡하게 짜인 재활 치료과정은 대략 저녁 6시쯤이면 모두 끝이 난 것으로 기억된다. 하루치의 고된 운동량을 온몸에 무겁도록 싣고서 병실로 돌아오면 언제나 맛깔스럽지 않은 저녁밥이 병실마다 날라져 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의 일과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고서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으면 또다시 엄마에게 이끌려 환자들을 위해 개방해둔 작업치료실로 향해야 했다. 재활병원이라는 특성상 환자들 대부분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의 몸이 된 사람들이었기에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꼭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보호자들의 의지 또한 그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밤마다 작업치료실의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보호자들 간에 치열한 몸싸움과 눈치작전이 벌어지곤 했다.

엄마는 물론이고 나 역시나 여느 환자들처럼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걷지는 못하더라도 혹여 목발이라도 짚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손가락 정도는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재활 치료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몸에 남아 있는 기능을 이용해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일 뿐, 의학적으로 한번 끊어진 신경세포는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고서는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또 다른 재활병원을 옮겨 다니는 동안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느리지만 내 힘으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다. 다치고 처음, 휠체어는커녕 어쩌면 남은 일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엄마, 차라리 나 죽을래. 나 죽게 해 줘." 그리 서럽게 울며 엄마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놓고서 절망에 빠져있던 때를 생각하면 희망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

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재활은 끝났으니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지 말고 퇴원해서 집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사의 최종명령이 떨어졌다. 솔직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기쁘고 좋았다. 꽃잎이 흐드러지게 날리던 어느 봄날,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좋았다. 그동안 환자들도 입에 맞지 않아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던 병원 밥을 드시며 편안한 잠자리 하나 없이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니 무작정 좋았고, 애달프게 그리운 형제들을 볼 수 있어 더없이 좋았고, 찌든 소독 냄새와 더불어 날마다 이어지는 지옥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말도 못 하게 좋았다.

문득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이 생각난다. 돌이켜 보면 내게 재활병원은 마치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은 곳이 아니었나 싶다. 타들어 가는 목마름으로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폭풍을 헤쳐 겨우겨우 나왔나 싶으면 또 다른 모래언덕이 나오고 그러다 때론 걷잡을 수 없는 모래 늪에 빠져 좌절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서 이 고통 역시 곧 지나가겠지. 오늘 고됨보다 좀 더 나아진 내일이 있으리라는 푸른 오아시스 같은 희망이 있었기에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사막의 모래언덕 같은 힘든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 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앉을 수도 없는 몸, 이번처럼 40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될지도 모르고, 엉덩이의 욕창으로 인해 또 몇 날을 고통스럽게 엎드려 생활해야 할지

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도 언제나 삶을 이어주는 푸른 오아시스 같은 희망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거센 모래폭풍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은 선인장처럼 굳세게 이겨나갈 것이다.

돌다리 정류장에는 돌다리가 없다

최 서 정

구리시에는 '돌다리'라는 이름의 정류장이 있다. 지금은 그 이름만 남아 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묻는다. 돌다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그곳에는 다리가 없다. 한때는 낮고 짧은 돌다리가 실개천을 가로질렀으나, 1980년대 복개공사로 자취를 감췄다. 그 위로 길이 놓였고, 차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자리를 지나간다. 사라진 존재를 이름으로만 붙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나는 그 이름이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내게 돌다리는 여전히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리 교각에 엎드려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였다. 그때의 나는 기다린다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엄마는 늘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버스가 한 번 멈출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아니면 다시 내려놓았다. 그렇게 몇 번이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 기다림은 짧게 끝나는 날도 있었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이곳을 떠났지만, 완전히 떠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일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조금씩 조용해졌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견디는 법을, 그

자리에서 처음 배웠다.

어린 시절, 구리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경동시장이 가까워 푸성귀를 길러 내다 파는 집이 많았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엄마는 새벽 첫차를 타고 깻잎 보따리와 함께 시장으로 나갔다. 깻잎을 팔기 위해서였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시간에 나갔다가, 해가 떠오른 뒤에야 돌아왔다.

낮이 되면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깻잎을 쟀다. 하루 종일 밭에서 따온 깻잎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손끝이 초록으로 물들어도 멈출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름방학은 고단함이 더 길어지는 계절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만큼 깻잎을 재는 시간도 늘어났다. 우리는 그만큼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여름방학이 싫었다. 하루 종일 깻잎을 재야 했기 때문이다.

동네 아이들도 비슷했다. 모두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깻잎이 덜 자라 운 좋게 손을 놓는 날이면 우리는 왕숙천으로 달려갔다. 특별한 유희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였다. 우리는 퉁퉁 불은 발을 물속에 오래 담가두곤 했다.

엄마는 늘 무언가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참외이기도 했고, 복숭아이기도 했고, 가끔은 빵이었다. 어린 나는 그것을 받아 드는 것이 기다림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 온 물건이

아니었다. 하루를 버티고 돌아온 사람이 아이에게 건넬 수 있는 거의 전부 같은 것이었다.

그 손에는 시장 바닥의 시간과 지나온 하루의 무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들고 기뻐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붙들게 된다. 그때 나는 무엇을 받고 있었던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어느 해 여름이 지나고 돌다리는 사라졌다. 복개공사가 시작되면서 내가 엎드려 있던 교각도 함께 없어졌다. 엄마를 기다리던 자리도 흔적 없이 덮였다.

엄마는 더 이상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돌다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길이 생겼고, 도시는 빠르게 변해갔다. 논밭은 사라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다. 지금의 구리는 그 시절을 설명해야만 알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도 정류장 이름은 여전히 '돌다리'다.

사람들은 묻는다. 돌다리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또렷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돌다리는 무언가를 건너기 위한 다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기다림을 배운 자리였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오래 두었던 자리였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정류장을 지난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릴 때면

잠깐 시선을 두게 된다. 내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 내릴 것 같아서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장면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된다.

나는 그 다리를 떠났다.

그런데도 가끔은 그 다리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기분이 든다. 몸을 길게 늘인 채 엎드려 버스를 바라보던 아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다림은 끝났는데, 그 기다림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안다.

나는 그 다리를 떠났지만, 그 다리는 끝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난 뒤에야,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흑백으로 인화된 가족사의 콜라쥬

이석재의 「8월, 그리고 11월의 콜라쥬」는 낙동강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중심축으로 삼아, 굴절된 가족사와 상실의 시간을 치열하게 재구성해낸 수작이다. 이 시에서 '강江'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삶과 죽음, 귀환과 단절이 교차하는 철학적 경계로서 시적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한다.

본 작의 가장 돋보이는 성취는 파편화된 기억을 병치하는 구조적 완결성에 있다. 생모와 새어머니, 여동생과 아버지로 이어지는 가족의 층위는 평면적인 시간순 서사를 거부한다. 대신 특정 공간(삼랑진-김해-낙동강)을 매개로 기억의 파편들을 입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사건 이면의 슬픔을 감각하게 하는 고도의 서사 전략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파편성이 단순한 기법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상실의 내적 구조를 정직하게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의 붕괴를 인위적으로 수선하려 들지 않고, 그 균열을 끝까지 응시하며 시적 언어로 정착시킨 화자의 태도는 윤리적 깊이와 미학적 진정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공간 구성 또한 탁월하다. 낙동강과 교각, 강 건너 김해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 도달할 수 없는 과거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상징하는 '심리적 지형도'로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강 건너를 바라보는 시선'의 반복은 결핍을 승화시키려는 의지보다, 그 공백 자체를 직시하며 삶의 비의悲意를 견뎌내는 단단한 서정의 힘을 증명한다.

결미의 '흑백의 콜라쥬'는 흩어진 기억들을 미학적으로 봉합하는 장치인 동시에, 완결되지 않는 삶의 비연속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성숙한 시선의 발현이다. 상실을 섣불리 위로하거나 승화시키는 대신, 그 공백을 정교한 형식 속에 고정시킴으로써 독보적인 시적 긴장을 만들어냈다. 복원이 불가능한 기억의 폐허 속에서도 끝까지 시의 품위를 지켜낸 이 작품의 끈질긴 응시를 높이 평가한다.

심사 김두한(글), 김형범, 김학조

삶의 발버둥 속에 피는 꽃



이석재

며칠 전 아내랑 인천 월미도에 새로 생긴 해양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전 바닷길을 재현한 파노라마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해에서 중국까지 가는 뱃길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한 길이었음이 새삼스레 마음에 콕콕 박혀 들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항해일까요?

시를 쓰면서 힘들지만 조금씩 삶의 궤적을 넓혀가며 내 곁에서 동행하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더 따스하고 덜 아픈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민들레장애인문학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들레꽃이 시들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자양분을 주시는 또 다른 분들께도 깊은 고마움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은 내가 쓴 글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아픔과 고통, 혹은 처절한 삶의 발버둥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8월, 그리고 11월의 콜라쥬 외 4편

이 석 재

여동생의 부고를 듣고 들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강둑 아래 작은 마을은 조용했다

강둑에 올라 강 건너 저편을 바라보면
그곳엔 독산마을이 있고 그 옆에 웅크린 마사리
마사리 앞 갈밭에는
독산마을 출신인 생모가 버리고 간 기억의 발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있다

낙동마을에서 독산마을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들
그 교각들의 허벅지쯤에서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오는
저녁의 얼굴이
잊혀진 기억 속 이름처럼 흑백으로 빛나고

강 건너 그곳 김해 땅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밀양화장장에서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 여동생은
왜 강 건너 김해 땅이 보이는 언덕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
오래전, 삼랑진에서 잘나가던 레스토랑을 접고
김해시로 나가 해물탕 가게를 운영하다가
IMF 유탄에 맞아 신용불량의 상처를 입고 돌아온 동생은
소주잔을 기울일 때마다
- 삼랑진에서 김해까진 갔는데 거기서 발이 묶였어
깔깔대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 속내를 숨겼었다

무척산 공원묘지에 사십 년 전 8월에 몸을 눕힌 새어머니는
강 건너 이편 삼랑진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내 자식 전실 자식 가리지 않고 치마폭에 품었어도
마음에 담은 제 자식만은 각별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키가 작고 가슴이 넉넉했던 어머니, 지금쯤 딸래미를 만났을까?

새어머니가 떠난 팔월의 기제사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강둑에 서서 저물어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 먼저 가신 어무이가 그리운 게요?
- 씰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은 봉분이나 보고 오이라
타박하는 아버지의 음성은 8월의 땡볕 속으로 허방허방 흩어졌다

이젠,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동생마저 떠나버린
강둑 아래 휑한 고향집

〉

낡은 액자에 담겨 바람벽에 걸린
조각조각 흑백으로 인화된 콜라쥬 작품 같은
한 가족의 흔적이
강 건너 그곳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다.

겨울 소나타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면서
오래 만나지 못한 이름들이
요양병원 옥상 공원
플라스틱 의자 곁에 나동그라져 있다

하오를 적시는 빗소리가
낡은 의자를 타고 흘러내린다
버려진 발자국들의 체온이 식는다

바람이 지나간 길을 따라
하얀 귀 쫑긋 세우고 달려와 파도 소리로 엎드리는
바다가 보이는 병실

마스크 속에 불안을 숨기고
외롭기 알맞은 거리를 재며
안개가 눈을 휩뜨는 아침이면
침묵 한줌 안개 한줌 넣은 비빔밥을 먹는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낮게 신음하는

배 아파 낳았어도 이젠 낯설기만 한 자식을 닮은
바다의 음흉한 속내

저 혼자 떠들고 있는 TV의 뉴스처럼
무성한 망각의 가시덤불을 베어 넘기면
환절기마다 찾아드는 새들이 남기는
새로운 기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밤마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점령하는
망각 세포의 유혹 앞에서
하얗게 까무라치며 눈을 감는 기억들은
다시 어디에 묻어야 할까?

사람의 냄새가 지워진
바다가 보이는 요양병원 병실
창가 침대 위에 앉은 그녀는
아침마다 사람이 사람으로 부대끼는
그리운 온기를 더듬고 있다.

기억의 타투 · 1

- 갈대, 혹은

어두운 귀를 가진 사람의 깊은 상처는
달빛으로 감싸 안고
온몸을 웅크려 버텨내야 한다

바람 불면
자욱한 고요 속에서
지치고 야윈 몸은 정신없이 흔들린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앗기는 체온에도
입속은 쉽사리 버석버석 메말라간다

시월 보름, 텅 빈 골목에 주저앉아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다독이며 건너가는
이 미친 바람 부는 세상살이

어두운 무대를 외발자전거를 타고 도는
쓸쓸한 춤사위로 밤새워 흔들리다가 불현듯 닿는
푸르스름한 새벽의 퀭한 눈길

〉
새삼 옷깃 여미며 고개 숙여도
바람에 헝크러지는 머리카락처럼 솟구치는
이 승질머리는
끝끝내 숨길 수 없는
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이다.

기억의 타투 · 2

- 부표

청각장애의 이름표를 달고 건너가는 세상은
날마다 푹푹 빠져드는 수렁이었다

허리춤을 끌어당기는 유혹은
자주 찾아드는 노을만큼 붉게 출렁거렸고

그 유혹을 견디는 몸부림은
끊어지기 직전의 가느다란 현처럼 팽팽하였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땡볕 아래 하루 종일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귀가 어둡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그러나 누군가는 지켜내야 할 좌표 하나

지켜내야 할 것을 꿋꿋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가끔 물새들이 읽고 이내 잊어버리는 이름표에는
실험실의 시약병처럼 숫자나 알파벳 대문자가 적혀있다

〉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굽어진 물길 가장자리
데칼코마니 같은 아침과 저녁노을을 만나는
이 자리에선.

기억의 타투 · 3

- 망초꽃

비가 올 때마다
그 여자 망초꽃처럼 웃었다

첫 남편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배 타던 두 번째 남편도 물길 따라 떠나보내고
삼대독자 아이 하나 대 이으라고 줘 버리고
소주 한잔 마시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꺽꺽거리며 웃었다

맨몸으로 떠돌며 봉제 공장 다니다가
눈 맞은 트럭운전수 셋째 배필로 맞아들여
딸만 내리 세 명 두고 모진 시집살이 허덕이며
너처럼 볼품없이 헤롱거리는 몰골로 웃어대다가
십 년 세월 저물기도 전 이혼 도장 쾅쾅쾅 찍어버리고
까짓것 이 한 몸 어딘들 눕힐 곳 없으랴
두 딸내미 끼고 경기도며 충청도며 부산까지 떠돌던 여자

네 번째 서방 만나 지지리궁상 떨며 살아도
시커멓게 탄 안색으로
별별 암이랑 병이랑 친구로 찾아들어도

해맑은 웃음 퍼올리며
반편 같은 몰골로 생활의 강을 건너가는 여자

너를 볼 때마다
내 청각장애의 어두웠던 골목마다 불을 밝혀주던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난다.

엄마 외 4편

곽 현 숙

질식할 것 같은 짙은 향기에
온몸을 감싸고
새하얀 꽃바다 속에
난생처음 누리는 호사를 누리며
엄마가 누워있다

가여운 새끼들 한 끼라도 굶길세라
험한 세상 까막눈 되어 환히 보지 못할세라
늘상 분주하던 팔다리를 곱게 모으고
수줍은 새색시처럼 엄마가 누워있다

손톱 발톱이 자라기도 전에 닳아버리는
밤을 낮처럼 인생을 늘려 살더니
가는 길이 그래서
이토록 이른가 보다

긴긴 외로움과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터져

지쳐버린 한 평생
겨우 한 갑자를 보내고
엄마가 훨훨 떠나갔다

한 평 황토에
평안하다는 듯 빼꼼 고개 내민 네 잎 토끼풀
명치를 막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솟구치듯 쏟아진다

엄마 안녕 영영 안녕
이 풍진세상 견디고 버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편안히 영면하소서!

엄마
벌써부터 보고 싶다.

중환자실 단상斷想

알 수 없는 주삿바늘이
팔다리에 주렁주렁 꽂혀있으니
박제된 나비처럼 내 몸이 초라하다
눈도 못 뜬 채 누워 있으니
온통 억눌린 감각 속에서
머릿속만 온통 분주하다
질서 어린 부산한 발걸음
다급한 부름 속에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또 가여운 영혼 하나 외롭게 떠나나 보다
허공을 맴도는 저승 차사의 차가운 숨결이
나를 스쳐 가는지
정수리부터 차가워지는 몸은
떨리는 걸 멈추지 못한다
삼도천 냇가를 맴돌며
강 건너 피안을 넘겨다보고 있노라니
귓전에 애절한 낯익은 울음소리
내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구나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억지로 가슴 아래 내려보내며

천근 같던 눈꺼풀을 밀어 올리니
눈물콧물 얼룩진 내 새끼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다시 돌아온 세상은 어제처럼 변함이 없건만
다시 돌아온 나는 무거운 새로움을 얻었다

혈영血詠

- 혈육을 노래하다

지금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은
전생의 수천 번의 만남의 결과라던데
천륜으로 이어진 우리는
심연보다 더 깊은 맺음이 아니겠느냐
너를 품고
치우친 심장 빈 곳의 허전함이
비로소 충만하게 차오르고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열 달
생살이 찢기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은
장미꽃잎보다 부드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환희가 되어 버렸느니
그날 이후
나의 모든 날은 너로 가득 차
하루라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나니
혹여 열정이 지나치어
나의 기대가 부담이 되고
나의 격려가 질책으로 들릴지라도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일지니
이제 너는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올라 너의 꿈을 꾸거라
날다가 날다가 마침내
세사에 지치고 외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오너라
항상 이 자리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을 터이니.

연가

홍매화 눈부시던 그 봄
흔들리는 족두리에
벅찬 기대로 활짝 열린
꽃가마에 수줍은 발을 내딛던
꽃보다 더 고았던 열아홉
원앙금침 색도 선명하고
부르는 이름이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데
그대 바람처럼 홀연히 떠나버리니
나는 청상의 낙인을 달고
올망졸망 자식들 거두고 지키며
버티고 견뎌낸 반평생
모진 세상 두려움을
긴 한숨으로 삼키고
야멸찬 멸시를
가슴으로 받아내며
밤마다 적신 눈물이
황하보다 깊고 붉었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해로하자던 약속은
나 홀로 지켜 백발이 되었으니

그대는 아직도 영원한 청년이구려

그대와의 꿈결 같던 십 년을
그대를 지키는 삼십 년으로 갚았으니
이제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한줌 숨결에 기대어
그리운 그대 찾아가려니
나를 잊지 말고 기다리시오.

옛집

높은 가지 끝에
전등처럼 매달린 홍시가 길을 밝히는
고샅길 돌고 돌아 구부러진 모퉁이 길
멀리 보이는 사립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보이던
어머니의 하얀 백발.

노랗게 물들어 고운 자태 뽐내던
탱자나무 울타리도
여름날 창 밑 파초 잎에
떨어지던 빗소리도 잊혀지고,

오순도순 도란거리던 속삭임도
환희처럼 터지던 웃음소리도 사라졌는데

온기 한 점 남지 않은
빈 집을 지키는
마당가의 하얀 목련 한 그루.

쭉정이 외 4편

성 호 진

낯선 구름이 지나가다가
뒤틀린 나를 보고 처마 끝에 걸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름으로 치장을 한 어머니
땀 밴 속적삼 한 벌씩 벗어
바람에게 전해주며
나의 슬픈 다리를
만져주곤 했습니다.

외양간
늙은 암소의 울음도 사라지고
벼는 끝내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손금처럼 익지 못하고
남의 식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러워 빈 쭉정이가 된 가슴
고인 물처럼 말라붙었고
갈가리 인화된 조각들은
울대 깊은 곳에서
묵어 자빠지고 맙니다.

〉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복판에는 멍울이
웃자라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인숭무레기* 같은 난,
힘차게 웃으며 돌아서서
슬픈 다리를 바라보다가
젖빛 유골함을 꼭 품었습니다.

* 어리석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주신 지팡이

소년 시절,
열병으로 쓰러져
한쪽 편을 쓰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막내아들 일어나라고
손수 깎아 만드신 명아주 지팡이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당신은
저 먼 하늘의 별이 되셨어도
버리지 못하고
따스한 사랑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 곁으로 가는 날
그 지팡이 짚고 살금살금 걸어가
무릎 꿇고 울겠습니다.

김장김치

아픈 상처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 모여
첫눈처럼 순결한 속살을
갖은 양념으로
채색하고 버무렸습니다.

누구는
사랑을 몇 바가지 넣었고
누구는
웃음을 몇 사발 넣어
행복의 간을 맞추어 담갔습니다.

돼지 수육을
갓 담은 김장김치에 싸서
옴팡지게 된장을 발라
옴쏙 씹는 맛에
사랑과 행복은 군무를 추었답니다.

가지고 온 김장김치를
외로움의 각질로 뒤덮인

저 주름진 이웃 할머니에게
한 포기 드렸더니
그렁그렁 눈물 고였습니다.

칠순 잔치와 손녀

그녀의 노랫소리가 식당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식을 즐기고 있던 많은 축하객이 놀라워했습니다.
한 소절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색조감 넘치는 놀라움으로 감탄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풍요롭고 찰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열정만이 그의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블랙홀이나 진공상태가 된 것처럼 모두가
그녀에게 몰입했습니다.
폭넓은 음폭은 가온 음자리를 넘나들었고
셈여림의 조화로움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청아하게 2절의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누군가는 거침없이 앙코르를 외쳤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그녀의 할머니만
굵은 눈물방울을 툭툭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작은 원망이 들어 있는 대견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최고라며 연신 손뼉을 쳤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손녀의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1년 후, 손녀가 음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항라저고리 소맷귀에 또,
자랑스러움으로 물들여진 눈물을 찍어내곤 했습니다.

나를 위한 너의 그림

뜨는 황소 같은 거친 비바람에도
꿋꿋이 깊은 땅속에
심장부터 비집고 들어가
바위틈에 뿌리내리고 있는
너무나도 아련한
한 그루의 나무를 닮고 싶어
머리부터 바위에 부딪혀
빨간 피를 토해 내어 보았지만
아픔은 먹구름이 되어 하늘을 가리고 만다.

온갖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하늘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노란빛의 나무 세상에서
이리저리 세월의 발길질에
차이면 춤추고 업신여기면 노래하며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되고 싶어서
한쪽을 못 쓰는 몸이지만
태양 속에서 춤추는 무용수가 되어 버렸다.

〉
살아온 인생
험난하고 춤추는 꼭두각시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은은한 달빛 한줄기
오염을 못 이겨 물 밖으로 나온
잉어의 눈빛에
비린 서광이 비춰 주길 바라며
나를 위한 너의 그림을 한없이 그린다.

이제부터
거친 세월 속에서 날아오는
돌을 받아 씹어 삼키며
좌절하지 않으리
내 앞에는 너무나 구성진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려 온다.
눈 감고 쫓아가리라
한없이 넓은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세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고라니의 삶이 되리라.

식탁 외 4편

우 정 순

난 늘 이 식탁에서 울며 글을 쓰고
점자를 찍으며 마음을 삭이고
전화를 하며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다.

난 여기서 지난날을 추억하며
깊은 나만의 세상으로 간다.
그리움도 여기에 앉아 있고
서러움도 이곳에서 눈물 병을 채운다.

지금처럼 따가운 햇살이 들어올 땐
등 돌려 외면하고 앉는다.
세상과 단절하고픈 잠깐의 몸짓

세상의 유리 조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뒷걸음질 쳐본다.
그 유리 조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듯 아리고 아리다.

이 식탁은 나의 작은 세상이다.
내 모든 속앓이들이 여기서 녹아내린다.
그래서 난 여기가 좋다.

옛 안압지를 찾아서

수십 년 만에 찾은 안압지는
잘 다듬어진 모양새로 반겨주었다.
정갈한 슈트를 차려입은 듯하였다.
거센 바람으로 꽤나 과격하게 인사를 한다.
고요히 담겨진 물속에선
비단옷 자랑하듯
잉어들이 한껏 힘찬 몸짓으로
일렁거린다.
군데군데 자리 잡은 누각에선
벼루에 담겨진 먹물 냄새와
가얏고를 타던 옛 여인네들의 분 내음들이
바람 타고 춤을 춘다.
세월을 담은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하루의 점을 찍으며
여린 나의 숨결을
흩어 놓고 돌아선다.

망부

못다 한 말들 다 안고서
바람처럼 가버린 사람
먹먹한 안타까운 마음
한 두레박씩 담고 또 담다가 다 쏟아버리네.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그저 다 쏟아버리네!
한없는 허망함의 통곡은 온 우주가 다 비워 버린 듯하여
소리조차 낼 수 없었네.
소리 없는 통곡의 눈물은 어느새 깊은 우물이 되었네.
애증보다 더한 그리움은
희뿌연 물안개로 피어오른다.
그 물안개 사이로 갈바람 소리 나는 여인네 하나
수묵화 되어 서 있구나.
바람처럼 가버린 사람아
당신과의 인연이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
눈물보다 더 아픈 미소로 당신을 보냅니다.

만추의 밤

내 속의 어둠과 섭리 안의 어둠이 교차되는 이 밤
슬금슬금 달아나는 이 순간을 꼭 부여잡고 싶은 밤
밤이슬과 함께 나무도 낙엽들도 다 울게 하는 밤

우리가 기울이는 술잔에도 밤이슬이 슬픔 되어 녹아내린다.
아픈 저 별들의 눈물들이 온 대지에 스며들 때
저 별들과 함께 낙엽 되어 계절 속에 무심히 안겨본다.

고향의 여명

짧아진 햇살의 자리를 대신해 어둠이 내려앉는다.
내 어릴 적 고향 집을 회상한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여자의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일렁거렸다.
소죽을 끓인 아궁이에선
석쇠 위에 고등어가 노릇노릇한 자태를 뽐낸다.
부엌 아궁이에선 된장이 뽀글거렸었다.
분주히 하루를 살아 낸 가족들이 큰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그때의 모습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다.
내 마음은 잔잔함과 허탈이 동무 되어
어둠 속으로 더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곧 여명에 겸손하게 자리를 내어 줄 것이다.
모든 건 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나도 이 속에 함께 묻어나고 있다.

고독했을 시간과 열정에 경외심을

심사를 하면서는 혹시 나의 시선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미숙하여 좋은 작품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럼에도 필자의 고독했을 시간과 열정에 경외심이 든다. 작품이 좋든 나쁘든 글에는 필자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배었을 테니 말이다.

올해 본심에 올린 작품은 동화인 「참새와 허수아비」, 그리고 소설 2편이었다. 「바닥은 오래 간다」와 「꼴랑지가 없오!」

「꼴랑지가 없오!」는 문법이 틀린 데와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 몇 가지만 고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수한 사투리와 해학적인 설정 그리고 이야기 진행이 재미있었다. 우선 내가 박 사장의 프라이드이자 재산인 개를 물어뜯고 싶다면, 나와 박 사장 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갈등 요소가 뚜렷해야 한다. 개가 나만 보면 짖듯이 박 사장 또한 내게 무시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무시하는 걸 박 사장 면전에서는 참았지만 개에게라도 복수할 근거가 된다. 이 글에서 가장 압권인 부분은, 내가 정말로 그 개를 물었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환상적으로 처리한 부분이다.

동화 「참새와 허수아비」는 말하지 않은 여백이 더 좋은 작품이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듣기만 하는 허수아비를 좋아하는 참새 초롱이. 둘의 관계는 사람의 어떤 관계를 대변하면서 또한 사람은 서로에게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보여준다. 혹은 낡고 해진 허수아비의 옷자락 하나에 대해 사람과 비유하여, 쓸모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 같아서 여운이 남는 글이다.

「바닥은 오래 간다」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江이라는 장소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 좋다. 강의 제방 공사를 하다가 잃은 아들로 인해 이문수는 강을 노려보다가 수질이 나빠진 것을 눈치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하는 등의 일로 시청은 발칵 뒤집어졌다. 여기서 시청의 담당 직원인 정훈이 등장한다. 이문수가 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정훈은 지금까지처럼 문제를 덮는 일을 거부했다. 사람들이 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둘의 노력이 결실을 봤지만 그건 임시적이었다. 강바닥에는 다시 독소를 품은 침전물이 다시 쌓이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바닥도 덮이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 강이라는 장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글이라는 점도 좋았다.

모든 응모자분께 감사를 전하며 다음 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이근자 소설가(글), 이민정 아동문학가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배경열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이름보다 먼저 불리는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체장애 4급. 그 말은 언제나 저보다 앞서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제 이름을 따라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이 설명해야 했으며, 아무 이유 없이 포기당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라진 것은 기회였고 남겨진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쉽게 타인을 밀어내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견디며 남겨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제 글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지금도 조용히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바닥은 오래 간다

배 경 열

강은 그에게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문수는 그것이 싫었다.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관사로 삼십오 년을 살았다. 레일 위에서는 같은 얼굴이 가장 위험했다. 진동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 오히려 어딘가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균열을 냄새처럼 맡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죽던 날도 강은 고요했다.

그날은 초여름이었다. 공사 현장은 강의 제방을 확장하는 작업 중이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강은 더 곧게, 더 단단하게 정리되어야 했다. 흙은 트럭에 실려 나갔고, 콘크리트는 물길을 눌렀다. 아들은 현장 관리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아직 서른이 되지 않았다.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비가 예보보다 빨리 쏟아졌다. 임시로 쌓아 둔 흙더미가 물을 머금고 무너졌다. 무너진 것은 흙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사람이 있었다. 구조는 늦었다. 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이문수는 그날 이후 강을 믿지 않았다. 강은 죽음을 숨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수면은 언제나 반짝였고, 사람들은 그 위를 걸었다. 누

구도 아래를 보지 않았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는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강을 노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노는 모양을 잃었다. 남은 것은 습관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강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가끔 난간을 두드렸다. 쇠의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기차의 진동과는 달랐다. 이 강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 것은 위험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흙과 물이 뒤섞인 냄새. 그날 장례식장에서 풍기던 눅눅한 향.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강이 다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마다 조금씩 짙어졌다. 갈대 사이에서, 다리 아래에서, 돌 틈에서 스며 나왔다. 마치 바닥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이문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작업복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얼굴. “괜찮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강으로 나갔다. 냄새는 그를 부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강변 공사 구간을 찾아갔다.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판에는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개선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다.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인지.

그는 펜스 너머를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닥을 보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냄새는 이제 강변을 넘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새벽에 창문

을 열면 은근히 스며들었다. 이문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냄새 속에서 층을 읽으려 했다. 썩은 풀 냄새, 오래된 흙 냄새, 막힌 물 냄새.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다. 시간이 썩는 냄새였다.

그는 마침내 시청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목소리는 정중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철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는 위험 신호였다.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문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강변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같은 장소를 매일 같은 시간에 찍었다. 수면의 색, 갈대의 기울기, 물고기의 움직임. 그리고 냄새를 기록했다. 날짜와 함께, 농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었다. '오늘은 장례식장' '오늘은 젖은 지하실' '오늘은 타지 못한 장작'.

그의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다. 종이 위에 쌓인 단어들은 강의 바닥처럼 층을 이루었다.

그러던 날, 그는 조깅하던 젊은 여자와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말했다.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토한다네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냄새가 아이들에게까지 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피켓을 들었다. '강의 바닥을 조사하라.' 손이 떨렸다. 그는 외치는 대신 서 있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그의 얼굴이 온라인에 올라갔다. 댓글이 달렸다. '예민한 노인' '과장된 주장'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하다.'

이문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강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강의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층이 드러났다. 그 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얼굴은 곧 진흙에 덮였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깨어났을 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강은 오래 흘렀고, 오래 숨겨왔다. 그러나 바닥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는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냄새로 알고 있었다.

시청 본관 7층 회의실은 창이 넓었지만 공기는 탁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다. 멀리서 보면 언제나 맑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하천 퇴적물 조사 중간 검토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어제였다. 정훈은 그 날짜가 벌써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과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다.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고 있고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은 말없이 보고서 14쪽을 펼쳤다. 그래프의 선은 완만했다. 그러나 그는 그 완만함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수치는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기준치는 아직 넘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치는 항상 늦게 도착한다.

"임계점 근접이라는 표현은 과합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다.

"그 단어는 위험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정훈은 시선을 내렸다. 3년 전 다른 하천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 그는 그때 문장을 고쳤다.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여름, 녹조, 폐사, 사과문. 그 모든 것이 한 단어의 삭제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럼 어떤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훈이 물었다.

"지속적 관찰 필요. 관리 강화 검토."

국장은 차분히 말했다.

"위기라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회의는 느리게 흘렀다. 문장 하나를 두고 십 분이 지나갔다. '임계점'은 '주의 단계'로 바뀌었다. '즉각적 조치'는 '단계적 대응'으로 수정되었다. '긴급 예산 재배정'은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이 되었다. 단어가 부드러워질수록 보고서는 온순해졌다. 온순해질수록 책임은 희미해졌다.

정훈은 노트에 메모를 했다. '시간을 늘리는 언어'. 그는 그것이 행정의 기술임을 알고 있었다. 위기를 분산시키고, 문제를 지연시키는 기술. 시간은 가장 큰 완충재였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시장님께서 언론 대응 문구를 요청하십니다."

과장은 곧바로 문장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훈은 그 문장을 들으며 강의 바닥을 떠올렸다. 특이 사항이 없다는 말은, 특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회의가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수정되었고, 결

재선은 길어졌다. 전자결재 시스템 속에서 문서는 위로, 다시 아래로 오갔다. 코멘트가 달렸다. '표현 완화 요망' '근거 자료 보강' '수치 재확인'. 시간은 늘어졌다. 그 사이 냄새는 더 멀리 퍼지고 있었다.

정훈은 저녁 무렵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원본 파일을 열었다. 수정 전 버전. 거기에는 '임계점 근접'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려놓았다. 삭제할 수도, 남겨둘 수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변 인근 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속보다.

그는 원본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별도의 문서를 열었다. 거기에 수정 전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수치와 그래프, 사진까지 첨부했다. 제목은 달지 않았다. 대신 단 한 줄을 썼다.

'행정적 판단과 별개로 과학적 소견을 보고함.'

그는 그것을 내부 감사 시스템과 외부 환경연구원에 동시에 발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경로 이탈이라는 것을. 조직은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시청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자료를 입수했다. '임계점 근접'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올랐다.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국장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훈은 호출되었다.

"왜 별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사이 도시에서는 냄새가 또 다른 국면으로 번지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는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 상가 주인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SNS에서는 '강독성'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언어는 이제 부드럽지 않았다. '은폐' '무능' '책임'.

시장은 긴급 준설을 승인했다. 중장비가 강으로 들어왔다. 바닥이 뒤집혔다. 검은 진흙이 수면 위로 솟구쳤다. 악취는 일시적으로 폭발하듯 퍼졌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강변을 오갔다. 뉴스 화면에는 탁해진 강이 연일 등장했다.

이문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강은 처음으로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보이는구나."

그러나 드러남은 항상 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준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가스가 대량 방출되었다. 인근 지역에 일시적 대피령이 내려졌다. 비난은 더 거세졌다. 왜 미리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정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절차 위반, 보고 체계 무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문장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조직은 그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형식은 자발적이었다. 그러나 선택은 강제에 가까웠다.

몇 달이 지나 강은 다시 맑아 보였다. 냄새는 줄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강을 지날 때, 사람들은 잠시 멈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문수는 다시 난간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바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드러났고, 기록되었고, 기억되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강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진흙이 덮지 않았다. 그는 난간을 두드렸다.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정훈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말했다. “기준치는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보고서를 고치지 않았다. 대신 층을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쌓이는 방식에 대해.

강은 배경이 아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했다. 물 위의 반짝임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어둠까지.

도시는 다시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한 번 드러난 바닥은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드러난 시간은 다시 묻히지 않는다.

강은 말이 없었다. 다만 흘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것들이 천천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다.

준설이 끝났다는 발표가 있던 날, 강은 오히려 더 낮설어 보였다. 수면은 전보다 맑았지만 색이 옅어졌다. 바닥을 긁어낸 자리마다 물의 흐름이 달라졌고, 둔치의 돌들은 엉성하게 드러났다. 강은 한 번 뒤집힌 몸

처럼 어색하게 누워 있었다.

도시는 서서히 냄새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코를 막는 대신, 먼저 강을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다리를 건너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이들은 "여기서 또 냄새 나?"라고 묻곤 했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문수는 퇴원한 뒤에도 새벽 산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은 느려졌다. 그는 예전처럼 강을 노려보지 않았다. 대신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듯이. 준설된 구간에서는 물빛이 조금 달랐다. 그러나 그 아래에 아직 긁히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바닥은 한 번에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아들의 사고 현장 근처에 오래 서 있었다. 콘크리트 제방은 새로 보수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안전 강화 완료'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그 문구를 읽고 천천히 웃었다. 완료라는 말은 늘 과장되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완료는 종결을 의미하지만, 강에는 종결이 없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냄새를 기록하던 수첩이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냄새는 줄었다. 그러나 기억은 남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는 내가 냄새를 맡지 않아도, 누군가는 맡을 것이다.'

도시의 학교에서는 환경 수업이 늘어났다. 강의 사례가 교과서에 실렸다. 사진 속 검은 퇴적물은 선명했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조기 경고 체계의 중요성'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러나 아이들 중 몇은 그해 여름 두통으로 결석했던 기억을 더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장은

여전히 도시를 맴돌았다. 단정은 늘 늦게 도착했다.

상가 주인들은 매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창문을 열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냄새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습관처럼 남았다. SNS에서는 사건을 기억하는 게시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그때를 잊지 말자'는 문장 아래, 강의 사진이 덧붙었다. 반짝이는 수면과, 그 아래를 설명하는 긴 글.

정훈은 대학 강의실에서 한 학기를 마쳤다. 그는 학생들에게 보고서 한 장을 나누어주었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문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학생들은 차이를 읽었다. '임계점 근접'과 '주의 단계'. 그는 물었다.

"어느 문장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학생들은 잠시 망설였다. 정훈이 말했다.

"위험해 보이는 문장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위험을 지연시키는 문장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그때 선생님은 왜 결국 그 문장을 지우지 않으셨나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우면, 내가 먼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강과 도시를 주제로 한 세미나였다. 참여자는 많지 않았지만, 토론은 길었다. 그는 더 이상 결재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밤이 되면, 회의실의 공기와 수정되던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것 또한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이문수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호흡은 예전보다 짧아졌고, 걸음은 느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새벽에 강을 찾았다. 어느 날 그

는 어린 손자가 따라 나왔다. 손자는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할아버지, 강 밑에는 뭐가 있어?"

이문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시간이 있다."

그가 말했다.

"시간이 뭐야?"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들."

손자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수면만이 반짝였다.

그해 겨울, 강은 얼지 않았다. 물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준설된 바닥 위로 새로운 침전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아주 얇은 층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문수도 알고 있었다. 바닥은 늘 다시 시작한다.

도시는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잊어갔다. 새로운 뉴스가 등장했고, 새로운 민원이 접수되었다. 강은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 잠시 멈추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 짧은 멈춤이 남았다.

이문수는 어느 새벽, 평소보다 더 오래 난간에 기대 있었다. 숨이 가빴다. 강은 잔잔했고, 바람은 약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숨겨도 다 알 거다." 그 말은 강에게 하는 말인지, 도시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지 않는 병실이었다.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을 그냥 보지 말고, 아래도 생각해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이문수의 장례식 날, 강은 맑았다. 바람이 약하게 불었다. 조문객 중에는 조깅하던 그 젊은 여자도 있었다. 정훈도 조용히 다녀갔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이문수의 얼굴은 평온했다.

장례가 끝난 뒤, 정훈은 혼자 강변으로 갔다. 난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는 가볍게 두드렸다.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그는 그 진동을 오래 느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준설 이후의 상처는 옅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많아졌다. 그러나 강은 더 이상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바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드러났다가, 다시 쌓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드러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걸음을 옮겼다. 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흘렀다. 그 흐름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상 속 어딘가에, 한 번 드러난 바닥의 기억이 얇게 깔려 있었다.

그 기억은 냄새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다. 도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강은 여전히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질문을 품은 배경이었다.

그리고 질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훈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강을 찾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었고, 강의 수질 보고서를 결재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강가에 서면 여전히 어딘가에 속해 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떠난 자리의 그림자가 물 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봄이 오자 강변에는 다시 축제가 열렸다. 무대가 세워지고, 푸드트럭이 줄지어 섰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우리 도시의 자랑, 깨끗한 강!"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정훈은 군중 속에서 그 문장을 들었다.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다만 그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깨끗한'이라는 형용사가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장이 잘려 나갔는지를.

무대 뒤편에서는 시청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중 몇은 정훈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인사는 짧았고,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 있는 말은 적었다.

그 무렵, 강 상류에서 작은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다. 폐수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일부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우리만 손해 아니냐." 도시의 언어는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다. 안전과 생계, 원칙과 유예, 책임과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겼다.

정훈은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다. 선택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준설은 강을 뒤집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병원에 덜 가게 되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강변을 다시 걷게 되었다. 손익은 표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다.

여름이 되자 강물은 다시 불어났다. 폭우가 며칠 이어졌고,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왔다. 준설된 바닥 위에 진흙이 얇게 덮였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뉴스를 지켜보았다. '또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정훈의 휴대전화에도 메시지가 왔다. 예전 동료였다.

"혹시 이번에 문제 생기면,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정훈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보고서 사본을 펼쳤다.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한때는 이 문장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문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결국 짧게 답했다.

"상황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폭우는 사흘 만에 그쳤다. 강은 범람하지 않았다. 수치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언론은 안도의 논조로 보도했다. '선제적 조치의 효과' 그 문장은 칭찬처럼 들렸다. 정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을 보며, 그는 시간의 속도를 생각했다. 위험이 드러날 때는 느렸고, 안심을 말할 때는 빨랐다.

그해 가을,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이 끝난 날, 아이는 이문수가 남긴 수첩을 들고 와 정훈에게 보여주었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정리하다가 정훈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이거 꼭 읽어보래요."

정훈은 수첩을 펼쳤다. 날짜와 시간, 바람의 방향, 냄새의 강도,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어떤 날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아무 냄새도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정훈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

았다.

그는 수첩을 아이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왜요?"

"기록은 이어지는 거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기보다는, 어른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 태도 속에 작은 씨앗이 심기는 것을 정훈은 느꼈다.

몇 해가 더 흘렀다. 강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에 몰두했고, 냄새 사건은 교과서의 한 단락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예산안에는 매년 '하천 바닥 모니터링' 항목이 빠지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행정 문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정훈은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도 달라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결정은 순간이지만, 여파는 길다." 학생들은 그 말을 적었다. 누군가는 깊이 새겼고, 누군가는 시험 범위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문장은 또 다른 시간으로 흘러갔다.

어느 늦은 오후, 정훈은 혼자 강가를 걸었다. 햇빛이 낮게 기울어 물 위에 길게 번졌다. 그는 난간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둔치에 내려가 흙을 한 줌 집어 들었다. 흙은 부드러웠다.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생각했다. 바닥은 단지 강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에게도 바닥이 있다. 한 번 드러난 바닥은 다시 덮을 수는 있어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날의 결재도, 이문수가 새벽마다 맡았던 냄새도, 도시가 한동안 숨을 참았던 기억도 모두 어디엔가 남아 있다.

강 위로 바람이 스쳤다.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정훈은 알고 있었다. 평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바닥은 늘 시간을 쌓고, 사람은 그 위를 걷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은 여전히 흘렀고, 도시는 그 곁에서 숨 쉬었다. 해결은 없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일상의 표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동화〉

참새와 허수아비

김 인 성

넓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밀밭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곳에서 마치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렀고, 계절은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길 잃은 나그네처럼 들판을 스쳐 지나갔고, 햇살은 금빛 실을 풀어 놓듯 밀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밀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파도처럼 일렁였고, 그 모습은 마치 땅 위에 펼쳐진 바다가 숨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들판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기둥 위에 묶여 있었고, 몸은 마른 짚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헝겊은 바람에 닳아 가장자리가 해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덧댄 흔적들이 시간의 층처럼 겹쳐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비와 바람에 씻겨 내려가 이제는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을 잊어버린 하늘처럼 비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들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을 혼자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존재처럼.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막 눈을 뜬 듯 부드럽게 퍼지던 시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들판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초롱이였습니다. 초롱이는 호기심이 많아 바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을 가진 새였습니다.

"여긴 처음 보는 곳이네!"

그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와, 여긴 엄청 넓다."

그의 눈은 반짝이는 구슬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허수아비를 발견했습니다.

"어? 저건 뭐지?"

초롱이는 날갯짓을 천천히 줄이며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오래 알고 있던 자리처럼 편안했습니다.

"안녕? 나는 초롱이라고 해."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허수아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야?"

잠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초롱이는 금세 웃었습니다.

"아, 말 못 하는구나. 괜찮아. 내가 말하면 되지."

그는 그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 바람을 따라 멀리 날아갔던 날, 비를 일부러 맞았던 이야기까지.

말은 계속 이어졌고, 허수아비는 그 이야기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빈 그릇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롱이는 매일 들판을 찾았습니다.

"나 또 왔어. 오늘은 말이야, 엄청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가끔은 이유 없이 기분이 이상할 때도 있어."

그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꽃잎을 물어왔습니다.

"이거 너 줄게. 예쁘지?"

허수아비의 어깨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까."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계절은 색을 바꾸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허수아비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헝겊이 바스락거리며 울었습니다.

"너 혹시 힘든 거야?"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었습니다. 짚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초롱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게 네 대답이구나."

그는 허수아비의 어깨를 살짝 쪼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매일 올게."

그날 이후로 초롱이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좀 속상했어. 친구가 나한테 화를 냈거든.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

그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허수아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존재처럼.

가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가 차츰차츰 빛을 잃어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공기는 마른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건 누구지?"

초롱이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멈췄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허수아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초롱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둬!"

그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건 내 친구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허수아비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짚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짚이 쏟아지고 헝겊이 떨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초롱이는 그 위를 맴돌며 울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다시 조용해졌고, 바람만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들판은 하얀 침묵으로 덮였습니다. 초롱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그 자리에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 너구나."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늦었지."

바람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그래도 왔어."

그는 헝겊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알아. 넌 없어지지 않았어."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판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초롱이는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니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날아가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안녕."

그리고 헝겊 조각을 묶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이야기해도 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여기 친구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은 못 했는데…. 다 듣고 있었어."

헝겊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초롱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알아. 사라지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는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거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계속 올 거야."

바람이 들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밀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초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야 해. 내 이야기 길거든."

그날 이후로 초롱이는 계속 들판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조용해졌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들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햇살은 여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초롱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과 함께,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소설〉

꼴랑지가 없소!

최 세 환

아침 일찍 핸드폰이 성질 급하게 몸통을 울렸다.

콧바람 소리가 빳빳하게 굳어서 뛰쳐나올 것 같았다.

"여, 여보쇼, 나요 나, 박 사장이요."

"어쩐 일이요, 이른 아침에."

나는 술 냄새 풍기는 목소리를 토하며 전화를 받았다.

"나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요. 아침 운동 시킬라고 '락'한테 갔는디, 개가 몰똥몰똥 쳐다봄시롱 엎어졌기에, 본께, 코에 피가 뭉쳐 있고 살점이 떨어질 것같이 덜렁덜렁하요. 세상에, 뭣이 다 개 코를 물어 분다요? 근다고 사람이 개를, 아니 개 코를 물어 불어라. 원매, 나 미쳐 불겄소. 어찌게 할까잉. 어쩌면 쓰것소? 우리 '락'이 죽것어야."

박 사장의 안타까움과 조급한 목소리가 냅다 전화 수화기를 때렸다.

머리를 거머쥐고 덜덜 떨고 있는지 박 사장의 울부짖는 소리가 고장 난 경운기의 푸시 푹, 푹푹 소리를 내면서 일어설 듯 주저앉은 절망적인 쉰 소리가 아침을 쫙쫙 찢고 있었다.

"뭣이라! 개가 코를 물어 불었어라. 박 사장 코가 덜렁덜렁한다고라.

큰일 났소. 언능 가까운 외과 병원부터 가보쇼."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만지며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사장님, 뭔, 소리요. 니기미, 내가 아니고 우리 '락'이 코를 물려 죽게 됐단 말이요, 정말로 니기미, 예잇. 퉤."

어젯밤 박 사장 집에서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 모두 술에 취했고 박 시장은 그랬고 나는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개장을 가다, 그렇지 누군가 개장에서, 기억을 찾아 자리를 펴고 시간으로 빠져들어 갈 때 개 짖는 소리가 나의 우중충한 머리를 사정없이 잡아끌면서 어젯밤 쌓인 눈 속으로 힘껏 밀쳐 넣었다.

"어제 밤 내가 술을 많이 했고……, 원메! 그랬나 보네. 누굴까."

내가 사업 관계로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돈 자랑 개 자랑이 세상사는 재미 중 제일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탁상시계 시침같이 짧은 키에 정력에 좋은 것 찾아 전국 뒷골목을 쑤시고 짧은 머리에 하얀 벨트가 나온 배를 옥죄지 못해 항상 힘들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개를 무척 좋아한다고 스스로 말 하나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것들은 개가, 아니고 먹는 음식이여."

그는 애완견이나 진돗개 종류의 개에 대해서는 우선 침부터 흘린다. 보신탕을 무척 사랑하여 주일에 서너 번 정도 포식을 한다. 여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천엽이랍시고 누렁이 한 마리 잡아 개천에 솥단지 얹어 놓고 술을 즐기던 사람이다.

자기 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서 그 녀석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그가 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딴전을 피우고 땅을 내려다보며 입을 삐쭉거리곤 했다.

모처럼 시내를 나가니 나도 모르는 소문이 날아다녔다. 박 사장이 나를 포함한 가까운 몇몇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떨어진 매화꽃 가지에 걸려 뱅글뱅글 돌아쳤다.

무슨 일일까? 박 사장 집에 초청받아 집 구경하고 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초청하는 냄새가 소록소록 콧구멍을 자극했다.

개 자랑하려는 그의 속내가 싫어서 내키지 않았으나 승낙에 마음을 얹혔다. 며칠 후 초대 받은 지인들이 박 사장 집에 모여 자기 개인 양 칭찬 일색이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박 사장을 하이 박 사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도베르만을 좋아하는 히틀러를 독일 국민이 그에게 경례할 때 하이 히틀러라 불렀기에 자기도 도베르만을 좋아하니 하이 박 사장하며 불러달라고 했다.

하이 박 사장 칭호를 받은 박 사장은 신이 나서 발정 난 암캐가 담장을 넘어 천방지축 동네를 돌며 수캐를 모으듯 개 자랑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박 사장의 흥타령을 볼 수 있었는데 술기 오른 사람이 불쑥 엉덩이를 까발리며 쨍그렁 접시 깨지는 소리로 꼬리 없이 혀 짧은 말을 던졌다.

"근디, 그 개 꼴랑지 짤라 부렀소, 꼴랑지가 없읍디다."

잠깐 침묵이 방바닥을 기었다.

"이 개는 꼴랑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매력이요."

개에 대해서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하는 거만한 태도로 박 사장은 상

대방의 말을 받아 꿀꺽 삼키려다 한마디 들어 냅다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튼튼한 쇠줄로 고리 채워진 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알았는지 하마가 없는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없는 꼬리를 볼품없이 흔들었다.

풀쩍 풀쩍 뛰는 모습이 외모로 풍기는 자기의 차가운 잔인성을 공중으로 튕겨버리면서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았다. 박 사장 품에 안기며 애교도 부렸다. 박 사장이 사들인 개 이름을 '락'이라 이름 지었다며 배를 내밀며 뒷짐 지고 말할 때 내가 본 '락'은 영락없이 못생긴 돌하르방이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박 사장 집을 나서려 할 때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개 녀석이 나를 보고 갑자기 날카롭고 누런 이를 자랑하며 콧구멍을 벌렁벌렁 열고 달려들면서 성질 자랑 힘자랑을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당황하여 구두 한 짝 멀리 차고 엎어지며 "아이고" 소리 마당으로 떨어져 뒹굴고, 구경하던 양반들 이몽룡 출두에 변사도 도망치듯 혼비백산 호박죽 엎어지듯 엎어졌다.

여하튼 박 사장 집에 새로 들어온 자칭 명견이라는 '락'과의 대면은 수색견에 쫓기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었다. 찝찝한 첫 대면이었다.

그 후 '락'은 각종 도그 쇼에 출전하여 입상 함으로써 박 사장의 나온 똥배를 더욱 내밀며 민머리에 갓끈을 매게 만들었다.

기 살아난 박 사장은 흰 바지를 더 나풀거렸고 백구두는 피곤을 멀리 차면서 번들거렸고 하얀 벨트는 튀어나온 배를 빵빵하게 조여 살찐 엉

덩이가 묘하게 씰룩거렸다.

그날 이후로도 '락'은 무슨 영문인지 나만 보면 미친개가 되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니 나 또한 슬슬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서 '락'을 찾아갔다. 내 손에 들린 고깃덩이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락, 너랑 친해지고 싶은디, 왜 나만 보면 죽일 듯 뎀비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말해 봐, 말해 보랑께."

고깃덩이에 관심 없이 누런 이에 거품 물며 눈에 쌍불을 켜고 땅을 차고 덤벼들면서

'매논 줄만 없으면 너 넙떡지 폴시케 한입인데, 에이, 이놈의 줄 정말 미치겠어.'

'락'은 상처 난 사타구니에 알콜을 끼얹어 쓰라림을 억제 못 한 우리 동네 개똥이가 펄떡펄떡 뛰며 악쓴 것처럼 풀쩍풀쩍 뛰면서 철창을 송두리째 토막내 씹어먹을 듯 격한 행동을 나타냈다.

나에게 용트림하며 덤벼든 모습에서 그의 숨겨진 흉포함이 싸늘하게 내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무서움을 느꼈다. 나는 온몸을 몸서리치며 좁쌀 같은 돌기들이 창끝을 세우는 것을 보았다. 무서움에 개와 같은 모습으로 '락'을 향해 독수리 눈으로 부릅뜨고 입으로는 으르렁 독기를 내뱉으며 땅에 두 팔을 짚었다.

등에서는 소름 돋는 두려움이 땀으로 나왔다.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한참을 개와 머리끝이 솟구치는 치열한 싸움을 했다. 그때 나의 내면 깊은 곳을 찢으면서 분출되는 어떤 따뜻함이 나를 평안함으로 이끌었다.

분출된 따뜻함은 등골 오싹함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그것은 내 눈앞에서 표독스럽게 사나운 모습으로 나와 싸우고 있는 개의 야수성보다 더 심한 나의 잔인한 원시성이 싸늘하게 움직였다.

동물들도 생각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락'이 나에게만 더욱 난폭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은 자기 주인에 대한 내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

나는 쾌감이나 불쾌감의 느낌은 의식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고 의식에 선행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느낌이 의식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려놓으려고 깐엔 열심이다. 박 사장 관계에서도 남들이 나를 이해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박 사장이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절대적으로 그를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그런 마음을 '락'이 알고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

그러하다면 만남이란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어떻게 만나느냐가 실로 얼마나 중요한지, 흑인이 노예가 된 것은 백인들과의 끔찍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총으로 무장한 백인들을 만나기 전 인디언들이 자유인이었듯이 흑인 역시 자유인이었다. 혹 백인들을 만났다 치더라도 백인들을 피할 수 있었다면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이 시대도 인종차별은 있을지라도 백인들이 흑인을 사고팔고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조건이나 관계 속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

고 어떤 조건에 기대어 존재한다. 흑인이 노예가 된 것은 흑인의 동물적 본성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총을 든 백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특정한 관계가 있었다. 모든 흑인이 노예가 된 것은 아니다.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이처럼 '락'의 문제도 그런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박 사장을 만나지 않고 좀 더 인격적으로 세련되고 온화한 사람을 만났다면 어찌 됐을까.

여하튼 간에 박 사장을 싫어한 분위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고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싫음이 누룩을 먹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락'으로 옮겨 퍼지는 분위기였다.

그날 '락'과 치열한 전투에서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성을 넘어선 야수성과 폭력성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개가 조금 뒷걸음질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야수성은 희열을 동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락'과의 전투를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굴복시킬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다. 몇 차례 더 박 사장 집을 찾아가서 '락'의 상태를 관찰했다.

일 차 전투 후 예전과 다르게 '락'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락'은 없는 꼬리를 감추며 누런 이를 내놓고 입술을 위아래로 꼬며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그런 모습은 동물 세계에서 굴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가 개를 키워 봄과 동물 심리를 다룬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금 '락'은 나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락'이 나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어쭈, 저놈 봐라. 너는 이제 나한테 딱 걸렸다. 주인 앞이라고 괜히 공

갈치지 말어잉. 개놈의 새끼.'

나는 며칠간 개들의 특성과 결정적인 약점을 더 공부했다. 개들의 약점을 파악한 후 나의 야수성이 즐거운 춤을 추며 내면에서 뒹굴며 꽹과리를 치며 연신 히죽거렸다.

한동안 잠잠하던 박 사장이 집도 수리하고 '락'의 새 보금자리도 마련했다며 이웃 도시 지인들까지 집으로 초청하는 제법 큰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주길 전해왔다. 나는 참여 의사를 적극 표시했다.

그날은 날씨가 흐리면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 모여 걸쭉한 입담들과 웃음으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산뜻한 분위기와 내음이 꼬리를 감추고 영업상 필요한 웃음만 빈 깡통 안에서 이리 저리 박 사장을 따라다녔다.

"이번에 또 우리 '락'이 전국 외래견 품평회에서 일등을 했소. 아, 인자 전국 각지에서 사인를 받자고 난리요, 난리."

박 사장은 '락' 자랑을 참질 못하고 몇 잔술이 목을 타고 들어가니 '락'은 땅을 날고 하늘을 기어 다닌다고 자랑을 시작했다.

"그라믄 한번 장가 보내는디 얼마씩 한다요?"

일행 중 한 사람이 박 사장의 의중을 알고 뼈있는 말투로 물어 봤다.

"음, 암컷은 족보를 보고 엄선해서 백만 원은 받아야지라, 새끼도 한 마리씩 받고."

박 사장이 나온 배를 두드리며 하는 말에 모두들 거나케 취한 입 다물 새 없이 말이 줄줄 새면서 흥건하게 흘렀다.

"그렇게 비싸요."

개는 정력이 좋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장가가면 4백만 원 그리고 새

끼도 한 마리씩 받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 소득 면에서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혼란스러움이 술기운을 먹어버린 듯 한동안 방 안 공기가 싸늘함을 나는 느꼈다.

술자리는 깊어지고 머리가 떨어져 빙글빙글 도는 이야기가 벽을 타고 천장에서 춤을 추는 시간, 나는 몇 잔의 술을 거푸 들이켰다. 속을 데운 술기운은 주저주저하는 나의 뒷머리를 잡아끌었다. 매우 위험하나 개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골라 연습한 대로 오늘 밤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린 타악기가 되어갔다. 큰 칼 쥔 망나니같이 내 마음은 칼에 물 뿌리며 내 발걸음이 개를 향하도록 의식을 조정하고 있었다. 나는 취한 눈을 부릅뜨고 독한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너는 개일 뿐이야, 너 오늘 가는 날이야. 나는 사람이여, 이 개놈의 새끼.'

나는 술기운을 채찍질하며 전의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락'의 도도한 자세를 돋보이게 하는 찢어진 듯 날카롭게 하늘을 향한 두 귀와 자기 주인의 짧은 머리카락을 닮은 짧은 털을 생각하니 어금니에 절로 힘이 생기며 부르르 몸이 떨렸다. 이때, 누군가 조용한 목소리로 박 사장을 불렀다.

"사장님, 우리 주위에 보기 좋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개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살벌한 개를 좋아하고 자랑하는지 궁금하요."

그 소리는 덜커덩 방 안의 분위기를 잡아채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 꾸중하는 아버지 소리 같았다. 박 사장은 들고 있던 술잔을 입에 털어 넣고 싱거운 듯 먼 산을 쳐다보며 한마디 뱉었다.

"나는 진돗개같이 온순한 개를 싫어하요. 외적으로 살벌하고 좀 더 잔인성이 보여야제, 진돗개 너무 얌전해.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

초대받은 사람들이 '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을 인식한 박 사장은 '락'의 가치를 우리들과 비교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나는 주저할 필요를 못 느껴 집에서 수십 번 반복한 연습을 취한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흔들어 보았다. 재빨리 손을 뻗어 '락'의 턱밑에 넣어 마사지 공격을 한다. 그때 락은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입은 헤벌리고 눈은 게슴츠레 뜨고 오줌을 찔끔찔끔 쌀 것이다. 명견의 위용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며 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두 손으로 주둥이를 힘껏 감싸 안을 것이다. 물론, 자칭 명견은 아늑한 꿈을 깨면서 깜짝 놀라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 나는 그때 눈 질끈 감고 턱에 힘껏 힘주어 독기 오른 사람의 이빨로 '락'의 치명적 약점인 곳을 물어 버릴 것이다. 아마 이놈은 이렇게 주인을 부르며 상상할 수 없는 곳을 공격당한 두려움과 아픈 곳을 잡고 뒹굴겠지.

"끼깅, 아이고 나 죽네, 주인 양반 내 자랑 그만하고 나 좀 살려주쇼, 이랄 때 나를 살리는 것 아니요? 원매, 죽겄는거."

방 안의 달짝지근한 냄새와 완전히 분리된 눈 내리는 어둠의 공간에서 거사를 즐기는 긴장의 떨림은 묘한 들뜸을 가져왔다. 나는 취한 술잔에서 마음을 건져내고 개장을 주시하며 걸어갔다. 내가 비틀거리는지 땅이 비틀거리는지 속이 울렁거리고 무엇인가 쏟아내야 살 것 같았다. 모서리를 막 돌아서는데 기어이 속을 박차고 쏟아져 나왔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 개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것인지 개집이 흔들리는 것인지 개장 안에서 두 물체가 시커먼 그림자를 보듬고 씩씩거리면서 뒹굴고 있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으나 개장이 있는 곳을 실눈을 뜨고 보니 틀림없이 둘이 부둥켜안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저것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이여, 급히 눈발을 헤치고 가는 걸음이 비틀거리더니 심술궂은 땅이 내 바짓가랑이 자락을 잡아챘다. 나는 김흥국의 호랑나비 춤을 추다 벌러덩 덜썩 눈길에 엎어졌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해야 돼, 누구인지 몰라도 내가 해야 돼."

일어나 뒹굴고 또 일어나 뒹굴고 염병할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닌 듯 자기 마음대로 나를 눈밭에 굴리며 즐기고 있었다.

쌓인 눈 위에 누워 있으니 토한 속은 안정을 찾고 예쁜 딸의 얼굴이 되어 내리는 눈꽃은 내 모습이 재미있는지 얼굴을 만지며 흘러내렸다.

'아빠, 우는 건 아니지, 술 조금씩 먹어. 엄마가 걱정해.'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순간이나마 무척 행복했다.

눈은 소록소록 내리며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가 헉헉거린 숨을 몰아쉬고 내 옆에 서서 중얼거렸다.

"괜찮소? 어디 다친 데 없소. 개놈의 새끼. 명견 좋아하네, 꼭 지 주인 같이 폴딱폴딱 뛰고, 나만 보면 짖고 염병 난리여, 앞으로 저것 힘 못 쓸 것이오. 내가 혼내놨응게."

눈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서 있는 사람을 보려 했으나 쏟아지는 눈발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양손을 휘젓고 내 주위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알라딘 램프에서 나온 나의 충실한 종이 내 뜻을 알고 적을 물리치고

나를 안심시킨 후 램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눈 오는 밤, 밖에서는 우당탕 분명 큰일이 벌어졌는데 박 사장의 '락' 자랑으로 깃발 펄럭이던 방 안, 이제는 술잔 속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진 웃음들이 서로 비비면서 막판을 향해 머리에 맨 넥타이가 춤을 추고 있었다.

밖은 어둠이 문풍지 자락을 붙들고 눈발들을 품에 안고 깊은 시간 속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목 틀려 빈병이 된 소주병들이 뒹굴기 시작했다. 제법 귀티 나게 몸 꼬며 '똑' 단 한마디 비명 지르고 이내 사람 몇 놈 죽일 화냥기 발산하며 치마를 펼치듯 고급스런 향으로 순식간에 방 안을 접수했던 양주병도 박 사장 턱 밑에서 한국말로 구시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내 의식을 평행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들고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끊어지고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구 양 사장은 밥뚜껑 술잔을 주고받으며 몸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것도 보이고, 꼬꾸라져 엎어진 김 사장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얼굴에 발 올려놓고 배 긁으며 냠냠거리고, 넥타이를 머리에 맨 사람, 방 귀퉁이에 눈감고 입 헤벌리고 희죽거리며 귀신과 대화하는지 연신 중얼거리는 사람 요지경 속이었다. 내 속으로 경멸하고 있는 하이 박 사장이 취한 내 머릿속을 '락'이 되어 물어뜯을 것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나도 얼른 개같이 엎드려 으르렁거렸다.

사실 박 사장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난한 똘마니들의 수입과 앞으로 이루어질 '락'의 수입을 비교하고 있었다.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며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속으로 외치며 양주잔을 돌리고 있는 판이었다.

내 술 취한 모습에 한마디 던진 후 거나하게 웃으며 잔을 비우고 뒤뚱거리며 똘마니들에게 잔을 돌렸다.

"최 사장도 술 취한께, 개랑 똑같구만."

박 사장은 '락'이라는 단순 무식형의 개를 앞세워 자기 자랑과 경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박 사장 집에서 술판이 어떻게 끝난 줄 모른다. 알콜에 흠뻑 젖은 몸뚱이를 택시에 맡긴 채 집을 향했다.

"어이쿠, 많이 취했네요. 어디로 갈까요?"

기사 양반이 행선지를 물었다.

"돌 고개로 갑시다. 박 사장, 이 친구 재미있는 사람이여. '락' 명견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나저나 왜 이리 입주댕이가 아프다냐, 그라고 누굴까, 누굴까, 누구…, 누…"

나는 깊은 잠 속으로 떨어졌고 꿈속으로 들어갔다.

언젠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본 야생 동물들의 삶의 경건함이 떠올랐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 삶이 너무나 겸손하고 소박함에 나를 뒤돌아보게 했다. 상처 입은 짐승은 모든 것의 눈을 피해 조용히 엎드려 자신을 치료한다. 창조주가 부여한 치유의 시간을 믿고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다시 뛰어 놀 산천을 마음에 품고 기다린다. 그러다

자연이 부르면 자연의 품으로 초원이 부르면 초원으로 간다. 초원으로 간 그는 동료들과 어울려 창조주가 내려준 실존의 영역에서 욕심 없이 뜯고 먹고 잠을 잔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고 한겨울을 이겨낸 새싹들의 강인함을 볼 땐 어떤 생명도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될 때 생명들의 신비로움과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는 마음,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를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세상을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피우며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사는 사람도 있다.

박 사장이 '락'을 데리고 도그 쇼에 참석하여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락'이 나를 보고 뛰어오는데 코가 덜렁거리고 피를 뿌리며 누런 이를 보이며 죽일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죽을힘을 다해서 나는 뛰었으나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물어, 물어버려."

박 사장도 뛰어오면서 눈을 부리면서 악을 썼다. 그때 '락'이 훌쩍 뛰어 내 엉덩이를 덥썩 물었다.

"아이고, 박 사장! 나 좀 살려줘, 아이고매."

나는 박 사장을 불으며 악을 썼다.

"아저씨, 먼 일이요. 꿈꾸셨오, 거의 집 근방에 온 것 같소. 눈이 많이 오요, 조심허쇼."

어젯밤 박 사장 집에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방금 박 사장 전화에 내용은 '락'이 코를 다쳐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 어젯밤 큰일을 당했을 '락'이 이제사 걱정스럽게 떠오르며 '락'을 생각했다. 그는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고 내리는 눈을 보면서 사람의 이빨에 물려서 아픈 곳을 만지며 만만하게 봤던 사람의 전투력에 놀라 조용히 엎드려 있을 것이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했어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한 패배의 치욕을 감추려는 것같이 없는 꼬리를 더욱 깊이 내려 숨기고 있을 것이다.

개장 안은 자칭 명견의 아픈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듯 내리는 눈이 쌓이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것이 뭔 일이여. 그 사람이 내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랬는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당가?'

'락'은 그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시상대 위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쳐들었던 고개를 떨어뜨릴 것이다. 측은했다. 지금 자칭 명견이라는 '락'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락'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 회복해서 일어나야 한다. 창조주가 부여한 자유의 시간을 믿고 일어서야 한다. 주인의 덕망스럽지 못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당한 일이다. 개의 최대 약점은 코다. 그 사람은 어떻게 코를 물었을까? 그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잡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 생각을 여기서 접자. 곧 나타나겠지 뭐."

곧이어 궁금증이 뱅글뱅글 돌면서 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다. 누굴 싫어할까?

박 사장인가 '락'인가? 나는 왜 '락'을 싫어할까? 누구일까? 내 입술은 왜 터졌을까?

어제 저녁 화장실 가는 길에 '락'과 함께 뒹굴던 그것은 야생 짐승이었을까? 아님 알라딘의 램프 속에서 나온 마술사였을까?

생각을 되새기며 실눈으로 과녁을 향해 의식을 쏘아 댔으나 누구 하나 맞추지 못하고 하늘로 핑핑 날아가고 땅으로 처박혔다. 지끈거린 머리를 상큼한 기운이 만지며 지나갔다.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빛이 들어와 눈을 떴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는 범인을 찾고 있을까?

'락'이 무엇인가에 코를 물린 것이 사실이고 박 사장이 싫어 그 미움이 '락'으로 옮겨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락'을 향해 괴롭힘이라는 장난감을 던져놓고 즐기고 있었다. '락'은 자기 주인에게 충실했을 뿐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본성이 변하는 유연성으로 자신을 지키고 주인을 지켰다.

한 그루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서 있다. 우리는 단풍 든 은행나무의 멋진 모습만 이야기한다. 즉 동일성만 이야기한다. 동일성은 획일성을 강조하며 획일성은 창의력을 상실한다.

단풍 든 은행잎을 주워 보자. 각기 모양 색상 크기 모든 것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한다. 배려는 자비고 자비는 사랑이다. 우리 인간이 베푼 사랑은 다툼이 있다. 다툼이

없는 사랑, 신이 베푼 사랑 즉 아가페 사랑만이 절대 사랑이다.

배려하는 마음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박 사장도 이제부터 '락'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려하며 '락'과 생활해야 한다.

나 또한 '락'에게 용서를 빌며 그를 사랑해야 한다.

건강을 되찾은 '락'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와 함께 뛰어 놀아야 한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어젯밤처럼 펑펑 눈이 내리며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다.

《연 혁》

1992. 10. 17. 볼런티어센터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 창립멤버 8명이 임시 모임에 참석하다.
(이흥렬, 정연욱, 황종성, 이병언, 정재한 등)

1993. 2. 27. 수성구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창립식을 가졌다.

1993. 10. 30. 두류야구장에서 한마음운동추진회 주최 한마음어울대회에 우리 회원이 참가, 작품전과 각종 경기에 참석하여 대회를 빛냈다.

1994. 5. 5.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1주년 및 민들레 창간호 출판기념회를 가짐과 동시에 한마음운동추진회와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1995. 5. 25.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2주년 및 민들레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1995. 7. 21. 경산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장애인문인협회 주최 제1회 장애인문인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여 5개 단체 120여 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일간)

1996. 5. 11. 황금복지관 강당에서 창립 3주년 및 민들레 3호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1996. 12. 14.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예총대구지회 주최 제3회 겨울문학제 동인지 콘테스트 및 전시회가 열려 민들레가 장려상의 영광을 안았다.

1997. 5. 17. 민들레 4호 출판기념식 및 작품상 시상식을 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졌다.

1998. 5. 16. 민들레 6호 출판기념식 및 작품상 시상식을 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졌다.

1999. 5. 29. 민들레 6호 출판기념식 및 제1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이 황금동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마당에서 가졌다.

2000. 6. 3. 민들레 7호 출판식 및 제2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이 대구파동장애

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아울러 전임 지회장 이흥렬 회장님과 김금철 신임회장님의 이 · 취임식이 있었다.

2001. 5. 26. 민들레 8호 출판기념식 및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파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하다.

2002. 5. 25. 민들레 9호 출판기념식과 제4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하다.

2003. 1. 2003년 1월에 장애인문인협회 경북지회가 창립되므로 인해 한국장애인 대구 · 경북지회가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4. 5. 29. 민들레 11호 출판기념식 및 제6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했다.

2005. 5. 10. 초대 지회장을 지낸 이흥렬 회장님이 김금철 지회장으로부터 다시 지회장직을 승계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대구 · 경북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5. 6. 4. 민들레 12호 출판기념식 및 제7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행했다.

2006. 6. 17.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문학클래식 창간 출판기념식 및 제8회 청민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김금철 회장님과 이흥렬 회장님의 이 · 취임식을 가졌다.

2006. 11. 25.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 경북지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행사가 경대 후문 앞 네오호프집에서 열려 약 400명의 손님이 다녀갔다.

2006 12. 28. 대구동서라이온스 355-C지구에서 청민문학상 상금 전액을 후원받기로 결정했다.

2007. 5. 19.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14호 출판기념식 및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가 '한국민들레장애인문인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청민문학상'은 '민들레문학상'으로 변경되었다.

2007. 11. 25. 대구 백록담호프집에서 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집을 열어 약 300명의 손님이 다녀갔다.

2007. 12. 9. 대구푸른방송 소강당에서 장애인문예진흥회 주최 우리 회원들의 작품으로 시 낭송과 안무를 겸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이흥렬 회장님이 직접 발가락으로 키보드 연주를 하면서 시 낭송을 했다.

2008. 1. 19. 서울 〈문학세계〉에서 개최한 세계문인협회 창단식에 이흥렬 회장님이 한국 시인 200명 선에 발탁되어 내빈으로 참석하여 우리 협회의 기상도 높이고 많은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왔다.

2008. 5. 3.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기념식 및 민들레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8. 10. 30. 포항대보중학교에서 대구경한라이온스협회로부터 휠체어 두 대를 전달받았다.

2008. 11. 4. 대구경한라이온스로부터 전달받은 휠체어 두 대를 경북밀알에 기증했다.

2008. 11. 27. '백두대간'에서 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행사를 가졌다.

2009. 1. 16. 우리 협회 이사로 계시는 박종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벤처기업 신독엔지니어링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2009. 1. 부천에 계시는 구미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양말 한 박스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09. 5. 23.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기념식 및 시상식을 거행했으며, 이날 행사에 동서라이온스, 신독엔지어링, 한민복지재단, 성당노인종합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음과 동시에 자매결연 패를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2009. 9. 18.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시화전시회를 겸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2009. 9. 대구경한라이온스로부터 휠체어 5대를 전달받아서 각 기관 및 개인에서 전달했다.

2009. 12. 30. 대구 동서라이온스에서 시상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010. 1. 29. 협회 사무실을 포항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2010. 5. 22.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2010. 10. 23. 대구대명교회에서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 낭송회 및 음악공연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우리 협회의 이미지를 알리기도 했으며 또한 회장님의 시 「그리움」이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가곡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2011. 5. 21.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문학상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1. 7. 7. 이흥렬 회장님께서 솟대를 빛낸 얼굴로 선정,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았다.

2011. 10. 29. 대구대명교회 하늘소풍에서 기금마련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CTS 서울 기독교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다.

2012. 3~12.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계약체결 이흥렬 회장님 문학 강의를 진행했다.

2012. 10. 26. 대구대명교회에서 기금마련 일일찻집 행사를 했다.

2013. 4. 13. 민들레 봉사단이 창단되어 민들레 봉사단 발대식을 수성구 시지동 고산교회에서 가졌다.

2013. 1. 23. 한국민들레장애인문인협회가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로 명칭을 바꾸어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았다.

2013. 1. 24.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2013. 4. 13. 민들레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2013. 5. 25. 국제라이온스클럽회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어려운 장애인 여섯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3. 10. 26. 대명교회에서 민들레기금마련 일일찻집 및 바자회 행사를 했다.

이날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4. 5. 24. 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다섯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4. 10. 11. 대명교회에서 민들레 기금마련 일일찻집 및 바자회 행사를 했다.

2013. 3.~2014. 11. 협회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회장님의 문학 강의가 있었다.

2015. 3.~2016. 현재 회장님 자택에서 문학 강의 진행 중.

2008. 7.~2015. 현재 헌 옷 나누기와 책 나누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후원을 통하여 회원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협회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08. 7.~2017. 현재 ≪민들레 향기≫ 월간지 발간 진행 중.

2010. 3.~2014. 12.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민들레회원 문학 토론 모임을 진행.

2015. 5. 22.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6. 6. 3.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출판식 및 민들레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6. 8. 우리 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가짐.

2016. 10. 13. 우리 단체와 금호녹색환경단체. 재능시 낭송가협회. 3개 단체가 연합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시민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시 낭송회를 가졌다.

2015. 3.~2018. 현재 매월 둘째, 넷째 문학 강의 셋째 목요일 문학 토론 모임 진행 중.

2013. 2.~2018. 현재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을 위한 땅 사기 운동 진행 중. 부스러기 장학금 모으기.

2018. 4. 21.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민들레 25호 출판식 및 20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8. 8. 5. 이흥렬 회장님이 등단한 곳 천우미디어 출판《월간 문학세계》에서 편집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2018. 10. 27. 두류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화전 낭송회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2018. 12. 2. 서울 성동구청에서 천우미디어 출판사 겨울 문학축제에서 이흥렬 회장님은 문화예술 공로상을 받았고 이순희 총무님과 대구회원 김성현 님이 신인작가상을 받고 등단했다.

2018. 12. 17. 대구 들안길 식당에서 우리 협회 후원회 회장이신 박종안 사장을 비롯한 11명의 후원 이사님이 모여서 후원회 결성식과 후원회 밤을 개최했다.

2019. 4. 22.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많은 내빈을 모시고 민들레 26호 출판식 및 21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거행, 특히 이날 우리 협회 후원회장님이 대구시장님의 표창장 수여식도 겸하여 가졌다.

2019. 10. 18. 두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우리 협회 주최로 대구재능시낭송가협회. 성음 크로마하프 대구지부, 꽃무리 하모니카 봉사단 연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19. 11. 7. E-랜드 정문 앞 2.28기념탑 공원에서 12월 5~8일까지 북부도서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다. 오가는 시민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보신 시민들은 이 옷을 팔지 않느냐고 물어왔지만 우선 순위가 회원이라 팔지 않았다.

2019. 12. 5~8. 대구 북부도서관 전시실에서 시화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고 협회 홍보도 하였다.

2020. 6. 8.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들레 27호 출판기념회 및, 22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 행사는 취소되고, 11명의 수상자들에게 상금은 계좌로 송금, 상장은 우편으로 송부했다.

2020. 11. 6~7. 청송 주왕산면 내룡리 체육공원에서 시화전과 사진전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함께 협회 홍보를 했다.

2021. 10.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개별적 온라인으로 상금

과 상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2022. 6. 18.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29호 출판기념회 및 24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에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2023. 1. 대구시 수성구에 상설 시화전장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 수성점 건물 1층에 전시됨. (황금네거리)

2023. 6.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30호 출판기념회 및 25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에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2024. 5.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31호 출판기념회 및 26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의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2025. 5.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민들레 32호 출판기념회 및 27회 민들레문학상 시상식을 대구에 많은 귀빈을 모시고 전국 수상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주소록》

■ 대구 회원

최진오 대구시 달서구 도원남로
안홍성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정선화 대구시 북구 침산남로
김헌직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조성래 대구시 서구 문화로
채경숙 대구시 달서구 상인로
배미경 대구시 수성구 공경로
구순혜 대구시 달서구 한들로
최희옥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동로
배영민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양해주 대구시 달서구 한실로
장윤정 대구시 동구 화랑로
김상우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이재수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장성태 대구시 달서구 대명천로
채영숙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한상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김희철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로
김성현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김미연 대구시 중구 동인로
김사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강선미 대구시 북구 침산로
김금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손복식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서정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서희경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석민영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이준희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정재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정병율 대구시 북구 침산동
채원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유태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김윤기 대구시 북구 산격동
이수진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이성래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임은현 대구시 서구 평리로
윤외숙 대구시 북구 침산로
한찬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금포리
이재창 대구시 남구 현충로
박종구 대구시 동구 신천로
김창길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노민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선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광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정명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장윤정 대구시 동구 효목동
김형기 대구시 달서구 다사로
조경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이수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조진호 대구시 동구 효목동
김　창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심갑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이동훈 대구시 남구 봉덕동
박병구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장경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최경훈 대구시 동구 지저동
박은정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김현주 대구시 남구 성당로
안홍성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고봉국 대구시 북구 구암로
최진오 대구시 도원남로

채점순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백경현 대구시 북구 대현남로
강정용 대구시 달성군 현 풍읍 테크노상업로
정하해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조우호 대구시 북구 동북로
이공내 대구시 서구 중리동
유나겸 대구시 동구 불로동
임재만 대구시 남구 안지랑로
유호진 대구시 북구 서변로
이도훈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민은경 대구시 남구 명덕로
박은숙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김성찬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이기원 대구시 수성구 신매로

■ 경북회원

강경의 포항시 남구 해도동
김명희 포항시 북구 대신동
김성태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김승동 경북 점촌시 신기동
김준엽 경북 경주군 외동읍 활성리
김진규 경북 경산시 계양동
김종훈 안동시 성곡동
김성선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김갑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권오웅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정금숙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전진국 김천시 부곡동
김진년 안동시 옥야동
박정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김신애 포항시 대도동
이상선 상주시 외서면
한종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세종 포항시 북구 양덕동
윤남석 김천시 부곡동
박은하 구미시 형곡동
정우태·김희옥 포항시 북구 장미길
김규린 포항시 북구 성실로
이영숙 안동시 경동로
김재훈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정해교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박정은 포항시 북구 장량 중앙로
김동한 영주시 지천로
남동진 경산시 역청로
이정희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한관식 영천시 고경면 창방우길
최광현 안동시 경동로
김경식 경북 김천시 감문면
김송연 경북 김천시 구성면
배혜숙 영주시 구성로

■ 부산·경남회원

정은희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김지수 김해시 평전로
옥진상 울산시 대암로
조재훈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한지길
김창환 양산시 배움터길
이채은 부산시 남구 감만동 우암로
이성규 양산시 번영로
서영희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김동현 경남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
김남철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박현안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정윤석 부산시 동구 좌천동
최운탁 경남 김해시 외동
이민규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손성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박성남 김해시 영좌동
김영곤 부산시 북구 금곡동
김현주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박정현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김상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김주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정만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이정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허윤도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구봉문 통영시 봉평동
강두선 통영시 봉평동
송인탁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신철우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장봉철 양산시 덕계동
김미경 부산시 사하구 한신번영로
공복이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김규선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안진상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이영미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장정순 경남 진주시 사들로
김진주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김정현 경남 김해시 무계로
이종무 부산시 금정구 남산로
이후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오택승 울산시 동구 전하동 봉수로
권상연 울산시 중구 곽남길
조혜옥 울산시 북구 중산로
조요섭 부산시 남구 수영로
최현철 양산시 대운로
성희철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홍진기 경남 창원시 소계동
한상식 경남 양산시 중부동
남정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박미향 경남 합천구 창덕면 덕진로
주치명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 강원도 회원

오광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우덕호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조의령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김재빈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정상석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여운택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조영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백호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유경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천기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김가영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한명숙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최영철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김익진 강릉시 선수촌로
이은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김정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노차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박광순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엄희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이은영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황영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정우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 경기 회원

이진영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장민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이영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로
윤　강 부천시 조마루로

이청주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최삼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맹윤종 경기 군포시 군포로
신계원 경기 고양시 일산
김경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손병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성민호 경기 군포시 당동
장화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김판길 인천시 남구 숭의동
홍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황종배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박원식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한병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이윤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정혜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미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기영 인천시 동구 송림동
신승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강경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오화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김미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박철호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이은주 경기 김포시 양촌면
한영애 경기 파주시 교하읍
김은복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최혁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장대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전정숙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제삼열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유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고준형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손명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박광주 부천시 원미구 중동
김정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박성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채혜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조은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최재호 경기 양주시 덕정길
박찬용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송 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석명현 안산시 상록구 고목로
김예슬 과천시 문원 청계길
이순자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박선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일현 인천시 남구 문화로
이용록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한주은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윤길수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이경숙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김리디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이효건 경기 군포시 산본로
박길안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이명자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김순철 경기 오산시 운암로
신숙이 경기 군포시 삼성로
최의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이승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이승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최빛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이만균 경기 광주시 중앙로
정동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전홍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박두나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조민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송인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진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김인성 인천시 동구 중앙로
천 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진애 경기 하남시 검단산로
이만균 경기도 광주로 중앙로
노명현 경기 김포시 유현로

■ 서울 회원

서귀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김창주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김양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김효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고정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구애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노승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동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임영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임용혁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우창수 서울시 서초구 장원동
최진영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서주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김종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김경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박병훈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차강석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정호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김영식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신성남 서울시 중구 남창동
윤정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김영자 서울시 중구 남창동
이병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심철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윤현희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현동재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박종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권대성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김성진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김효진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김삼식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조수영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이영석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정미영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김현아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조국형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최동열 서울시 강서구 지족동로
윤홍근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장서영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홍성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 전라도

김성은 전북 익산시 동천로
송창재 전북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이계천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박진희 광주시 북구 서하로
김종현 광주시 도암동
최주영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상리
서기선 광주시 두암동
나두길 전북 군산시 나운동
유영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황성욱 전남 순천시 황천면 비촌리
백국호 전남 장성군 삼서면
박진식 전북 순창군 순창읍
조명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김옥중 광주시 북구 운암동
유승열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이충묵 전북 익산시 부송동

서하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정현
김재철 광주시 서구 덕흥동
송진우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박　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김힘찬 전주시 중화산동 강변로
김소연 전남 순천시 서면 강청길
오석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변희숙 여수시 신기북5길
김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김지혜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박재열 광주시 서구 상무평화로
서경구
최세환 광주시 서구 염화로
김순덕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
이승훈 광주시 서구 풍암순환로
김사명 순천시 서면 강청길
김민수 전북 익산시 동산동
박진식 전북 순창군 순창읍
최은애 전북 부안군 상서면
김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 충청도

박철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교동길
정철호 대전시 서구 계백로
오유진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이재영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
신영일·왕능운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이순복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양수영 대전시 서구 계백로
이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김언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김응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김수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심상진 충남 천안시 문화동
전기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안형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이상용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하보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황종후 충북 충주시 달천동
유영희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천성필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이예향 천안시 읍내동
이대우 천안시 쌍용11길
임정수 충남 논산시 상월면
최희숙 충남 보령시 남포면
김상규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오인자 천안시 성정동
이자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은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정철우 충남 논산시 상월면
김명자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이병옥 충남 공주시 탄천면
김재식 충주시 산척면
이헌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최헌영 충남 공주시 옥룡동
김은경 충남 공주시 금성동
조민우 청주시 상당구 율량구
박미연 대전시 동구 운문동
임남혁 대전시 동구 판암동
김동현 충북 충주시 흥덕구 장성동
김선미 대전시 동구 삼성동
김동수 충남 서산시 수석동
장명훈 대전시 대덕구 법동 계족로
박점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동로
서영자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박선여 충북 보은군 장안면 방아다리길
김영민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소산로
김영자 대전시 대덕구 덕암북로
최동열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로
박강정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김낙중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 제주도

김문택 제주시 노형동
김미현 제주시 도련동
김태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이승익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수진 제주시 이호동
한복섭 제주시 도련동
홍양진 제주시 용담동
이정희 제주시 노형동
김일남 제주시 태성로
우가혜 제주특별자치도 삼도2동
김황재 제주시 일도2동

함께해 주세요

■ **민들레문학상 공모전** 매년 10월 ~ 2월까지 전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과 애환을 극복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낸 글을 뽑아 시상합니다.

■ **기간지 민들레 출판회 및 시상식** 매년 5~6월에 출판회와 시상식을 합니다.

■ **일일찻집 자선 바자회 시상식** 가을에 협회 운영자금과 마을공동체 기금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 모임 문학토론회**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3:00 장애회원과 봉사자가 함께 문학토론,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 **민들레향기 소식지** 매월 장애인들의 작품과 복지 소식, 문화 소식을 담아 전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야외 시화전 시낭송** 공원이나 기관에 협조를 받아 수시로 시·그림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하면서 공연도 합니다.

■ **문학 강좌** 봄, 가을 문학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30~4:30 강의,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상담합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자원 봉사단 수시모집** 활동범위: 협회행사 및 멘토링, 학습봉사, 상담, 시설봉사, 독거가정 봉사해 주실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 **부스러기 장학금 모금** 월 1천 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 어려운 장애인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 **땅 사기 모금** 장애인 예술마을공동체 건립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재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땅 사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 **소풍 및 문학기행** 회원들과 봉사자가 함께 소풍과 문학기행 기획에 함께해 주세요.

신청 상담 010-4844-1398 / 010-3548-1398

문학 강의합니다

'문학으로 만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문학도 배우고 소중한 인연도 만나 풍성한 교재도 나누는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는 물론 타 지역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동대구역에 도착하시면 사무실까지 차량봉사가 지원됩니다.

◈ **기　간** 상반기 16주 하반기 16주
◈ **일　시** 매년 3월 둘째 주 개강. 하반기는 9월 둘째 주 개강
　　둘째, 넷째 주 문학 강의 목요일 오후 2:30~4:30
◈ **월모임** 문학토론회 매월 셋째 목요일 같은 시간
◈ **장　소** 협회 사무실 또는 하늘문교회
◈ **연락처** 010-4844-1398 / 010-3548-1398
◈ **주　최**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셋째 주 목요일은 각자 자신의 작품과 기성작가의 작품으로 토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띤 토론회가 되도록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부탁합니다.

아직 입문이 어렵고 두려우신 분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원 안내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운영	매월 : (1만원) (2만원) (3만원) (일시불)
	계좌 : 국민은행 69901-04-135657 농 협 355-0022-2900-53
부스러기 장학금	매월 : 1,000원/2,000원/3,000원/5,000원 10,000원
	계좌 : 농 협 355-0022-2882-33 국민은행 699601-04-135673
땅 사기 모금	매월 : 1만원/2만원/3만원/5만원 10만원/일시불
	계좌 : 국민은행 699601-04-135660 대구은행 5050-10-164296-9

★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포함 월 400~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상과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적극 후원해주시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차 한 잔 아끼고 담배 한 갑 아끼시면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한 아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 협회의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올해부터 5년씩 4단계로 그 첫 단계로 200~300평의 땅을 사는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는 장애인들이 모여 문학예술을 배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과 개인생활을 존중받고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합니다.
땅 기증하실 분도 찾고 있으니 혹시 여분의 땅이 있으신 분은 저렴한 가격이나 기증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는 3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순수 장애인문학협회입니다.

우리 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것과 아울러 봉사활동도 겸하여 일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사회 속에 인간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사랑도 식어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이웃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진한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실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대 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 봉사활동

협회 행사, 재가 장애인 학습 도우미, 소년소녀 가정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 상담, 치료 상담 등등이 있습니다.

□ 효 과

봉사 시간, 봉사 점수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

□ 모 집

수시 모집합니다.

□ 연락처

010-3548-1398 / 010-4844-1398

□ 접 수

(사)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뜻있는 분들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장애인예술마을공동체〉

건립 계획서



주최 사회단체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1. 목적

협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합니다. 기존 시설이라 하면 집단 공동체를 선호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사생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정의 정서가 없는 사육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예술마을공동체**〉를 조성, 장애인들의 개인생활과 안락한 가정의 정서를 보장하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취미에 맞는 작업실, 또는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2. 목표

이곳에 입주하는 장애인들은 문학예술에 꿈이 있거나 기술을 가진 자로 하되 한 가정에 한 가족, 또는 마음 맞는 장애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고, 또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독거하는 데 불편하지 않

도록 관리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것을 작품화하고 상품화시켜 전시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므로 열린 문화사회를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입주한 장애인들은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생활하며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것은 관리인이 도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서 안전한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미술, 서예, 문학예술, 각종 공예, 컴퓨터 IT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텃밭도 가꾸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품격 있는 작품전시도 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 강연도 해 장애인들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문가로 발돋움하여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가. 개요

① 2013년 5월부터 "장애인종합예술마을공동체" 건립 모금운동 실시

② 모금 방법: 소식지, 일일찻집, 자선 바자회, 초청 공연, 기업 단체와 연계,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할 계획입니다.

③ 건립 범위: 총예산 면적 2,000평~2,500평

④ 주요 사업: 입주자 생활공간 20~30채, 개인 작업실, 다목적 강의실, 실·야외전시장, 카페, 텃밭, 관리실 등입니다.

나. 세부사항

생활공간	주거 공간과 작업실	독거 또는 가족	개인당 20~25평	층수는 2층
다목적 강의실	100~150석	영사실 포함	문화 예술에 관한 각종 강의	개인 지도는 각자 작업실
전시장	120~50평	자연과 함께 하는 전시	시화, 목각, 서예, 다양한 공예	판매도 가능함
카페 운영	50~70평	다과와 차 종류	수입금은 운영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금으로	

텃밭	300~400평	각종 채소와 유실수를 가꿈	입주자 중심으로 하되 주위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함	
관리	10~15명	전체적인 관리	입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 관리인도 필요함	
차량	3대 ~ 4대	포터1대, 봉고1대 승용차	장애인들의 이동과 관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임	

다. 구체적 내용

▣ **전체 구조** 그림과 같이 전체 테두리는 담 대신 나무를 심고 카페와 전시장과 마당을 하나로 공원처럼 조성하여 전시도 하고 쉼터로 만들어 언제든지 손님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전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들도 언제든지 이용하면서 소통하는 마을로 만들고 다목적 강당 1층과 다용도 작업장 2층은 영상, 강의, 예배실로, 텃밭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가꾸고 나누는 장이 되게 합니다.

빌라형 주거로 2~3층으로 20~30세대로 제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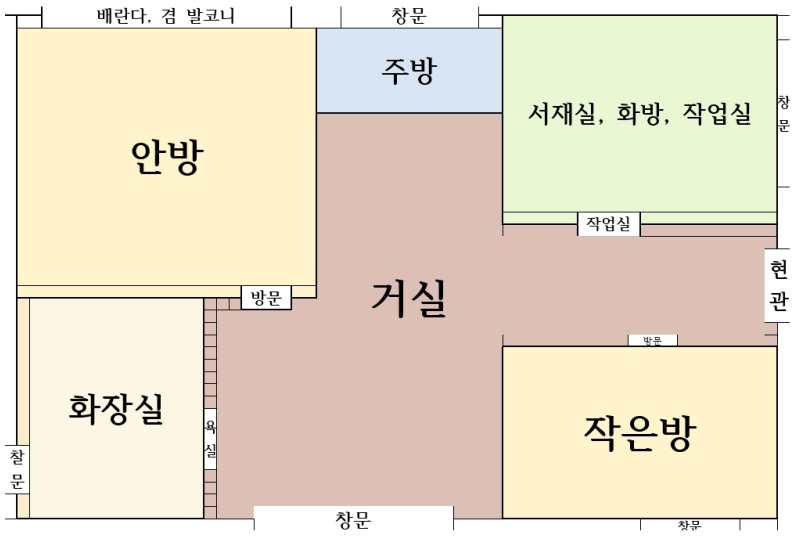
▣ **입주자의 생활공간** :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작업공간으로 기본이 됩니다.

한 가정 1가족이 입주하고 독거인은 원하는 대로 혼자 살고 싶어 하면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지원하고 2인 1조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입주자 자격** : 장애인으로서,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자. 기초수급자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도 가능함

▣ **입주자의 처우** : 1차적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인 것은 환경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할 경우 관리인이 불편한 일들을 처리하여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 **입주자의 의무** : 입주자는 개인 생활이 중심이지만 공동체의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사)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 고 문 ◈

한외근 (전 경산장애인복지관장)
최경집 (향토연예인협회 고문)

◈ 임 원 ◈

회　　장　이흥렬
부 회 장　손복식(대구), 김진균(경북)
감　　사　조우호(전, 성보재활원 원장)
총무간사　이순희

◈ 이 사 ◈

박종안 (㈜ 신독엔지니어링 대표)
장성태 (㈜ 굿실버복지회 대표이사)
김학조 (계간《시인시대》편집장)
이미향 (금동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이대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장)
임신웅 (아고라 공유사무실 대표)
박경숙 (시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자매결연단체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대구동서 라이온스클럽
(주) 신독엔지니어링
(사) 굿실버복지센터
(사) 신체장애인복지회 남부지부

2026년 제33호
민들레

찍은날 | 2026년 5월 26일
펴낸날 | 2026년 5월 30일

펴낸이 | 이흥렬
펴낸곳 |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찍은곳 | 북랜드
41965 대구시 중구 명륜로12길 64(남산동)
전화 (02) 732-4574 | (053) 252-9114
팩스 (02) 734-4574 | (053) 252-9334
홈페이지 www.bookland.co.kr
이메일 bookland@daum.net

본 서적은 2026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굿실버복지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하나. 어르신을 모십니다.

굿실버요양원(입소보호사업)

- **이 용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4등급자
- **이 용 시 간** | 24시간
- **이 용 료** |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 적용 (비급여 별도)
- **서비스 내용**
  상담서비스, 간호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신체 및 인지활동 증진서비스, 사회증진서비스, 가족지지서비스

굿실버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사업)

- **이 용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이 용 시 간** | 월요일~토요일
- **이 용 료** |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 적용 (비급여 별도)
- **서비스 내용**
  상담서비스, 간호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신체·인지활동서비스,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송영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

굿실버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사업)

- **이 용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 **이 용 시 간** | 평균일 3~4시간
- **이 용 료** |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적용 (비급여 별도)
- **서비스 내용**
  인지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재가노인지원사업)

- **이 용 대 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층)
- **이 용 료** | 무료
- **서비스 내용**
  정서지원, 밑반찬지원, 건강관리지원, 난방지원, 폭염지원, 명절지원, 생신지원, 절기서비스, 어버이날서비스, 김장지원, 차량지원, 행정지원, 주거환경개선, 교육지원, 여가활동지원, 의료연계지원, 이·미용서비스, 후원물품지원, 후원결연지원, 연계지원, 사례관리 등

두울. 자원봉사자를 모십니다.

- **굿실버요양원 / 굿실버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공예, 원예, 요가, 건강체조, 마사지 등) 목욕봉사, 노력봉사(청소 및 설거지), 어르신 말벗 및 수발봉사 등
-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
  밑반찬 배달, 가정방문(말벗 및 안부확인), 안부전화, 행사보조(나들이 및 경로잔치 등), 기초건강체크 등

세엣. 후원자를 모십니다.

-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무의탁 독거어르신에게 매월 정기후원, 밑반찬지원, 난방연료지원, 주거환경개선, 의료비지원, 폭염·혹한기 물품지원, 여가활동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 후원방법 : 본 센터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이용하시는 계좌에서 아래의 후원계좌로 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하여 정기적인 후원이 가능합니다.
  (효성CMS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예금주	은 행	계 좌 번 호
(사)굿실버복지회	대구은행	072-10-001224
굿실버요양원	대구은행	298-10-001925
굿실버주간보호센터	대구은행	504-10-400418-4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은행	072-10-00189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원하는 기관으로 기부)도 가능합니다.
- 네이버 해피빈(기부콩)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http://www.goodsilver.or.kr/

굿실버요양원 T. 628-9911 * 굿실버주간보호센터T. 628-9910 *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 T. 652-0272

SINDOK

주식회사 신독

愼獨

SMART & STRONG SINDOK

WELDING ROBOT FA SYSTEM



주식회사 신독



에스디에스(주)



상하신독(중국법인)



▶ 연 혁

- 1992.01.06 신독엔지니어링 창업.....(대구광역시 제3공단)
- 1992. ~ 1995. 지방기능올림픽출전.....(밀링CNC직종 4년연속 금메달획득)
- 2000.05.01 공장 이전.....(대구 성서공단 월암동)
- 2000.06.01 신독엔지니어링㈜ 법인전환
- 2000.09.09 QS-9000/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
- 2000.12.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7.03.25 공장 이전.....(대구 성서공단 대천동)
- 2007.04 기업신용도 평가 "A" .....(한국신용평가정보원)
- 2011.12.18 INNO-BIZ 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선정 "AA".....(중소기업청)
- 2010.03 삼하신독 기차설비 유한공사 설립.....(중국 하북성 삼하시)
- 2012.02.01 에스디에스㈜.....(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월항산업단지)
- 2012.07 기업신용도 평가 "A".....(한국신용평가정보원)
- 2013.01.15 에스디에스㈜ 안산 연구소 설립.....(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2015.12 공장 신축 이전.....(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
- 2016.04 법인명 변경 "주식회사 신독"
- 2019.01 인도법인 설립(SINDOK INDIA)
- 2021.06 미국법인 설립(SINDOK AMERICA)

▶ 수 상 내 역

- 1992.~1995. 우수기능지도자 공로표창 4회 연속 수상.....(경상북도지사)
- 2001.03.28 대구광역시 기능올림픽 육성공로 표창.....(대구광역시장)
- 2002.09.05 기술혁신부문 장관상 수상.....(산업자원부 장관)
- 2004.01.28 기업인 교류 촉진 공로 표창.....(대구광역시장)
- 2004.09.02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표창.....(산업자원부 장관)
- 2008.05.13 중소기업 발전공로 표창.....(지식경제부 장관)
- 2010.09.07 우수자본재 개발유공 대한민국 " 산업포장 " 수상 .....(행안부 장관)
- 2011.03.29 고용노동부장관 "자랑스런 기능한국인 표창" 수상.....(고용노동부 장관)
- 2011.04.22 "VISION 2011 사회공헌/경영혁신 종합대상" 선정.....(서울신문)
- 2011.12.13 대구 경북 첨단 벤처 산업대상 수상.....(대구광역시장)
- 2012.12.05 1000만불 수출의 탑 / 유공 직원 2명 대통령 표창 수상.....(행안부 장관)
- 2013.07.11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선정.....(대구광역시장)
- 2016.09.26 2016 경북PRIDE 기업 선정.....(경상북도지사)
- 2020.05 중소기업인 대회 '은탑 산업훈장' 수훈.....(대한민국 정부)
- 2020.12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행안부 장관)

본사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5길 83 TEL : 054-930-0800 FAX : 054-930-0829 http://www.sindok.co.kr